[UCI]I804:24011-200000241289

2011年 2月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論文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 소재 서사문학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Epic Literature Using Overseas Experiences as Materials during the Period of Imjinweran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秋　亨　周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 소재 서사문학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Epic Literature Using Overseas Experiences as Materials during the Period of Imjinweran

2011年 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秋　亨　周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 소재 서사문학 비교연구

指 導 敎 授　鄭　吉　秀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10年 10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秋　亨　周

秋亨周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 査 委 員 長 朝鮮大學校 敎 授 韓 睿 媛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林 濬 哲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鄭 吉 秀 印

2010年 1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目　　次

ABSTRACT ····· iii

Ⅰ. 서　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방법 ····· 6

Ⅱ. 작품 구성 ····· 10
1. 탈출에서 귀국까지의 여정 -『錦溪日記』 ····· 10
2. 전쟁으로 인한 이별과 재회의 반복 -「崔陟傳」 ····· 16
3. 安南으로의 여정 -「趙完璧傳」 ····· 21

Ⅲ. 장르의 일반적 특징과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 소재 문학 ····· 26
1. 실기문학과『錦溪日記』 ····· 26
1) 실기문학의 일반적 특징과『錦溪日記』 ····· 26
2) 일기형식의 파편성과 국외 체험 서술의 통일성 ····· 30
2. 전기소설과「崔陟傳」 ····· 39
1) 전기소설의 일반적 특징과「崔陟傳」 ····· 39
2) 다채로운 국외 체험과 전기소설 형식의 변모 ····· 45
3. 傳과「趙完璧傳」 ····· 51
1) 傳의 일반적 특징과「趙完璧傳」 ····· 51
2) 국외 체험으로 인한 사건 중심의 서술 ····· 54

Ⅳ. 서술방식 비교 ····· 57
1. 시점 ····· 57
1)『錦溪日記』의 1인칭 주인공·관찰자 시점 ····· 57
2)「崔陟傳」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66
3)「趙完璧傳」의 3인칭 관찰자 시점 ····· 70

2. 시간 ····· 73
1) 『錦溪日記』의 시간 - 일상의 시간과 고국 귀환을 위한 여정 ····· 73
2) 「崔陟傳」의 시간 - 서사 병렬과 시간 역전 현상 ····· 77
3) 「趙完璧傳」의 시간 - 시간의 순서에 따른 서사 전개 ····· 80

Ⅴ. 결론 ····· 83

참 고 문 헌 ····· 89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Epic Literature Using Overseas Experiences as Materials during the Period of Imjinweran

Chu Hyeong-Ju
Adviser : Prof. Chung Kil-Soo Litt.D.
Major in Sino-Korean Literatur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mjinweran was derived from two Japanese invasions from 1592 to 1598. It was an important event in East Asia at that time which affected China and Japan as well as Joseon. So there are diverse records on outbreak and process of Imjinweran. This study focused on overseas experiences of Korean people due to Imjinweran. As the overseas experiences were realistically delivered through epic literature such as authentic records, novels and narratives, this study analysed compositions of each literary works, general characteristics of genres and each literary work, and descriptive methods focusing on *Geumgye Diary*, *Choicheok-jeon*, and *Jowanbyeok-jeon* representing epic literature. As a result, the study discovered that the three literary works with different genres using similar overseas experiences as materials hav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beyond existing genres.

Geumgye Diary records an escape to China from Japan, and experiences at China in detail. It describes customs and institutions of China, but it includes poems or essays on intention to return home, which gives literary sensation to readers. *Choicheok-jeon* describes situations of war through overseas experiences of a hero realistically and specifically. It shows suffering of the people at that time, suggesting that it was a war which brought pain to other peoples as well as our people. *Jowanbyeok-jeon* records Jo Wan-byeok's

journey to Vietnam with his Japanese landowner. Unlike existing narratives designed to praise and criticize others, *Jowanbyeok-jeon* was intended to describe interesting events in an epic view.

Based on discussion on the composition of each work, the study examin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genres and each work. *Geumgye Diary* describes events with objective views as a true record with the author's feeling excluded. It shows a longing for home and intention to return home through poems. The author records his experiences without limitation to themes or length. So, contents which are not related to the epic flow sometimes appear. However, as the whole work has a longing for his home and intention to return home, it has a uniform base of a record of journey toward returning home.

The early part of the *Choicheok-jeon* is characterized by biography based on love. It is a biography focusing on love, but it has formed a distinctive literary world different from other biographies. Its space was expanded through overseas experiences and more weight was given to the entourage to represent diverse aspects of war. Through description of diverse characters, it describes influences of war on families and other peoples beyond heroes.

Narrative deals with life of heroes and praises and criticizes them by arranging special episodes involving them. *Jowanbyeok-jeon* is an organic epic narrative describing strange events Jo Wan-byok had when he was taken into Japan as a war prisoner and went to Vietnam with his Japanese owner for business. It describes new information ach as civilizJowanbyand customs of Vietnam, focusing on exciting episodes rather o Vn the character of Jo.

Finally, the study compared descriptive methods of the three works based on points of views and time. *Geumgye Diary* is a diary based on real episodes in the first person point of view. It used the first person point of view of observer to describe events or information with an objective view. It used the first person view point of hero to represent a longing for home through poems. *Choicheok-jeon* used the omniscient third person view point. The narrator knows what the characters think and the overall events. The author describes episodes through eyes of the hero indirectly and what the hero thought directly. It is the first person viewpoint with his feeling controlled in the maximum for

objective representation, which is contrary to *Geumgye Diary* which represents feeling through poems. *Jowanbyeok-jeon* used the third person viewpoint. As a narrative records facts in historians' style, it can not use the omniscient third person view point. The author of *Jowanbyeok-jeon* intended to deal with new information on Vietnam. So, it did not give a focus on the hero's feeling. It is similar to *Geumgye Diary* which describes episodes in the observer's viewpoint.

Geumgye Diary which is written in a diary style describes episodes in a sequential order. Such style has a weak point in that it is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information. However, the sequential record of episodes accompanied by specific records of dates, places and weather brings familarity to experiences of the author. As the entourage of *Geumgye Diary* are just common people the author met during overseas experiences, they did not have any organic connection. However, such individual materials have uniformity as they are included in a single theme of recording overseas experiences. It is contrary to *Choicheok-jeon*. The heroes of *Choicheok-jeon* are Choi Cheok and Ok Young, but the author records the entourage very specificis c. The description follows chronological order, but description of each character intermittently appears in a low in the middle of the record, which makes time reversed. The reason why *Choicheok-jeon* had reverse structure of time was that heroes were separated and had different overseas experiences. *Jowanbyeok-jeon* describes Jo's experiences in sequential order focusing on his journey to Vietnam for business with his Japanese owner, which is similar to *Geumgye Diary* which is written in a diary style.

Ⅰ. 서 론

1. 연구 목적

壬辰倭亂은 1592년(宣祖 25)부터 159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이 조선을 침입하여 일어난 전쟁이다. 임진년(1592)에 있었던 1차 침입을 壬辰倭亂이라 하고, 정유년(1597)에 일어난 2차 침입을 丁酉再亂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정유재란까지를 포함 한 것을 말한다. 임진왜란은 7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친 전쟁이었던 만큼 정치·사회·문화적인 면은 물론 정신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준 조선 최대의 참혹한 전쟁이었다.

이 사건은 피해국인 조선은 물론 침략국인 일본, 참전국인 중국에도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혔다. 일본에서는 豊臣秀吉이 몰락하고 德川幕府가 성립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조선 출병으로 인해 국력을 소모하면서 청나라가 발흥하게 되었다. 조선은 사회체제가 동요되며 중세질서의 변혁에 직면하게 되었다.[1]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건이므로, 다양한 기록이 이루어졌다. 임진왜란 기록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주로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임진왜란 발발 400주년이 되는 1992년을 기점으로 문학적 측면의 연구가 한층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학사적 측면에서 임진왜란이 중요한 이유는 임진왜란 이후 나타나는 문학적 변화 때문이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문학작품은 詩歌·實記·小說·傳 등 다양한 장르로 남아있다. 이 중 특히 실기·소설·전 등의 서사문학은 그 장르의 특성상 임진왜란의 여러 측면을 자세히 표현할 수 있었다. 조선조에는 사신의 임무가 아니면 국외로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 이런 시기에 일반인들의 국외 체험은 대개 전쟁 포로가 되어 겪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경험이었으며 실제로 일어났다고는 믿기 어려운 기이한 일들이 많았다.

특히 정유재란 때 일본은 捕虜部를 두어 계획적으로 포로를 잡아갔다. 포로로 붙잡혀간 이들은 가족과의 생이별이라는 아픔을 겪어야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들은 나라 밖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귀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의 국외 체험은 단순 기록을 넘어 문학작품에까지 반영되었다. 임진왜란기 국외

1) 정구복,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미」,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2,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177~219쪽 참조.

체험과 관련된 문학작품은 다양한 장르로 표현되었다. 그 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기나 소설·전 등의 서사문학은 국외 체험의 실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과 관련된 문학작품 연구의 선구자는 소재영이다. 소재영은 포로체험을 담은 실기문학 중 姜沆(1567~1618)의 『看羊錄』, 魯認(1566~1622)의 『錦溪日記』, 鄭希得(1573~1640)의 『月峯海上錄』을 대상으로 姜沆·魯認·鄭希得의 생애를 간략히 다루고 被虜 과정과 각 작품의 문학적 특징을 간략하게 기술했다. 이 과정에서 「崔陟傳」과 「南允傳」 주인공의 경험이 『錦溪日記』의 작자인 魯認의 경험과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했으나 그 이상의 자세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2)]

이후 임진왜란 발발 400주년인 1992년에 임진왜란기 문학작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임진왜란과 한국문학』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김태준 등 7명의 연구자가 임진왜란과 관련된 한국문학을 장르별로 연구한 결과를 묶은 것이다. 그 중 국외 체험이 담긴 서사문학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는 김태준의 「임진왜란과 국외 체험의 實記文學」과 소재영의 「임진왜란과 소설문학」이다.

김태준은 포로가 된 사람들의 직접체험을 전해주는 실기에서 주로 외국체험의 실상을 살폈다. 姜沆의 『看羊錄』에서는 고국을 침략한 나라에 姜沆이 新儒學을 전수했다는 대목에, 魯認의 『錦溪日記』에서는 동아시아적 공간체험에, 鄭希得의 『月峯海上錄』에서는 포로 刷還의 계기 및 鄭希得의 문집형성 과정과 관련된 임진왜란 체험에 주목해 각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밝혔다. 간접체험에서 주목할 점은 刷還使의 일기를 통해 살펴본 포로 趙完璧과 그의 전기 「趙完璧傳」이다. 「趙完璧傳」에는 安南에서 이수광의 한시집이 널리 읽힌 사실이 소개된다.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나마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관련을 증거해 주고 특히 월남과의 문학 교류의 드문 보기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3)]

소재영은 임진왜란이 후대 소설문학에 끼친 문학사적 영향의 문제를 검토하여 몇 가지 변화를 밝혔다. 그 중 국외 체험과 관련된 작품은 「崔陟傳」·「南允傳」·「周生傳」으로, 소재영은 세 작품이 전란체험을 사랑이야기로 형상화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작품들과 관련된 소설사의 변화는 첫째, 소설이 임병양란 후에 보다 사실주의적 변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 둘째, 작품에 있어서 통시적·공간적 관념이 보다 확대되고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 셋째, 설화나 역사, 전기, 야담류의 소재들이

---

2) 소재영, 「壬亂被虜들의 해외체험 - 錦溪日記·看羊錄·海上日錄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9, 겨레어문학회, 1985, 235~252쪽 참조.

3) 김태준, 「임진왜란과 국외 체험의 實記文學」,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79~108쪽 참조.

활발히 작품화되고, 실학시대를 지향하면서 사회의 전범이 될 만한 개인의 傳記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4]

그 외에도 임진왜란 국외 체험을 다룬 서사문학은 각 장르별로 연구되어왔다. 실기분야에서 국외 체험을 담고 있는 작품은 작자가 포로생활시 작성한 포로 실기이다. 포로 실기를 대상으로 한 주요 연구로는 앞서 언급한 소재영의 연구를[5] 위시하여 임진왜란 실기의 자료를 정리하고, 임란 실기가 갖고 있는 문학성을 고찰한 장경남의 연구[6], 포로 실기를 역사연구의 보조 자료가 아닌 한편의 문학작품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기의 문학적 가치를 논한 이채연의 연구[7], 일기문학의 측면에서 『錦溪日記』를 중점적으로 살핀 김진규의 연구[8]가 있다.

이외에도 실기를 문학적 측면에서 보고 서술특징이나 실기문학에 서술된 윤리규범의 면모를 고찰한 연구와[9] 임진왜란 배경의 한·일 실기문학의 비교를 통해 한·일 실기문학에 나타난 서술 시각의 층위와 형상화 전략을 살핀 연구 등이 있다.[10] 기존의 실기문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실기의 문학적 가치를 밝히는 연구에 집중 되어왔다. 기존의 연구로 포로 실기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면은 밝혀졌으나, 개별 작품이 가진 특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이에 필자는 기존의 연구 성과인 실기의 문학적 측면을 살려 실기를 서사문학에 포함되는 문학작품으로 보고, 국외 체험을 담은 실기문학이 가진 특징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을 담고 있는 한문 소설은 「崔陟傳」·「周生傳」·「韋敬天傳」이 있다. 이 중 국외 체험이 작품 전반적 배경으로 서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작품은 「崔陟傳」이다. 「周生傳」과 「韋敬天傳」의 경우 임진왜란으로 인해 중국인인 주인공이 조선으로 오면서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게 된다는 상황만 정보 형태로 언급되어 있을 뿐 국외 체험 자체가 서사에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다. 그러나 「崔陟傳」은 주인공 남녀의 사랑이 결실을 맺은 후 발발한 임진왜란으로 인해 가족이 뿔뿔

---

4) 소재영, 「임진왜란과 소설문학」,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231~257쪽 참조.
5) 소재영, 「壬亂被虜들의 해외체험 - 錦溪日記·看羊錄·海上日錄을 중심으로」, 235~252쪽.
6) 장경남, 「임란 실기의 문학적 특성 고찰」, 『숭실어문』11, 숭실어문학회, 1994, 53~92쪽.
7) 이채연, 『壬辰倭亂 捕虜實記 硏究』, 박이정, 1995.
8) 김진규, 「임란 포로 일기 연구 - 錦溪日記를 중심으로」, 『새얼어문논집』10, 새얼어문학회, 1997, 93~122쪽.
9) 장경남, 「임란 실기문학의 서술 특징 연구」, 『숭실어문』13, 숭실어문학회, 1997, 355~373쪽.
____ , 「임란 실기문학에 서술된 윤리규범의 면모」, 『숭실어문』14, 숭실어문학회, 1998, 575~598쪽.
10) 이채연, 「韓·日 실기문학에 나타난 임진왜란 체험의 형상화 전략」, 『한국문학논총』22, 한국문학회, 1998, 149~180쪽.

이 흩어지면서 주인공의 국외 체험이 시작된다. 남녀 주인공의 애정결연 서사에 국외 체험의 서사가 더해지는 것이다. 남녀 주인공과 주변인물의 국외 체험은 작품 전반에 걸쳐 그려지면서 그 시대 전쟁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렇기에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이 담긴 한문 소설로는 「崔陟傳」 한 작품을 꼽을 수 있다. 「崔陟傳」 연구자 중 특히 민영대는 1987년 「崔陟傳 연구」를 시작으로 작자 조위한과 관련된 것, 다른 傳과의 대비 등 「崔陟傳」을 다양한 시각에서 고찰했다.[11] 그 외에도 「崔陟傳」의 연구는 장르론적 관점에서 살펴본 박일용[12], 「崔陟傳」의 주제에서부터 구성이 갖는 특징과 불교적 요소, 「홍도이야기」와의 비교, 소설사적 위상까지 다방면에서 고찰한 박희병[13], 「崔陟傳」에 나타난 애정담과 전쟁담을 연구한 박태상,[14] 「崔陟傳」이 가지고 있는 '포로소설'적 특징을 인간 존재의 양상과 결부하여 분석한 김진규,[15] 16-7세기 동아시아 전란을 다룬 애정전기 소설의 하나로서 연구한 정환국[16]을 거쳐 2002년에는 장경남이 실기의 소설적 수용양상과 관련하여 연구했고,[17] 2008년에는 장경남과 권혁래가 각각 포로체험 문학으로서 「崔陟傳」에 나타난 가족애와 「崔陟傳」에 그려진 유랑의 의미를 밝히는[18] 등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崔陟傳」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포로소설, 애정소설, 불교소설로 보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19]

---

11) 민영대, 「崔陟傳 硏究」, 『한남어문학』13, 한남어문학회, 1987, 305~335쪽.
____ , 「催陟傳의 作者, 玄谷 趙緯韓論」 『한남어문학』15, 한남어문학회, 1989, 23~46쪽.
____ , 「催陟傳과 紅挑傳의 對比」, 『한남어문학』16, 한남어문학회, 1990, 27~59쪽.

12) 박일용, 「장르론적 관점에서 본 崔陟傳의 특징과 소설사적 위상」, 『고전문학연구』5, 고전문학연구회, 1990, 73~102쪽.

13) 박희병, 「崔陟傳 - 16, 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이산」, 『한국고전소설작품론』, 集文堂, 1990, 83~106쪽.

14) 박태상, 「<崔陟傳>에 나타난 애정담과 전쟁담 연구」, 『조선조 애정소설 연구』, 태학사, 1996, 297~352쪽..

15) 김진규, 「임란 포로 소설 연구 - 崔陟傳을 중심으로」, 『새얼어문논집』11, 새얼어문학회, 1998, 335~362쪽.

16) 정환국, 「16~7세기 동아시아 전란과 愛情傳奇」, 『민족문학사연구』15, 민족문학사학회, 1999, 38~65쪽.

17) 장경남, 「임진왜란 실기의 소설적 수용 양상 연구」, 『국어국문학』131, 국어국문하회, 2002, 373~402쪽.

18) 장경남, 「임진왜란기 포로 체험 문학과 가족애」, 『한국문화연구』1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7~34쪽.
권혁래, 「<崔陟傳>에 그려진 '유랑'의 의미」, 『국어국문학』150, 국어국문학회, 2008, 207~235쪽.

19) 김기동, 「불교소설 崔陟傳 소고」, 『불교학보』11,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74, 177~190쪽.

이런 연구 결과는 소설 「崔陟傳」의 장르를 보다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필자는 「崔陟傳」이 이처럼 다양한 장르적 특성을 가지게 된 원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崔陟傳」의 초반은 최척과 옥영의 애정결연 서사로 한편의 애정소설로 보기에 충분하지만,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주인공들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국외 체험을 하게 된다. 「崔陟傳」의 주제를 전쟁으로 인한 당대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이라고 볼 때, 후반부의 내용은 임진왜란 당시 백성들이 겪을 수 있는 전쟁의 모습과 전쟁으로 인한 국외 체험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필자는 「崔陟傳」의 다양한 모습과 국외 체험과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傳에도 임진왜란 국외 체험을 담은 작품이 있다. 임진왜란 이후 입전 인물은 신분에 관계없이 효자·열녀·신선 등으로 다양해졌고, 전의 형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특히 임진왜란 국외 체험이 담긴 작품은 전의 일반적 특성인 인물의 褒貶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주인공이 포로생활시 겪은 기이한 일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했다. 특히 「趙完璧傳」은 주인공 趙完璧이 포로의 신분임에도 일본인 주인과 계약을 하고 安南에 다녀온 일과, 安南 사람들에게 李睟光(1563~1629)의 시가 널리 읽히고 있단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받았다. 그 텍스트는 이수광의 『芝峯集』, 安鼎福(1712~1791)의 『木川縣志』, 鄭士信(1558~1619)의 『梅窓集』에 각각 수록되어있다. 「趙完璧傳」은 주목받은 것에 비해 개별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趙完璧傳」은 조완벽이 경험한 이국의 풍물에 작품의 서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언급한 연구는 있으나[20], 작품의 문학적 성격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권혁래의 연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권혁래는 「趙完璧傳」의 선행연구가 安南 견문에 관한 내용에만 관심을 두었으며, 각 연구자들 마다 대상으로 한 텍스트가 일정하지 않았고, 텍스트의 대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趙完璧傳」 텍스트의 이본과 내용을 대비하여 분석 한 후 문학적 의미를 고찰 하였다.[21] 필자는 권혁래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趙完璧傳」의 문학적인 특징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으로 임진왜란의 역사적 성격과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을 다룬 서사문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실기 분야에서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을 다룬 작품은 작자가 포로생활시 작성한 포로 실기로 선행연구는 대개 실기의 문학적 측면을 밝

20) 이채연, 『壬辰倭亂 捕虜實記 硏究』, 박이정, 1995, 163~166쪽.
21) 권혁래, 「<趙完璧傳> 의 텍스트와 문학적 의미 연구」, 『어문학』100, 한국어문학회, 2008, 205~234쪽.

히는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개별 작품에 대한 검토는 미진한 편이었다. 소설에서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이 드러난 작품은 「崔陟傳」 한 작품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된 작품이지만 주인공들의 국외 체험이 작품에 끼친 영향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크게 언급되지 않았다. 傳에서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을 다룬 작품인 「趙完璧傳」은 기존의 전에 비해 주인공의 해외체험이 부각되었다는 작품의 특징은 언급되었으나 「趙完璧傳」을 문학적으로 접근한 개별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이라는 공통된 분모와 서사문학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이라는 특수한 경험이 작품에 반영되어 나타난 작품의 특징을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유사한 연구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전후 작품을 대상으로 포로 모티프의 서사적 전개양상을 연구한 김진규의 연구가 있다.[22] 이 연구는 포로 모티프가 작품에서 주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서사의 핵이라는 기준아래 포로 모티프의 서사적 전개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폈다. 그러나 「崔陟傳」의 경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어 포로소설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작품 선정 기준을 주인공의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이 담긴 서사문학으로 넓히고, 국외 체험으로 인해 드러나는 작품의 특수성과 각 장르별 나타난 특색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을 다룬 서사문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서사문학을 택한 이유는 연구목적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서사문학이라는 특성이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의 내용을 자세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을 다룬 서사문학인 실기문학·소설·전을 대상으로 장르별 대표작을 선정하여 비교의 방법을 통해 국외 체험으로 인해 드러난 특징을 밝힐 것이다. 서로 다른 장르의 비교는 각각의 작품이 서로 비교 대상으로서 적합한가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본 연구를 통해 밝히려는 것은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이 서사문학에 끼친 영향이다. 국외 체험의 요소는 서사문학 내에서도 실기문학이나 소설·전

22) 김진규, 「포로 모티프의 서사적 전개양상」, 『새얼어문논집』14, 새얼어문학회, 2001, 251~281쪽.

으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필자의 연구목적에 의거해 생각해 볼 때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을 다룬 서사문학인 실기와 소설·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각각의 장르는 사실과 허구의 구분이 아닌 서사문학내에서 다른 서술방식을 가진 분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장르를 대상으로 살폈을 때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이 서사문학에 끼친 영향이 잘 드러날 것이다.

장르별 대상 작품의 선정에 있어서는 주인공의 행로가 서로 유사한 것을 택할 것이다. 국외 체험이라는 공통분모에서 나아가 그 체험 경로가 서로 비슷한 주인공들의 경험이 장르별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살펴 볼 때 각 작품이 국외 체험으로 인해 드러난 특징은 좀 더 뚜렷해 질 것이다.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과 관련된 한문소설은 「崔陟傳」·「周生傳」·「韋敬天傳」으로 총 세편이다. 그러나 연구목적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세 작품 중 국외 체험이 작품 전반적으로 서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작품은 「崔陟傳」 뿐이다. 「周生傳」과 「韋敬天傳」에 표현된 주인공의 국외 체험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중국인인 주인공이 조선으로 오게 되었다는 상황만 정보 형태로 언급될 뿐이다. 또 국외 체험 이후 주인공에게 벌어지는 상황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고 작품이 마무리된다. 그러므로 두 작품의 경우 국외 체험 자체가 서사에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다.

그러나 「崔陟傳」의 경우 초반부에 최척과 옥영의 애정결연 서사 이후 임진왜란으로 인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주인공의 국외 체험이 시작된다. 작품 후반부는 최척이 겪은 중국에서의 국외 체험과 옥영이 겪은 일본과 중국에서의 국외 체험을 토대로 서사가 진행된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남녀 주인공이 재회하게 되는 安南에까지 작품에 등장하는 세 나라는 실제 임진왜란과 관련된 나라이며, 그 경로 또한 사실적이다. 또 남녀 주인공과 주변인물의 국외 체험은 작품 전반에 걸쳐 그려지면서 그 시대 전쟁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崔陟傳」을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이 담긴 한문 소설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소설 중 논의에 적합한 작품이 「崔陟傳」 한 작품이기에 실기와 전은 주인공의 행로가 「崔陟傳」 남녀 주인공의 행로와 비슷한 것으로 선정할 것이다.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 실기로 분류되는 작품은 총 다섯 편으로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던 姜沆의 『看羊錄』, 魯認의 『錦溪日記』, 鄭希得의 『月峯海上錄』과 鄭慶得(1569~1630)의 『萬死錄』, 鄭好仁(1597~?)의 『丁酉避亂記』가 있다. 이 작품 중 「崔陟傳」의 행로와 유사한 작품은 魯認의 『錦溪日記』이다. 魯認은 정유재란 때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 중국으로 탈출해 귀국했는데 『錦溪日記』는 그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錦溪日記』는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을 기록한 실기 중 유일하게 중국에 관한 기록이 있어 「崔陟傳」과 비슷한 행로를 지니고 있다. 작품 앞뒤에 손실된 부분이 있으나 그 내용은 『錦溪集』으로 보완 가능하다. 또 현재 작품으로도 Ⅲ장·Ⅳ장에서 다룰 작품의 장르외적 특징이랄지 서술 방식을 살피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실기문학의 대상 작품으로 『錦溪日記』를 선정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임진왜란으로 인한 국외 체험을 담은 전은 「趙完璧傳」·「辛起金傳」·「白義士傳」·「東萊嫗」가 있다. 전에서도 실기의 작품선정과 마찬가지로 「崔陟傳」과 비슷한 행로의 작품을 선정하되, 국외 체험의 서사가 작품에 지배적으로 드러난 것을 선정하려고 한다. 각각의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辛起金傳」은 신기금의 굴하지 않는 의지와 애국심이 형상화 되었고, 「白義士傳」 역시 결연하고 의로운 기상을 선양하는 작품이다.

「東萊嫗」의 경우 장경남이 「임진왜란기 포로 체험 문학과 가족애」에서 언급한 적 있다. 장경남은 임진왜란 포로 체험을 다룬 전이 입전인물의 기이한 체험을 전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東萊嫗」를 소개하면서 「東萊嫗」는 노파의 기이한 행적 서술을 표면으로 내세웠지만, 작자는 노파의 효성을 예사로 보지 않았기에 입전한 것이라 하였다.[23] 이 점은 결국 「東萊嫗」는 인물의 기이한 체험을 전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라기보다 궁극적으로는 노파의 지극한 효성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는 의미로 보인다.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과 관련된 전을 살펴본 결과, 「趙完璧傳」 이외의 작품들은 대개 전의 기본 목적인 인물의 포폄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인물의 국외 체험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비해 「趙完璧傳」은 입전인물인 조완벽의 여정이 「崔陟傳」의 여주인공인 옥영의 행로와 비슷하다고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또 일반적인 전과 달리 조완벽의 국외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문학성에 대한 개별연구는 미미한 작품이다. 이에 「趙完璧傳」을 대상 작품으로 선정하기로 한다.

위의 세 작품을 대상으로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이 서사문학 장르에 끼친 영향과 그 특성을 밝히기 위해 먼저 작품의 내용을 살펴 볼 것이다. 각 작품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작품에 나타난 국외 체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Ⅱ장에서는 주인공의 국외 체험 여정을 따라 작품의 서사구조를 면밀히 살펴 작품의 체재와 작품 속 국외 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인공의 국외 체험을 살피는

23) 장경남, 「임진왜란기 포로 체험 문학과 가족애」, 『한국문화연구』14, 한국문화연구원, 2008, 13~14쪽 참조.

Ⅱ장의 작업은 Ⅲ장과 Ⅳ장을 위한 선행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장르의 일반적 특성과 작품의 관계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Ⅲ장의 1절에서는 실기문학과 『錦溪日記』에 대해 다룰 것이다. 먼저 실기문학의 일반적 특징을 살피면서 『錦溪日記』에 보이는 실기문학 일반의 특징을 함께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같은 장르내의 다른 작품에 비해 『錦溪日記』만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이런 방식으로 Ⅲ장의 2절에서는 전기소설의 일반적 특징과 「崔陟傳」이 가진 특징을, 3절에서는 傳의 일반적 특징과 「趙完璧傳」이 가진 특징을 살펴 볼 것이다. 이로써 각 작품이 지닌 일반적 특징과 함께 장르 내의 다른 작품과는 차별되는 작품의 특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Ⅳ장에서는 서술방식을 비교할 것이다. 서술방식을 비교하게 됨으로써 각 장르별 특색을 좀 더 드러냄과 동시에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을 담은 서사문학만의 특색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서술방식의 비교 기준은 시점·시간을 택하였다. 실기문학의 경우 기록하는 작자와 체험자가 동일하지만, 소설이나 전의 경우에는 제3자인 작자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입장이다. 이런 차이는 작품의 시점과 시간을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서술방식 비교에 있어 위의 요소로 비교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품을 살펴보았을 때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이 각 장르별로 어떻게 표현되었으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Ⅱ. 작품 구성

이 장에서는 주인공의 국외 체험 여정을 따라가며 작품에 기록된 국외 체험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세 작품 모두 장르 내 다른 작품의 국외 체험에 비해 독특한 행로를 경험했으며, 그 경험을 세세히 기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錦溪日記』의 魯認은 일본에서 쇄환사를 통해 귀국한 다른 포로 실기의 작자와 달리 일본에서 중국을 경유해 귀국했다. 그렇기에 『錦溪日記』에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일이나, 중국에서의 경험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崔陟傳」은 비슷한 시대에 창작되었으며 임진왜란이 언급된 「周生傳」이나 「韋敬天傳」에 비교해 볼 때 남녀 주인공의 국외 체험여정을 따라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전쟁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趙完璧傳」은 일본에 포로로 끌려간 조완벽이 일본 주인을 따라 安南으로 가면서 겪은 일을 기록하면서 조완벽이 겪은 여정에 주목한 작품이다. 이 장에서 세 작품 속 주인공이 겪은 여정을 세세히 살펴보려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세 작품에 보이는 비슷한 국외 체험의 면모가 좀 더 선명히 드러날 것이며, 주인공의 성격과 같은 작품의 특징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장은 Ⅲ장과 Ⅳ장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1. 탈출에서 귀국까지의 여정 - 『錦溪日記』

『錦溪日記』의 작자는 魯認(1566~1622)으로 본관은 咸豊이고 호는 錦溪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모집하여 權慄의 막하에 들어가 珍山의 梨峴, 행주 등에서 승리하여 전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 남원성이 함락되자 적정을 살피던 중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 1599년 3월 17일 명나라로 탈출한 뒤 귀국하여 1600년 정월에 서울로 돌아왔다. 『錦溪日記』는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 명나라를 거쳐 귀국한 과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錦溪日記』의 앞뒤 부분은 亡失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錦溪集』을 통해 짐작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錦溪日記』에 실려 있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錦溪集』을 참고 하려한다. 현존하는 『錦溪日記』에 기록된 이동 경로는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탈출과 중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크게 둘로 나누고 있다. 이것을 내용상으로 구분하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錦溪日記』 내용의 분류는 김진규의 분류를 참조하려 하는데, 이 분류가 魯認의 여정과 더불어 사건을 겪으며 느낀 작자의 감정까지 고려하여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이 분류를 따라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錦溪日記』의 사실적인 부분과 더불어 문학적인 면을 함께 살펴보려 한다.

그 전에 『錦溪日記』를 날짜별로 살펴보면 1599년(선조 32) 2월 21일의 앞부분이 끊어진 채 시작되고, 6월 27일 또한 뒷부분이 끊어진 채 전하여, 현존하는 일기에 수록된 기간은 4개월 7일간의 기록이다. 2월은 21일 앞부분이 끊어진 채 시작해서 29일까지 쓰여 있고, 3월은 20일이 없고 21일과 22일이 같이 쓰여 있다. 4월은 18일이 없이 19일을 쓰고 다시 20일이 없이 21일과 22일을 썼고, 22일 뒤에 18·19·20·22일을 기록했다. 그 중 19일은 22일전 19일의 날씨와 후에 19일의 날씨가 맞지 않으며, 20일은 22일 뒤에 두 개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날씨가 맞지 않다. 그러나 4월의 이런 기록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어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5월은 7·8·9일이 함께 있고, 6월은 11·12·13일, 16·17일, 21·22일, 26·27일이 함께 있다.[24]

날짜별로 『錦溪日記』를 살펴 본 결과 작자인 魯認은 일기를 거의 매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럴 수 있던 이유는 비록 전쟁 포로로 잡혀간 몸이었지만 일본이나 중국인들로부터 학식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魯認은 다른 포로에 비해 육체적 노동을 겪지 않고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매일 매일의 성실한 기록은 자신이 겪은 일을 최대한 기록하겠다는 작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전쟁의 참상과 국외 체험에 관한 꼼꼼한 기록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일매일 기록한 일기라는 형식으로 인해 전체적인 서사진행에 있어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기록한 경우가 있어 서사문학의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 진행이 느리게 느껴지기도 한다.

『錦溪日記』의 내용을 네 단락으로 나누면 첫 번째(2월 22일~3월 17일)는 일본을 탈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며 바쁘게 움직이는 부분, 두 번째(3월 18일~3월 28일)는 명나라에 도착하기까지 배에서의 여정과 감정 그리고 漳州 경비 장관의 심문을 받는 부분, 세 번째(3월 29일~5월 11일)는 본격적으로 중국에서의 여정으로 楊坐營과 중국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문사적 우월감과 고국의 귀환 의지가 복합적으로 교차되는 부분, 네 번째(5월 12일~6월 27일)는 중국의 수재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兩賢祠의 강학에 참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 兩賢祠에 기거하면서도 고국에 대한

24) 김진규, 「임란 포로 일기 연구 - 錦溪日記를 중심으로」, 『새얼어문논집』10, 새얼어문학회, 1997, 100쪽 참조.

귀환 의지가 더 극대화되는 부분이다.[25]

일본에서 탈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첫 번째 부분(2월 22일~3월 17일)은 긴박한 상황인 만큼 긴장감이 감도며 魯認의 기묘한 계획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중국으로의 탈출을 도운 사람 중 한명인 陳屛山은 魯認에게 글 쓰는 것을 금지하며 매양 남이 알까 두려워하였는데,[26] 이는 1598년(선조 31)에 당나라 배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몰래 조선 사람을 중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 일본인이 기미를 알아채고 배를 수색하여 조선 사람 3명 중 한명을 죽인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27] 또 이 이야기를 나눈 바로 다음날 石蔓子의 둘째아들 義弘이 중국배로 찾아오는 일이 있어 陳屛山은 倭將이 배를 수색하여 魯認을 배에 실은 것을 들켜서 곤욕을 치를까 두려워 魯認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주저했다. 이에 魯認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奇孝淳등 3명과 함께 일을 도모했다.[28] 그 계획은 魯認과 孝淳등이 밤에 몰래 배를 타고 먼저 10리쯤에 있는 작은 섬으로 나가면 陳屛山의 배는 왜놈의 수색을 받고 출발하여 魯認의 배가 길의 중간으로 陳屛山의 배를 마중 나가 옮겨 타는 것이었다.[29]

또 이 계획이 어긋날 경우를 대비하여 만약 중국 배와 어긋난다면 그대로 순풍을 타고 전라도의 물이 없는 要處로 향할 것을 계획하였다.[30] 魯認은 자신이 중국말을 잘하고 또 글로 쓰는 것도 잘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탈출하기만 하면 귀국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더불어 일본에 있는 조선의 포로들도 거의 쇄환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31] 마침내 3월 17일 魯認과 孝淳 등의 일행은 거룻배를 타고 일본을 탈출하였으며, 陳屛山의 배를 타는데 성공하게 되는데, 이는 魯認의 기묘한

---

25) 김진규, 「임란 포로 일기 연구 - 錦溪日記를 중심으로」, 『새얼어문논집』10, 새얼어문학회, 1997, 100쪽 참조.

26) "屛山禁止寫字, 每恐爲人所知."(『錦溪日記』 3월 6일, 魯錫侹 소장 草稿本에 의한 한국고전번역원의 正寫本; 한국고전번역원, 『국역 해행총재』9, 한국고전번역원, 1989)

27) "上年唐船回棹時, 潛待朝鮮人, 帶向大明, 倭奴知機, 搜覓船中□□朝鮮人三名, 而一名則□村, 倭家所養人, 故卽斬之, 二名則他□自來人, 故不斬□□而唐人帶去□則倭奴困辱云云."(『錦溪日記』 3월 7일, 이하 □ 표시는 원문 판독이 안되는 글자임)

28) "則一曰興陽居正兵奇孝淳, 一曰密陽□□鄭東之, 一曰京畿□□□□皆俘於壬辰, 轉轉□入於此島者, 于今三載."(『錦溪日記』 3월 10일)

29) "余曰: '夜潛乘小艇, 先出十里許小島, 以待倭奴搜船入□□□□我□□□□入海之際, 我迎出中路, 追乘貴船□□□□…'"(『錦溪日記』 3월 12일)

30) "倘或唐船巧違, 則因乘順風, 直向全羅無水之要處, 第一長計."(『錦溪日記』 3월 14일)

31) "我答曰: '□□□□□則我能漢語, 又能文書, 得見地方官, 書示吾等來歷□□□倭賊情勢, 地方官□必聞于布政司, 因護送北京矣. 如達北京, 則非但壯觀天下, 順歸朝鮮, 必仰叫天閽, 細達日本事情, 朝鮮俘民, 庶幾刷還, 而中外靑史, 留我芳名, 乘此唐船, 不其萬全乎.'"(『錦溪日記』 3월 13일)

계획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쉽지 않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대범함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魯認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하다."[32]고 말하며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한걸음 더 다가간 기쁨을 표현하였다.

두 번째 부분(3월 18일~3월 28일)은 명나라로 가는 배에서 겪은 일과 감정 그리고 漳州 경비 장관의 심문을 받는 부분으로 분량은 짧다. 하지만 이 부분의 기록인 항해에 영향을 주는 바람이나 비와 같은 날씨에 의한 여정의 위태로움(3월 21·22일)[33], 배의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3월 23일), 멀미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3월 24일), 큰 고래를 만나 중국에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된 기쁨(3월 25일) 등에 정감을 표현한 詩(3월 23·25일)가 첨가되어 독자에게 지은이와 같은 체험을 하는 듯한 동질감을 느끼게 하며, 문학적 감동을 준다.[34] 특히 25일의 시는 林差官[35]이 보고 "글귀를 만드는 법이 깨끗하고 기묘하다."며 칭찬하여 뱃사람이 모두 보기도 하였다.[36] 3월 28일, 드디어 명나라에 도착하여 장관의 심문을 받게 된다. 이 날 일기에는 魯認이 장관에게 일본의 사정을 붓으로 대략 진술하였으며, 魯認이 지은 絶句 두 수를 장관이 읊고 감탄하였다고 하였다. 이 날 일기를 통해 『錦溪日記』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魯認 또한 다른 포로 실기의 작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정세를 살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부분(3월 29일~5월 11일)은 본격적으로 중국에서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다. 魯認은 중국에서 楊坐營과 중국인들의 호의를 받게 되는데 이로써 문사적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37] 중국인들은 魯認이 있는 관사로 모여 글씨나 시를 요구하거나, 관상을 봐달라고 하며 술·과실·종이·먹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명함을 바치는 자도 많았다고 한다.[38] 그 내용은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중국인들은 일본에서 건너온 조선의 글 잘하는 관리에게 조선의 風敎와 일본의 실정을 듣고 싶어 하였다.

---

32) "我曰: '喜氣塡胸, 不食如飽.'"(『錦溪日記』 3월 17일)
33) 이하 괄호 속에 해당 날짜를 명시한다.
34) 김진규, 「임란 포로 일기 연구 - 錦溪日記를 중심으로」, 『새얼어문논집』10, 새얼어문학회, 1997, 100쪽 참조.
35) 명나라 사신으로 탈출을 도운 陳屛山과 李源瀅은 이 사람을 따라 온 것이다.
36)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我遂作一絶, 林差官來見曰: '句法淸妙矣.' 一舟皆見, 海波成雪長鯨噴, □□中華知不遠, 金柱撑空落照斜, 舟人乘興動淸笳."(『錦溪日記』 3월 25일)
37) 김진규, 「임란 포로 일기 연구 - 錦溪日記를 중심으로」, 『새얼어문논집』10, 새얼어문학회, 1997, 100쪽 참조.
38) "衙門書字門子輩, 皆會我館, 或要字或要詩看像, 持壺果紙墨者多矣, 納拜帖者亦多矣."(『錦溪日記』 3월 30일)

이 중 4월 4일의 일기에는 海防官과의 문답 중 秀吉의 죽음과 조선에서 중국 장수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3월 28일의 기록에 비해 일본의 정세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조금 더 기록되어 있다. 일본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錦溪集』 권6에 「倭俗錄」·「倭地圖」·「倭國地圖」로 남아있어 확인 가능하다. 그 외에도 魯認은 이 기간에 중국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과의 문답이나 遊覽을 통해 砂糖草(4월 8일), 軍門의 풍경(4월 11일), 공작(4월 21일), 주색을 좋아하는 귀객과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 모두 모인다는 平遠臺와 물소(4월 22일), 중국의 단오 풍습(5월 1일), 城의 濠地(5월 2일)등 중국의 풍물과 풍습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기록과 더불어 귀국하기를 재촉하는 글이 여러 편 기록되어 있으며(4월 14·22·26일, 5월 9일)[39], 감찰어사와의 만남에서도 "호랑이 아가리에서 벗어났으나 죽기 전에 고국에 돌아가 부모의 백골을 거두고 싶다며 특별히 차관을 명하여 빨리 보내주기를 간청하는"[40] 등 魯認의 강한 고국 귀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5월 12일~6월 27일) 부분은 魯認이 중국의 수재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兩賢祠의 講學에 참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 兩賢祠의 관소에 기거하면서 29인의 수재들과 교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魯認은 수재들의 물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도를 소개하고(5월 13일, 6월 1일), 중국의 제도에 대해 청해 들었으며(6월 2·11·12·13·14·18일), 『大學』이나 『心經』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였다.(5월 21·23·26일, 6월 3일) 또 5월 25일의 일기에는 講會에 참석하였던 일을 기록하며 강학의 절차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네 번째 부분은 중국의 수재들이 강학하는 兩賢祠에서의 일인 만큼 『錦溪日記』의 내용 중 중국의 제도나 풍습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특히 6월 10일에는 烏石山 제일봉에 올랐는데, 그곳의 작은 암자인 一斗庵에서 만난 도승과의 문답을 상세히 기록하며 "오늘에 비

---

39) 선행 연구에서는 '催歸文'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해 催歸文은 4월 14일 하루만 등장한다고 이야기했다.(이채연, 『壬辰倭亂 捕虜實記 硏究』, 박이정, 1995, 208쪽) 그러나 催歸文은 '귀국을 재촉하는 글'로 4월 14일 이후에도 같은 의도의 글은 여러 편 기록되어 있기에 날짜를 더 기록하는 바이다. 표기한 날짜는 순수하게 귀국을 재촉하는 의도만으로 쓴 글을 수록한 날의 날짜이다. 이외에도 사례하는 의미로 쓴 글 등에도 귀국을 재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외했다.

40) "我又示曰: '只脫虎口, 雖死, 不葬蠻, 而當爲中國之鬼, 此則多幸, 但日夜泉泣者, 倭賊雖退遁, 前頭亦多應變事, 玆以賊情, 欲達天朝, 而速回故國, 預備復讎之策也. 況丁酉秋, 父母兄弟妻子並二十餘骨肉, 皆死賊鋒, 而某獨俘去, 號天叩地, 魂喪如狂呼呼嘔血, 絶而復甦, 只願未死之前, 欲回故國, 尋見亡親白骨於草伏處, 收掩餘骸於先塋之下也. 伏願以堂堂鐵面之威, 特命差官, 速速回送.'" (『錦溪日記』 4월 20일)

로소 진인을 만났다."며 시를 짓기도 했다.[41]

5월 12일~6월 27일은 주로 중국의 제도나 공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고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마음이 극대화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5월 16일 魯認은 匡嶽宗師에게서 초가을에 고국으로 돌아 갈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42], 다음날 지은 두 수의 절구에는 고국 귀환에 대한 애달픈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 난리 통에 헤어져 죽지 못한 신하는,
> 살아 돌아가니 인륜에 죄 얻을까 두렵네.
> 범전단의 돛대요 소무의 뜻이니,
> 나라를 생각하는 일편단심만은 귀신에게도 비추었네.
> 또
> 울음소리 삼키며 날마다 슬피 울지 않는 날이 없어,
> 돌아가는 꿈은 길이 금리계에 수고로워라.
> 골육 중에 누가 살고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
> 애달픈 원한은 항상 낙조 질 때 더하구나."[43]

이 외에도 고국 귀환에 대한 절실한 심정은 일기 곳곳에 기록되어있다. 兩賢祠에서 魯認은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여 의원의 치료를 받은 적 있다.(6월 4~6일) 초가을에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상황에서 몸이 아프게 되었으니 혹시 병으로 인해 고국에 돌아가는데 지장이 있을 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감정은 6월 5일 일기에 고스란히 나타나있는데, 부기가 여전한 다리를 보고 魯認은 "겁나는 마음이 더욱 더해서 눈물이 났다."[44]라고 하였다. 그리고 의원의 치료를 받고 다리가 낫자 "미친 듯이 기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45]고 기록하고 있다. 또 의관을 불러 치료를 받게 해준 徐宗師에게 올리

41)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一斗庵中坐, 此林何處是. 休粮三十春, 今日始逢眞."(『錦溪日記』 6월 10일)
42) "匡嶽曰: '昨日已通而又通坐營司, 儞須安心參講, 只待初秋回送之期.'"(『錦溪日記』 5월 16일)
43) "亂日流離未死臣, 生還恐得罪人倫. 范仝但楫蘇卿志, 戀國丹誠照鬼神. 又 呑聲無日不悲啼, 歸夢長勞錦里溪. 未知骨肉誰存歿, 哀恨常增落照西."(『錦溪日記』 5월 17일; 한국고전번역원, 『국역 해행총재』9, 한국고전번역원, 1989. 이하 『錦溪日記』의 인용은 모두 『국역 해행총재』9, 한국고전번역원, 1989.의 번역을 인용함)
44) "浮氣如前, 惕心倍劇, 淚自漣漣."(『錦溪日記』 6월 5일)
45) "私喜如狂, 歸心倍切."(『錦溪日記』 6월 6일)

는 사례의 글에는 병을 낫게 해주어 감사하다는 말과 더불어 이 같은 병은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애통함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6월 7일)

이상으로 『錦溪日記』를 4개의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분량상으로는 중국의 풍습과 제도 등 사실적인 기록이 많으나 일기 곳곳에서 주인공의 절실한 고국 귀환의지를 찾아 볼 수 있었다. 또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탈출이나 중국에서 겪은 일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면서도 주인공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 독자로 하여금 체험의 동질감을 느끼게 하였다. 『錦溪日記』는 일기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고국 귀환 의지를 담은 시나 글은 독자로 하여금 문학적 감동을 느끼게 하여 작품의 문학적 측면 또한 보여주고 있다.

2. 전쟁으로 인한 이별과 재회의 반복 - 「崔陟傳」

「崔陟傳」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주인공인 최척과 옥영의 애정 문제와 전쟁으로 인한 일가족의 고난과 역경을 그려낸 작품이다. 작자는 趙緯韓(1567~1649)이고 「崔陟傳」의 창작연대는 1621년(광해군 13)이다. 「崔陟傳」을 내용상으로 분류해 보면, 첫 번째 단락은 최척과 옥영의 애정결연, 두 번째는 정유재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 세 번째는 최척과 옥영의 安南에서의 재회, 네 번째는 병자호란으로 인한 재이산, 마지막으로 일가족 모두의 재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에 맞추어 「崔陟傳」의 내용을 살펴보되, 작품에 드러난 전쟁의 참상이나 국외 체험의 모습에 중점을 맞추려 한다.

「崔陟傳」의 초반부는 최척과 옥영의 사랑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두 사람의 결연과정에서 최척과 옥영의 성격이 잘 드러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최척과의 혼사를 반대하는 어머니를 설득하는 부분은 옥영의 적극성과 현명함이 드러난다. 그런데 어머니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옥영이 다음과 같이 말한 부분이 흥미롭다.

> 더욱이 제 처지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집에는 엄한 아버지가 안 계시고 도적 떼가 지척에 있으니, 진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우리 모녀의 몸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46]

46) "況今兒身, 異於他人, 家無嚴父, 賊在隣境, 苟非忠信之人, 何以仗母子之身乎?"(「崔陟傳」, 박희병 標點·校釋, 『한국한문소설교합구해』, 소명, 2005, 426쪽; 박희병·정길수 편역, 『전란의 소

이 부분은 전란으로 인해 지척에 도적 떼가 널려있는 시점에 아버지 또한 계시지 않는 옥영의 모녀가 몸을 의지 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직한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두 사람의 혼사장애를 극복할 수 있던 요인 중에 전란이라는 시대적 배경 또한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옥영의 노력으로 두 사람은 마침내 혼사를 약속하게 되는데, 최척이 戰場에 나가게 되면서 두 번째 혼사장애를 겪게 된다. 전란이라는 배경으로 인해 두 사람은 혼사를 약속 할 수 있었는데, 전란 때문에 다시 혼사 장애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장에 나간 최척이 혼사를 약속한 날에도 돌아오지 못하자 鄭上舍와 옥영의 어머니는 부유한 집의 자제인 梁生과 옥영을 혼인시키고자 한다. 이 부분은 작품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익을 좇아 변해가는 그 시대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47] 옥영은 어머니가 梁生과 혼사를 추진하는 사실을 알고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들은 최척 또한 시름시름 앓던 병이 더 깊어지고 최척의 사연을 알게 된 의병장이 최척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옥영과 최척은 혼례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한편의 애정소설이 되기에 충분하다. 최척과 옥영은 혼인한 뒤로 하는 일 마다 잘되었고, 서로를 "知音이라 여기며"[48] 아끼고 사랑한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소설이 끝나게 된다면 작품의 주제는 여느 애정소설과 같이 현실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최척과 옥영의 굳건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유재란으로 인해 부부는 또 다시 이별을 겪게 된다. 이번 이별은 가족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며 최척과 옥영의 혼사 장애 역할을 했던 첫 번째 이별보다 전쟁의 참상이 더 선명히 묘사된다.

두 번째 단락은 정유재란이 발발하여 남원이 함락되고 최척의 가족 역시 지리산 燕谷으로 피신하며 시작된다. 두 번째 단락은 전쟁의 참상을 사실적이고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척이 젊은 남자 두어 사람과 양식을 구하러 산을 내려간

용돌이 속에서』, 2007.의 번역을 인용함. 이하 「崔陟傳」의 인용은 모두 박희병·정길수 편역,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2007.의 번역을 인용함)

47) 박희병, 「崔陟傳 - 16, 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이산」, 김진세 編, 『한국고전소설작품론』, 集文堂, 1990, 87쪽 참조.

48) "夫婦自謂知音, 未嘗一日相離也."(「崔陟傳」, 430쪽)

사이 왜적은 燕谷을 노략질 했다. 최척은 사흘 뒤에야 燕谷에 돌아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왜적의 노략질로 인해 燕谷은 "시체가 쌓여 길에 널브러져 있고 흐르는 피가 강을 이루고 있었으며, 최척이 가까이 가 보니 온몸에 상처를 입은 노인과 어린애 몇 사람이 있었다."[49]고 하였다. 왜적들은 노인과 어린애는 남겨두고 젊은이들만 포로로 잡아 간 것이다. 피범벅된 사람들 사이에서 최척은 옥영의 여종 春生을 만나 가족 모두 적병에게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결하려 한다. 그러나 옆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에 자살하지 못하고 마침 남원성에 왔던 명나라 장수 余有文에게 자신의 사연을 말하여 함께 명나라로 가게 된다.

이 때 옥영은 頓于라는 왜적에게 잡혀 있었는데, 명민한 옥영이 마음에 든 頓于는 혹시라도 옥영이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옥영의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다. 옥영은 몇 번이나 자결하려 했지만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느 날은 꿈에 丈六佛이 나타나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니 죽어서는 안 된다"[50]고 하여 마음을 고쳐먹고 목숨을 부지했다. 옥영은 처음 피란시 "최척이 옥영에게 남자 옷을 입혔으므로"[51] 정절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옥영이 頓于의 밑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앞서 언급했듯이 頓于가 영민한 옥영이 마음에 들어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것도 있지만, 頓于의 성격 묘사에서 드러난다. "頓于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 또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52]한 사람이었다.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는 주인에게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頓于의 성격이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로 묘사되고 거기에 頓于가 옥영의 영민함을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하였으니 포로 옥영의 신변은 보장 된 것이다. 옥영은 頓于와 함께 장사를 하러 중국의 복건성과 浙江성 일대를 돌아다니게 된다.

세 번째 단락은 최척과 옥영이 4년 만에 安南에서 재회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작품 전체 중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다. 최척과 옥영은 각각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열흘 넘게 이 포구에 머물러 있었는데, 4월 초이튿날 밤 최척은 자신의 신세를 퉁소소리로 풀어 보려했다. 건너편 배에서 익숙한 퉁소소리를 들은 옥영은 혹시 최척이 건너편 배에 있을까하는 마음에 예전 최척과 행복한 시절 읊었던 시를 읊조린다. 이 대목에서 옥영의 명민함이 드러나는데, 남편의 퉁소소리에 답했던 남

49) "則但見積屍遍橫, 流血成川…陟就訪之, 老弱數輩, 瘡痍遍身."(「崔陟傳」, 430~431쪽)
50) "愼無死! 後必有喜."(「崔陟傳」, 433쪽)
51) "陟令玉英着男服."(「崔陟傳」, 430쪽)
52) "頓于老倭卒, 不殺生, 慈悲念佛. 以商販爲業, 習御舟楫."(「崔陟傳」, 432쪽)

편과 자신만 알고 있는 시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린 것이다. 이 시는 앞서 최척과 옥영의 애정결연 부분에서 제시되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왕자교 퉁소 불 제 달은 나지막하고
>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 봉래산 안개 속에서도 길 잃지 않으리.[53]

시의 내용은 옥영과 최척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 때의 安南 풍경과 비슷하여 옥영의 시는 일종의 伏線임을 알 수 있으며 더불어 작품을 더 극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최척과 옥영이 재회하는 부분 역시 작품의 문학성이 잘 드러난다.

> 최척과 옥영은 마주 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다하자 피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54]

두 사람이 느낀 재회의 기쁨이 나타난 부분인데, 최척과 옥영의 감정이 잘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재회한 부부는 宋佑의 집인 杭州에 정착하여 둘째아들 몽선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최척 부부는 夢仙이 장성하자 紅桃를 며느리로 맞이한다. 홍도는 중국인으로 부친인 陳偉慶은 전쟁으로 조선으로 가더니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이모 집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라인 조선에 꼭 한 번 가는 것이 소원이었던 홍도는 몽선이 아내를 구한다는 소식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사연을 들은 최척 부부는 홍도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다. 홍도의 사연은 임진왜란이 단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전쟁에 참전한 중국 민족에게도 고통을 가져다준 전쟁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또 이 부분은 홍도가 옥영과 같이 적극적인 여성상임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네 번째 단락은 병자호란으로 인해 최척의 가족이 또 다시 이산하게 되는 부분이다. 蘇州 출신인 吳世英은 일찍이 余有文을 통해 최척이 재주 많고 용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최척을 書記로 삼고 군중에 두었다. 그런데 명나라 장수가 후금의 군대를 얕본 탓에 최척이 속한 명나라 군대는 대패하게 된다. 누르하치는 명

---

53) "王子吹簫月欲低, 碧天如海露淒淒. 會須共御靑鸞去, 蓬島烟霞路不迷."(「崔陟傳」, 429・435쪽)
54) "二人相見, 驚呼抱持, 宛轉沙中, 聲絶氣塞, 口不能言, 淚盡繼血, 目無所覩."(「崔陟傳」, 436쪽)

나라 군사는 남김없이 죽였기 때문에 최척 또한 죽을 위기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누르하치가 "조선의 군사들은 한편으로 위협하고 한편으로 어르면서 단 한사람도 죽이지 않았기"[55] 때문에 최척은 혼란한 틈을 타 조선 군대 속에 숨어 들어가 홀로 죽음을 면했다.

최척은 다른 조선 병사들과 함께 후금 군대에 포로로 잡혔는데 여기서 장남인 夢釋과 재회하게 된다. 처음에 몽석과 최척은 서로를 의심했지만 차츰 친해지고 서로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그리하여 최척이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몽석에게 들려주자 몽석은 최척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몽석이 태어날 때부터 "등에 있던 아이 손바닥만 한 붉은 점"[56]은 몽석이 최척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만난 최척과 몽석의 사연을 들은 오랑캐 노인은 최척과 몽석이 탈출하도록 도와준다.

> 나도 본래는 삭주에서 병사로 있었다. 고을 부사의 가렴주구가 너무 괴로워 온 가족이 오랑캐 땅에 들어와 산 지 벌써 10년이다.……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내 비록 누르하치에게 질책을 받겠지만 어찌 너희들을 놓아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57]

오랑캐의 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희병은 이 부분은 작가가 최척에게 전해들은 대로 서술한 것인지, 아니면 작가가 임의적으로 끼워 넣은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최척과 몽석의 탈출을 서술하면서 없어도 될 말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疲兵行」이라는 시를 통해 "부사의 가렴주구가 너무 괴로워 온 가족이 오랑캐 땅에 들어왔다"는 오랑캐의 말이 실제 있었던 일임을 확인했다. 곧 삭주에서 병사로 있었던 오랑캐 노인의 말은 당대 역사 현실을 포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8]

이렇게 재회한 최척과 몽석은 조선으로 귀환한다. 그리고 이제 「崔陟傳」은 일가족 모두가 재회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간다. 이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옥영의 활약이다. 옥영이 최척을 찾아 배를 구해 조선을 향해오는 여정은

---

55) "誘脅朝鮮, 無一殺傷."(「崔陟傳」, 438~439쪽)
56) "背上有赤痣, 如小兒掌."(「崔陟傳」, 440쪽)
57) "我亦朔州土兵也. 以府使侵虐無厭, 不勝其苦, 擧家入胡, 已經十年.……今聞爾輩之言, 大是異事, 我雖得責於老酋, 安得忍心而不送乎?"(「崔陟傳」, 440쪽)
58) 박희병, 「崔陟傳 - 16, 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이산」, 김진세 編, 『한국고전소설작품론』, 集文堂, 1990, 92~93쪽 참조.

앞서 언급했던 옥영의 적극성과 명민함이 잘 드러난다. 杭州에 있던 옥영은 명나라 군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에 죽기로 작정했는데, 꿈에 丈六佛이 나타나 '이전과 같은 말'[59]을 한다. 옥영은 安南에서 기적적으로 최척을 만났던 일을 생각하며 조선으로 갈 결심을 한다. 옥영은 頓于의 배를 타고 장사했던 경험을 살려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옷을 만들고 날마다 몽선과 홍도에게 두 나라의 말을 가르쳤다."[60]

옥영은 조선을 향하는 길에 명나라 경비선과 일본 배를 만나는데 재빠르게 그 나라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 차를 팔러 간다거나 고기잡이 하러 나왔다 바람에 휘말렸다고 하여 재치 있게 대처하였다. 과연 옥영의 슬기로움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 후 옥영과 몽선 부부는 해적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무사히 조선에 도착해 가족 모두와 재회하게 된다. 일가족 모두의 재회에는 홍도와 홍도의 아버지인 陳偉慶의 재회도 포함된다. 陳偉慶은 앞서 최척과 몽석이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최척의 등에 난 종기를 치료해 주어 맺은 인연으로 최척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홍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최척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여 일가족 모두가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론으로 작품은 끝이 난다.

「崔陟傳」의 내용을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주인공의 국외 체험 여정과 더불어 작품 속 주인공의 성격 또한 알 수 있었다. 특히 옥영은 전쟁이라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강인한 의지와 슬기로 자신의 운명을 헤쳐나간 적극적인 여성상을 그리고 있다. 또 작품에 등장하는 국외 체험은 주인공 남녀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별뿐만 아니라 재회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崔陟傳」은 주인공의 국외 체험을 통해 전쟁의 상황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작품은 당대 민중들의 고통을 잘 드러내면서도 나아가 임진왜란은 우리 민족뿐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고통을 안겨다 준 전쟁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安南으로의 여정 - 「趙完璧傳」

「趙完璧傳」은 진주 선비 조완벽이 1597년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서 1607년 조정의 사절단에 의해 돌아 올 때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것으로 조완벽은 장장 10년 동안이나 포로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주로 인물의 褒

59) 이전 옥영의 꿈에서 丈六佛이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 한 것을 이른다.

60) "卽裁縫鮮、倭兩國服色, 日令子、婦敎習兩國譯音."(「崔陟傳」, 444쪽)

貶을 위해 쓰는 기존의 傳과 달리 「趙完璧傳」은 조완벽이 일본의 商船을 타고 장사 차 安南을 여행한 기록을 위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조완벽의 이야기는 여러 사람에 의해 立傳되었는데, 鄭士信(1558~1619)의 『梅窓先生集』, 李睟光(1563~1628)의 『芝峰先生集』, 安鼎福(1712~1791)의 『木川縣志』등에 실려 있다.

「趙完璧傳」의 이본에 관한 내용은 권혁래의 연구결과를 참조하고자 한다. 먼저 작품의 분량에 대해 살펴보면, 정사신의 『매창선생집』에 수록된 「趙完璧傳」은 1,125자, 이수광의 『지봉선생집』에 수록된 것은 주석을 포함하여 1,613자, 안정복의 『목천현지』에 수록된 것은 1,561자 가량의 분량이다. 이 중 안정복의 「趙完璧傳」은 이수광의 「趙完璧傳」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 쓴 것으로 파악된다. 이수광의 「趙完璧傳」은 정사신의 「趙完璧傳」보다 500자 가량 더 많고 당시 安南의 세태와 풍물에 관한 생생한 정보와 조완벽만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 점은 정사신의 「趙完璧傳」에서는 볼 수 없는 점이다.[61] 그러나 주인공의 국외 체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조완벽의 安南 항해 여정 등이 정사신의 「趙完璧傳」에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는 정사신의 「趙完璧傳」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조완벽의 여정을 살피고 필요에 따라 이수광의 「趙完璧傳」을 참조하기로 한다.

정사신의 「趙完璧傳」은 크게 네 개의 서사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은 조완벽이 정유재란 때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 일본 상인이었던 주인과 계약을 맺는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安南으로 향하는 항해 여정과 관련된 내용이고, 세 번째 단락은 조완벽이 安南에서 겪은 일에 대한 기록이고, 네 번째는 일본인 주인이 계약을 어겨 두 차례 安南을 더 다녀온 끝에 자유를 얻어 고국으로 돌아 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네 개의 서사단락을 중심으로 정사신의 「趙完璧傳」에 기록된 조완벽의 여정을 살펴 볼 것이다.

첫 번째 단락은 진주 선비 조완벽이 정유재란 때 일본에 끌려가 노비로 지내다 일본 상인이었던 주인이 安南과 무역을 하기 위해 조완벽과 계약을 맺는 부분이다. “당시 일본 상인들이 安南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뱃길에 익숙한 浙江사람과 候風人 그리고 한문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필요했다. 조완벽의 주인은 候風人은 찾았지만 글을 아는 사람은 구하지 못해 걱정하던 차에 조완벽이 거칠게나마 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왜놈 주인은 조완벽에게 함께 安南에 다녀오면 그를 영원히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한다.”[62] 이 부분에서 특이한 점은 조완벽

61) 권혁래, 「<趙完璧傳>의 텍스트와 문학적 의미 연구」, 『어문학』100, 한국어문학회, 2008, 209~211쪽 참조.

62) “倭之欲行商于安南國, 獲大利者. 必求得浙江人, 老於海, 善候風者, 及解文通意者. 與偕然後, 乃

이 주인과 계약을 했다는 점이다. 조완벽은 포로의 몸으로 종살이하던 입장이었는데 주인이 조완벽에게 安南에 다녀오면 자유를 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점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수광의 「趙完璧傳」에서도 이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조완벽이 弱冠의 나이에 정유재란이 발생해 일본의 京都로 끌려갔다는 것과 조완벽이 글을 알기에 해상무역을 하는 일본인 주인의 배를 타고 安南에 3번 다녀왔다는 것이다.[63] 정사신의 「趙完璧傳」과 비교해 볼 때 정유재란 때 조완벽이 약관의 나이였다는 것과 일본의 경도로 끌려갔다는 사실이 좀 더 상세하다. 그러나 조완벽이 일본인 주인과 계약을 맺고 安南을 다녀온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글을 알았기에 배를 탈 수 있었다는 점만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 단락은 安南으로 향하는 항해의 여정에 관한 내용이다. 이 부분에는 浙江사람이 배를 모는 솜씨에 대해 꽤 길게 기록하고 있다. 바람이나 별, 혹은 바다 밑에서 흙을 끌어 올려 그 흙의 색으로 어느 지방인지 가늠하여 행로를 결정하는 일을 서술했다. 또 파도 속에서 여자 귀신을 본 일이나 큰 고래와 大龍을 만난 일, 용을 쫓기 위해 생닭 50~60마리를 태워 연기를 낸 일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이수광의 「趙完璧傳」에서 조완벽의 항해에 대한 내용은 작품 후반부에 琉球나 呂宋 등을 다녀온 이야기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64] 정사신의 「趙完璧傳」이 조완벽의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간 것에 반해 이수광의 「趙完璧傳」은 시간 순서에 따른다면 앞에 있어야할 이 내용을 뒷부분에 와서야 기술 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세 번째 단락은 安南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조완벽 일행은 50여 일 만에 安南에 도착하였다. 이수광의 「趙完璧傳」에는 조완벽이 도착한 곳이 安南의 興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65] 安南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풀고 맨발로 다니고 있었는데 맨발로 다녀도 발에 상처를 입지 않았다. 땅은 연한 흰모래로 이루어져있

行. 完璧之主倭, 旣得候風人, 而未得解文人, 方以言語莫通, 爲患, 完璧素於晉州學文者也, 粗解文理, 主倭要與完璧行爲盟文以約曰, 往來安南之後, 則永放汝任其所之云."(정사신, 「趙完璧傳」; 『퇴계학자료총서』20, 안동: 퇴계학연구소, 1999, 498~499쪽)

63) "趙生完璧者, 晉州士人也, 弱冠, 値丁酉倭變, 被擄入日本京都…以生曉解文字, 挈而登舟, 自甲辰連歲三往安南國."(이수광, 「趙完璧傳」, 서울대규장각 소장본; 『한국문집총간』66, 한국고전번역원, 1990, 252쪽)

64) "生亦嘗隨往呂宋國, 國在西南海中, 土多寶貨, 人皆髡髮爲僧. 琉球地方甚小, 其人皆偏髻着巾, 不習劍銃諸技, 距薩摩約三百里有硫黃山, 遠望山色皆黃…自日本晝夜行四十日或五六十日始達安南, 還時則順流十五晝夜可抵日本矣."(이수광, 「趙完璧傳」, 253쪽)

65) "抵安南 興元縣, 縣距其國東京八十里, 乃其國都也."(이수광, 「趙完璧傳」, 252쪽)

었고 겨울이 봄과 같이 따뜻하다고 했다. 또 일부다처제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부자들은 처첩이 수십에 달했는데, 卿相의 처첩이라도 여인들이 장사를 해 돈을 벌게 한다는 내용이 서술되어있다. 이 부분은 정사신의 「趙完璧傳」에만 기록된 부분이다.

또 가는 곳마다 芝峯 李睟光의 시를 읊고 있다는 점을 기록했다. 安南 사람들은 조완벽에게 "그대가 조선 사람이라면 東國의 李芝峯을 알고 있는가?"[66]라고 물었는데, 조완벽은 일찍이 일본으로 잡혀와 이수광을 잘 알지 못했다. 安南 사람들은 이런 조완벽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 부분은 이수광의 「趙完璧傳」에서도 등장한다. 정사신의 「趙完璧傳」에 士人이라고만 언급하였던 安南 사람을 이수광의 「趙完璧傳」에서는 文理侯 鄭勤라고 밝히고 문리후가 조완벽은 초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67] 문리후와 함께한 유생들은 조완벽에게 이수광의 시집을 내밀었는데 "朱墨으로 批點을 친 것이 가득 하고, 유생들은 이를 베껴서 외우고 있다"[68]고 하였다.

지봉 이수광에 관한 대목은 「趙完璧傳」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로 조선과 교류가 거의 없던 安南에서 이수광의 시가 널리 읽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완벽은 安南에 머물러있다 중국을 통해 조선으로 돌아가라는 제의를 받지만 거절하였는데, 安南 사람들이 "겉으로는 온순한 것 같지만 마음은 교활하고 탐욕이 많아"[69] 믿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단락은 일본인 주인이 계약을 어겨 두 차례 安南을 더 다녀온 끝에 자유를 얻어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다. 본래 계약은 安南에 다녀오면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었으나 일본인 주인은 약속을 어기고 조완벽을 놓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다시 전과 같이 盟約文을 작성하고 安南에 다녀오자고 한다. 조완벽은 할 수 없이 또 安南에 다녀왔으나 주인은 다시 약속을 어기고 조완벽을 놓아주지 않는다. 이에 이웃 사람들이 두 번이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좋지 않다는 비난이 거세 조완벽을 놓아주게 된다. 드디어 조완벽은 자유의 몸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온다. 조선에 돌아와 보니 고향에는 어머니와 처가 별 탈 없이 지내고 있었다. 「趙完璧傳」의 서사는 여기서 마무리된다. 정사신은 이 傳을 쓸 때 조완벽이 예전처럼 고향에서 잘 살고 있다는 후일담과 함께 이 이야기를 直長 金允安(1560~1622)에게서 들었다

---

66) "儞是朝鮮人則儞知東國李芝峯乎?"(정사신, 「趙完璧傳」, 502쪽)

67) "有文理侯鄭勤者, 以宦官用事, 年八十, 居處甚侈…一日文理侯招生, 生至則有高官數十人列坐飮宴, 聞生爲朝鮮人, 皆厚待之."(이수광, 「趙完璧傳」, 252쪽)

68) "而首題曰朝鮮國使臣李芝峯詩, 皆以朱墨批點……此貴國宰相李芝峯之作, 我諸生人人抄錄而誦之."(이수광, 「趙完璧傳」, 252쪽)

69) "其國之人, 外似溫順而心實狡詐, 多貪慾."(정사신, 「趙完璧傳」, 502쪽)

는 사실을 간략히 덧 붙였다.[70]

대개의 傳은 말미에 논찬을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사신의 「趙完璧傳」은 작품 말미에 조완벽의 이야기를 김윤안에게 들었다는 사실만 간략히 기술되어 있을 뿐 논찬은 없다. 반면 이수광의 「趙完璧傳」에는 조완벽이 回答使 呂祐吉을 만나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내용과 함께 논찬이 들어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71]

지금까지 정사신의 「趙完璧傳」을 주요 대상으로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정사신은 조완벽의 安南 여정에 대해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술 하고 있다. 진주 선비였던 조완벽은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갔다. 글을 알았기에 일본상인인 주인과 함께 安南으로 떠난다. 일본인 주인은 포로의 신분인 조완벽에게 安南항해를 함께 다녀오면 영원히 풀어주겠다는 계약을 맺는다. 安南으로 가는 길에 여자 귀신을 보기도 하고 큰 고래와 용을 만나는데, 용을 쫓기 위해 생닭 50~60마리를 태워 연기를 냈다는 일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安南에 도착한 후의 일에 대해서는 安南 사람이나 그곳의 기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安南 여인들의 모습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또 이수광의 시가 널리 읽히고 있는 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安南으로의 여정이후 일본인 주인이 계약을 어겨 두 차례 安南을 더 다녀온 끝에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정사신의 「趙完璧傳」은 일본인 주인과의 계약이나 安南 여인들의 모습 또 安南까지의 항해 여정에서 본 浙江 사람의 항해솜씨에 관한 내용이나 항해 도중 출현한 여자귀신이나 고래 등 서사적인 측면에서 흥미로운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 자체의 전달에 치중하여 서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이수광의 「趙完璧傳」은 전체적인 내용은 정사신의 「趙完璧傳」과 다르지 않으나 安南으로의 항해 여정에 관한 내용이 후반부에 따로 등장하여 시간의 순서를 따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조완벽이 약관의 나이에 정유재란이 발발하여 일본의 경도로 피랍되었다는 것이나 일본인 주인과 함께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安南의 홍엔이라는 것, 또 安南에서 문리후 정초라는 사람에게 초대받았다는 것과 회답사 呂祐吉을 만나 본국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 등 지명이나 인명이 정확히 기록되어있다. 또 유구와 여송을 다녀온 일까지 기록하고 있어 정치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

70) "今方安居奠業, 復如初, 此事, 金直長允安而靜云."(정사신, 「趙完璧傳」, 503쪽)

71) "生至丁未年回答使呂祐吉等入往時, 哀告主倭, 得還本土…夫安南, 去我國累萬里, 自古不通, 況海道之窵遠乎? 生由東極抵交南, 歷風濤之險, 行蠻貊之鄕, 冒萬死得一生, 以至全還, 乃前古所未有者也. 孔子曰: '言忠信行篤敬, 雖蠻貊之邦行矣.' 若生者庶幾近之矣. 且生名爲完璧, 抑可謂不負其名者歟."(이수광, 「趙完璧傳」, 254쪽)

기술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Ⅲ. 장르의 일반적 특징과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 소재 문학

『錦溪日記』·「崔陟傳」·「趙完璧傳」 이 세 작품은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이라는 공통적 소재를 가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장르에 속한다. 세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속한 장르의 다른 작품에 비해 특이한 여정을 경험했고 이 일을 기록하면서 각각 장르의 특징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장에서는 그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錦溪日記』·「崔陟傳」·「趙完璧傳」이 속한 장르의 일반적 특징과 작품이 가진 장르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錦溪日記』·「崔陟傳」·「趙完璧傳」만이 가진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장을 통해 『錦溪日記』·「崔陟傳」·「趙完璧傳」이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을 기록함으로써 나타나는 특징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1. 실기문학과 『錦溪日記』

1) 실기문학의 일반적 특징과 『錦溪日記』

實記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실을 기록한 글'이다. 그러나 그저 사실을 기록하는데 그쳤다면 이를 문학의 범주로 포함시키긴 어려울 것이다. 실기문학에 관한 정의는 김용숙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72] 이후 황패강은 실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지었다.[73] 그리고 이채연은 『壬辰倭亂 捕虜實記 硏究』를 통해 실기 문학이

72) "사실 자체는 문학이 될 수 없지만 이것이 객관적 사실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쓰는 이의 자세에 따라 문학성이 개제될 때, 이는 문학의 범주에 든다. 그 '자세'란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작자의 인생관·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리하여 실기문학이란 한마디로 사실의 기록에서 출발한 문학이란 뜻이 된다."(김용숙, 「왕조사회와 실기문학」,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393쪽)

73) "實記의 本領은 작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재현했다는데 있을 것이며, 그 敍法이 寫實的이며 情感的이라는 데 있다. 正史를 사건의 추상화된 기록이라고 한다면 實

창작되는 환경적 조건을 제시했다.[74]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논의로 장경남이 실기문학의 창작의도를 제시했다.[75]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면, 실기문학의 창작 배경은 전쟁이나 亂과 같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며, 작자는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한 실존인물이다. 記, 錄과 같은 문체를 이용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는 사건 중심의 서술태도를 보인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되지만 개인의 체험에 국한되기 때문에 역사의 한 단면만을 보여준다. 실기문학은 개인의 정서를 숨김없이 드러냄으로써 독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학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문학은 작자의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 글의 독자성이 확보된다는 특징이 있다. 글의 목적은 후대인을 경계하려는 의도이며, 사실의 기록에서 출발한 허구적 요소가 배제된 비 허구적 문학이다.

실기문학의 정의를 바탕으로 『錦溪日記』를 살펴보면 『錦溪日記』는 임진왜란이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준 사건을 배경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유재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문제 중 하나인 포로와 관련된 국외 체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작자인 魯認은 이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기체를 이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일기체는 사실의 기록이면서 지은이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실기문학의 경우 사실을 전달 할 때에는 자신의 감정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전달하는데 치중한다는 특징이 있다. 주로 전쟁의 참상을 보고하는 부분에서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錦溪日記』의 경우 앞부분이 망실되어 일본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오면서 발생한 전쟁의 참상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대신 일본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가는 배안의

記가 다루는 사건은 다분히 개별적 구체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그 전달은 박진감이 있고 情感에 호소하는 면이 강하다. 물론 실기라고 하여도 일률로 말할 수는 없다. 正史와 같은 公式的인 서술만으로 시종한 實記類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부분 後人이나 後孫들이 先人이나 先祖를 顯揚하려는 목적에서 제작한 까닭으로 당자의 생생한 체험과는 거리가 없을 수 없고, 자신의 체험을 서술한 실기와는 구별하지 않을 수 없다."(황패강, 『임진왜란과 실기문학』, 일지사, 1992, 11쪽)

74) "실기문학은 실존 인물이 전쟁이나 亂,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겪은 체험의 실상을 記, 錄과 같은 문체로 기록·표현한 것으로 역사와 같은 사실지향적인 서술태도를 보이면서도 이성보다도 감성에 호소하는 생체험 중심의 문학이라 할 수 있다"(이채연, 『壬辰倭亂 捕虜實記 硏究』, 박이정, 1995, 115쪽)

75) "임란 실기문학이란 임진왜란을 체험한 작자가 자신이 직접 겪은 체험의 실상과 체험의 과정에서 느낀 정서를 記 , 錄과 같은 형식을 이용해 기록·표현하여 후대인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비허구적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장경남,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2, 34쪽)

모습을 묘사하는데서 이런 면을 볼 수 있다.

> 동풍이 바닷물을 걷어 올리고 큰 비는 물 쏟듯 하며, 무서운 파도는 하늘에 맞닿아 맑았던 날씨가 캄캄해지고 눈덩이 같은 파도가 오르내리니, 배도 따라 떴다 잠겼다 한다. 꾸부려 파도 속을 바라보니, 깊은 골짜기에 임한 듯하고 뛰는 물결은 높이 솟아 배 위에 물이 가득했다. 그러나 배 다락과 갑판을 만든 제도가 우리나라 전선(戰船)과 비슷하여 가운데는 높고 가 쪽으로는 기울어졌다. 석회로 갑판 틈을 발라서 비가 내리고 물결이 올라온다 해도 저절로 흘러서 뱃전으로 내려가고, 곧바로 배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배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니, 뱃사공이 말하기를,
>
> "가는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니 조금도 두려워 마시오."
>
> 하였다.[76]

3월 21일·22일 일기의 전문이다. 큰 비가 내리고 파도가 거센 것으로 보아 태풍을 만난 듯하다. 항해 도중 만난 악천후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겨우 일본을 탈출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중국으로 향하던 魯認 일행에게 이런 악천후는 원망스럽고 두려운 존재였을 것이다. 그러나 魯認은 일기에 자신의 감정은 서술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때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魯認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에도 독자는 그 당시 생생한 묘사를 통해 魯認의 체험에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소설에서 작가가 주인공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견주어 볼 때 실기는 오히려 이런 사실적인 묘사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독자가 작자와 체험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장르와 차별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錦溪日記』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의 보고적 측면에만 치우쳐 기록된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錦溪日記』는 일기체 실기문학이기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부분 또한 찾아 볼 수 있다. 국외 체험을 기록한 실기에 드러나는 감정은 주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고국귀환에 대한 간절함이다.

> 큰비.
>
> 돌아갈 마음이 갑절이나 간절했다. 낮 꿈에 임금과 부모형제를 보았다.[77]

---

76) "東風捲海, 大雨如注, 怒濤連天, 白日黑昏, 雪屋高下, 舟從浮沒, 俯見波心, 如臨洞壑, 超浪高聳, 波滿船上, 然樓板之制, 彷彿我國戰船, 而中高邊側, 以石炭塗于板隙, 雨雖下而波雖上, 自流下舷, 直不入船中矣. 然舟人則大惧, 篙工曰, 此風正順, 萬萬無疑矣."(『錦溪日記』 3월 21·22일)

4월 11일의 일기로 한 줄밖에 안되는 짧은 기록이지만 이날 일기에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작자의 심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외에도 국외 체험을 담은 실기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시로 표현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 꿈을 꾸었는데 □…□ 평일과 같았다. 깨어나니 눈물이 나므로, 드디어 두 절구(絶句)를 읊었다.
>
> 망향 시름에 나그네 살쩍 어느새 희었는가.
> 한 밤 쓸쓸히 고향 생각 간절하네.
> 깨어보니 분명 고향 꿈인데,
> 못 견딜 슬픔에 눈물만 절로 난다.
> 또
> 간밤 꿈 옥뜰에 뵈온 임금님.
> 깨어 오매 느낀 눈물 베갯머리 적시네.
> 임금은 욕받고 나라 망하니 한 하늘일 수 없는 원수.
> 시원히 설욕하고 나라 찾으리.[78]

첫 번째 시에서는 꿈을 꾸고 난 후 더욱 그리워진 고국에 대한 마음을 두 번째 시에서는 나라를 침략당한 치욕을 갚아 주리라는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실기문학에 등장하는 이런 시는 독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학적 요소이다. 또 두 번째 시를 통해 『錦溪日記』에 직접적으로 후대인을 경계한다는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魯認 또한 자신의 경험을 후대인이 보고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언급은 실기 문학의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여 이를 통해 후대인을 경계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魯認의 이런 뜻은 중국에 막 건너와 장관과 나눈 대화에서 드러난다.

> 우리나라는 비록 초료(鷦鷯 뱁새)와 초목일지라도 모두 왜놈의 피해를 보았고, 더구나 나는 정유년(1597, 선조 30) 가을에 부모・형제・자질・처자 아울러 20여 명이 모두 왜놈의 칼에 죽고 나만이 다행히 모면하였습니다. 한때에 같이 죽지 못하고 포로로 적

77) "大雨. 歸心倍切, 晝夢中, 見君親兄弟也."(『錦溪日記』 4월 25일)
78) "夢見, □□□□□□如平日覺來涕泣, 遂成二絶曰 思歸客鬢何時白, 三夜蕭蕭楚雨寒, 記得分明故國夢, 不堪悲淚自潸潸. 又 昨夢瑤墀拜至尊, 覺來感淚枕成痕, 主辱家亡不戴天, 快雪腥塵一時盡."(『錦溪日記』 5월 6・7일)

국에 들어가서 그 정세를 탐정하건대, 수길(秀吉 일본의 관백 풍신수길)은 비록 죽었어도, 남은 도적은 분하고 부끄러워하며 잔악한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였으니, 짐짓 후퇴한 것을 가지고 깨끗하게 숙청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진정(秦庭)에서 곡(哭)하여 저 오궁(吳宮)에 못을 파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몰래 단아한 군자인 임(林) 선생의 배를 타고 수만 리 거센 파도를 고생하며 건너왔습니다.[79]

이 인용문은 조선 사람이면서 왜 조선으로 바로 가지 않고 중국으로 왔냐는 장관의 질문에 魯認이 대답한 것이다. 魯認이 일본의 정세를 기록한 글은 『錦溪集』에 실려 있고 『錦溪日記』에서는 찾아 볼 수 없지만, 魯認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왜구의 침략에 복수하고자 하는 의지는 위 인용문에서 잘 드러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錦溪日記』에 나타나는 실기문학 일반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실기문학의 성격은 창작 배경, 작자, 문체, 서술태도, 글의 목적 등에 따라 이야기 할 수 있었다. 『錦溪日記』는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으로 큰 사건을 배경으로, 실제 전쟁과 포로생활을 체험한 魯認이 자신의 체험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하였다. 일기체로 기록되어있기에 시간의 순서대로 서술되었으며, 사건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장면에서는 작자의 감정 표현은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로 하여금 체험의 동질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 국외 체험을 다룬 다른 실기와 마찬가지로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귀환의지가 곳곳에 표현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작자의 감정은 주로 시를 통해 드러났다. 글을 작성한 의도는 자신이 경험을 기록하고 알려 일본에 복수하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인과 나눈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2) 일기형식의 파편성과 국외 체험 서술의 통일성

임진왜란과 관련된 실기문학은 작자의 신분이나 위치, 활동 양상 등을 중심으로 從軍實記, 捕虜實記, 避亂實記, 扈從實記로 나눌 수 있다.[80] 이 구분은 명확한 구분

79) "弊邦雖鷦鷯草木, 皆被倭禍, 況我則丁酉秋, 父母兄弟子姪妻孥並二十餘, 皆陷賊鋒, 而認獨幸免, 未得共死於一時, 擄入賊土, 探察情勢, 則秀吉雖死, 餘賊憤恥, 狼心不悛, 不可以姑退, 永謂之廓清, 擬哭秦庭, 治彼吳宮, 故潛把愷悌君子林先生之船, 苦渡萬萬里鯨波矣."(『錦溪日記』 3월 28일)

80) 이채연은 호종실기를 피란실기에 포함하여 종군실기, 포로실기, 피란실기로 구분하였다.(이채연, 『壬辰倭亂 捕虜實記 硏究』, 박이정, 1995) 그러나 호종실기의 경우 왕을 호종하는 특별한

은 아니다. 처음에는 피란을 떠났지만 후에 의병활동을 한 경우에는 從軍과 避亂의 성격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로 실기만큼은 주인공이 왜적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귀국한 작자들이 쓴 실기이기에 다른 실기에 비해 그 성격이 명확히 구분된다.

실기문학 중 국외 체험을 담고 있는 것은 포로 실기이다. 『錦溪日記』 또한 국외 체험의 기록을 담은 포로 실기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錦溪日記』는 앞뒤가 멸실되었으나, 탈락된 부분의 내용은 『錦溪集』을 통해 보충 가능하다. 이런 『錦溪日記』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기체로만 쓰여 있다는 점이다. 일기 내에 詩나 催歸文 등 다른 형식의 글이 포함되어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문체는 일기체 이다. 이는 포로 실기에 속하는 『看羊錄』·『萬死錄』·『月峯海上錄』·『정유피란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렇기에 『錦溪日記』만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다른 포로 실기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려 한다.

姜沆(1567~1618)도 魯認처럼 정유재란에 포로가 되었는데, 그의 실기 『看羊錄』은 1책으로 서로 다른 양식의 글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글은 일본에서 포로생활을 하면서 얻은 정보와 자신이 포로로 잡힌 경로를 서술해 놓은 상소문 「賊中封疏」이다. 「賊中封疏」에는 임진왜란에 참전한 왜장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또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방의 허점도 기록되어 있어 姜沆의 애국심이 엿보이는 글이다. 두 번째 글은 「賊中聞見錄」이다. 이 글은 일본 관료들의 직급과 직책 명을 기록한 "倭國百官圖"와 일본의 지리를 기록한 "倭國八道六十六州圖", 임진왜란에 출정한 장수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壬辰丁酉入寇諸將倭數"가 기록되어있다. 세 번째 글은 일본에 남아있는 포로들에게 보내는 격문인 「告俘人檄」으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난 글이다. 네 번째는 귀국해서 왕이 일본의 사정을 묻자 답한 글인 「詣承政院啓辭」이다. 이 글에는 일본의 풍속이나 일본의 지리와 지진, 궁실의 모습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마지막은 『錦溪日記』처럼 포로체험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涉亂事迹」이다. 「涉亂事迹」은 『看羊錄』의 핵심부분으로 30여 수의 시가 수록되어있고, 포로 생활 중의 시름이나 일본인과 정담을 나눈 내용들이 담겨있다.

『萬死錄』·『月峯海上錄』[81]·『정유피란기』의 저자는 각각 정경득(1569~1630)·鄭希得(1573~1640)·정호인(1579~?)으로 이 세 사람은 같은 집안사람이다. 집안사람

처지에서 기록한 것이라는 장경남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 네 가지로 구분하기로 한다.(장경남,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2)

81) 학계에서 鄭希得의 號를 붙여 『月峯海上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고에서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작품명에 따르기로 한다.

이 같은 날 함께 끌려가 같은 곳에서 포로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용상 유사한 점이 많다. 이 세 작품 모두 구성은 일기와 다른 양식의 글이 함께 수록되어있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月峯海上錄』을 살펴보고자 한다. 鄭希得의 『月峯海上錄』은 『萬死錄』이었으나 증손 鄭德休에 의해 『해상록』으로 변경 되었다.[82] 『月峯海上錄』은 상·하 2권 2책으로 권1은 疏, 風土記, 日錄 등의 산문이, 권2는 詩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海上日錄」으로 피로되기 직전의 날부터 시작하여 일기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의 경과를 잘 알 수 있다. 권2의 詩文은 포로 생활의 심회와 정경을 표현했는데, 시의 형태는 오언절구, 오언배율, 장편, 칠언절구, 칠언배율, 장편 등으로 다양하다.

살펴보았듯이 『錦溪日記』를 제외한 다른 포로 실기는 모두 일기가 핵심을 이루고는 있지만 일본의 정세나 풍수지리에 관한 글을 함께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錦溪日記』는 일기이외의 형식은 취하고 있지 않고 일본의 정세 파악 등에 관한 글은 『錦溪集』 권6에 별도로 수록되어있다. 현존하는 『錦溪日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기 형식으로만 기록된 일기체 실기문학이기에 일기체의 특성상 작품 전체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짜임새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국귀환이라는 작자의 염원아래 하나의 서사를 이루고 있다. 작자는 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었고, 파편적인 하루하루의 기록은 고국귀환에 대한 의지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틀을 두고 그 안에서 일정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기체로만 기록되어 있어 다른 포로 실기 문학과 차이를 보인 『錦溪日記』는 일기체로만 기록하였음에도 하나의 서사를 이룬다는 점에서 국외 체험을 다룬 다른 장르의 서사문학과도 차별성을 보인다. 여기서는 Ⅱ장에서 분석한 작품의 구성을 토대로 『錦溪日記』만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Ⅱ장에서 언급했듯이 『錦溪日記』는 네 개의 서사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은 일본을 탈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내용인데, 2월 22일부터 3월 9일까지의 일기는 각각의 내용은 길지 않으나 고국과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 작품 전체에 걸쳐 종종 등장하는 꿈에 대한 기록 중 특이한 점이 있는 단락이기도 하다.

> 맑음.
>
> 밤 꿈속에 붉은 뱀이 내 머리 위를 물어서 붓고 아팠는데 부친께서 꿀을 발라 주셨다. 이는 매우 이상한 꿈이다. 꿈에서 깨니 슬픈 눈물이 옷깃에 흥건하였다.[83]

82) 정덕휴, 『해상록』, 跋文.

비.

종일토록 방에 누워 있었다. 낮잠 꿈에 탑하(榻下)에서 임금을 뵈었는데, 포장(褒奬)하여 상을 주시는 것이었다. 아마도 임금을 사모하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심정이 갑절이나 간절하였기 때문이리라. 절구 한 수를 읊었다.

□…□ 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하는 괴로움을

헛되이 긴 □…□을 생각하네.[84]

魯認은 그날그날의 날씨와 꿈에 대해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다. 첫 번째 인용문은 2월 26일 일기 전문이다. 꿈에서 붉은 뱀이 머리를 물어서 아팠는데 아버지가 꿀을 발라 주었다고 했다. 魯認은 이 이상한 꿈을 꾸고 슬픈 눈물로 옷깃을 흥건히 적셨다. 魯認는 아버님이 그리웠다고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대신 눈물로 옷깃이 흥건하였다고만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직적접인 감정 서술 없이 사실을 기록한 것만으로도 魯認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다음날인 2월 27일 일기의 전문인데, 임금님을 뵌 꿈을 꾸고 임금을 사모하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심정이 간절하여 그런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이외에도 『錦溪日記』에는 꿈에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다거나 꿈에 형제를 보았는데 예전과 같았다는 등 종종 꿈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2월 27일 일기처럼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런 꿈을 꾼 것 같다는 서술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2월 27일에 임금을 사모하고 고국을 그리워하여 꿈을 꾼 것 같다고 서술함으로써 작품의 군데군데 등장하는 꿈에 관한 짤막한 기록은 작자가 부모와 형제 또 고국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맑음.

진병산(陳屛山) 등이 몰래 들어와 글로 써서 보이기를,

"왜장(倭將)이 배를 수색하면 그대와 나는 큰 곤욕을 □…□ 것이니, 형편상 함께 배를 타기는 곤란합니다."

하였다. 나는 □…□ 어찌할 바를 몰라 가슴만 치며 한탄했다. 밤 꿈에 부친께서 나를 훈계하기를,

---

83) "晴. 夜夢中, 赤蛇嚙首上而浮痛, 父親以淸蜜塗之, 此是異夢, 夢覺悲淚盈襟."(『錦溪日記』 2월 26일)

84) "雨. 終日□臥, 晝夢中, 謁主上於榻下, 褒奬賜賞, 蓋惠主懷土之情倍切, 吟一絶曰 □□日倍歸心苦, 夢想長□□□中."(『錦溪日記』 2월 27일)

"너는 모름지기 걱정하지 말라. 어렵지 않게 바다를 건널 것이다."

하였다. 꿈을 깨고는 조금 스스로 위안할 수 있었다.[85]

위 인용문은 3월 9일 일기의 전문이다. 陳屛山의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기로 했는데, 陳屛山이 와서 왜장이 배를 수색해서 발각 되면 모두 큰 곤욕을 치르게 되므로 함께 배를 탈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한다. 이 날 魯認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한탄했는데, 꿈에서 부친이 나타나 어렵지 않게 바다를 건널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다. 魯認은 이 꿈을 깨고 위안할 수 있었다고 기록했다. 이 날의 기록은 「崔陟傳」에서 옥영의 꿈에 등장하는 丈六佛과 비슷한 모습이다. 「崔陟傳」에서는 옥영이 목숨을 끊으려는 절체절명의 시기마다 丈六佛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작품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면 『錦溪日記』에서 꿈은 간헐적이지만 작품의 통일성이라는 부분에 기여하는 요소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날의 기록은 「崔陟傳」이나 『錦溪日記』 모두 꿈으로 인해 꿈을 꾼 당사자가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부분이다.

두 번째 단락은 명나라로 가는 여정 중 있던 일과 漳州 경비 장관의 심문을 받는 부분으로 분량은 길지 않다. 날씨에 따라 엎치락뒤치락 하는 배안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단락에서도 역시 고국 귀환에 대한 의지와 가족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맑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져 누운 이가 반은 되었다. 진・이가 경계하기를,

"뱃멀미를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음식을 줄여서, 반드시 말라 죽게 된 뒤에야 멀미가 나지 않으니, 매일 죽을 작은 주발로 하나만 먹고, 많이 마시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므로, 대답하기를,

"나는 본래 이러한 병이 없습니다. 다만 굶주려서 병이 날 뿐입니다."

하니, 진・이가 웃으며 말하기를,

"장사라고 할 만하니 이 뒤로는 양대로 먹어도 좋습니다."

하였다. 바람세가 날로 순하니, 나의 기쁜 마음을 어찌 다 말하랴. 손가락을 꼽아 날짜를 헤아리며, 건너가 닿기를 고대하였다. 꿈에 부모를 보았다. 자지 않아도 꿈과 같아

85) "晴. 陳屛山等, 潛入書示曰: '倭將搜船, 則儞與吾□□□□大辱, 勢難同舟.' 吾□□□我罔知所爲, 徒自叩胸, 終日嗟嘆, 夜夢中, 父親戒我曰: '汝不須愁悶, 不難渡海.' 夢覺少有自慰."(『錦溪日記』 3월 9일)

서 일가 골육의 모습이 항상 눈에 선하다.[86]

3월 24일 첫 번째 일기이다.[87]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뱃멀미로 쓰러져있었다. 魯認을 걱정한 陳屛山과 李源瀅의 이야기에 魯認은 다만 굶주려서 병이 날 뿐이라고 하고 있다. 魯認이 뱃멀미가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바람세가 순하여 건너가 육지에 닿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꿈에 부모님을 뵙고, 자지 않아도 꿈과 같이 가족의 모습이 항상 눈에 선하다는 뒷부분 일기로 보아 순풍으로 항해가 순조로우니 육지에 곧 다다를 수 있다는 기쁨에 뱃멀미를 느끼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맑음…
큰 고래 뿜는 물 눈을 이루니
충천하는 금 기둥에 지는 햇빛 비꼈어라.
□…□하여 중국이 멀지 않은 것을 알았던가.
뱃사람은 흥겨워 피리를 부는구나.[88]

3월 25일의 일기이다. 항해 중 큰고래를 만난 일을 기록하고 시를 지었는데, 이날 일기에서 고래보다 중점적인 것은 고래를 만남으로 인해 육지에 거의 다다랐음을 알게 된 기쁨이다. 魯認은 뱃사람이 "물속에 사는 동물은 물이 얕은 바다 개펄에 있기를 좋아하고, 넓고 깊은 곳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래가 물을 뿜는 것을 보면 반드시 물이 얕은 것으로 짐작되니, 이것으로 압니다."[89]라고 고래의 습성을 설명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피리를 불며 흥겨워 하는 뱃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기만 하고 자신의 감정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86) "晴. 舟人半爲倒臥, 陳.李戒之曰: '水疾治方, 只是節飮食, 必乾欲死然後, 水疾不發, 每日只飮粥一小椀, 禁我多飮.' 答曰: '我本無此疾, 但飢腸生病.' 陳.李笑曰: '可謂壯士, 此後任量可矣.' 風勢日順, 私喜曷極, 屈指計日, 苦待渡泊之事矣. 夢見雙親, 不寐如夢, 一家骨肉, 常見眼中矣."(『錦溪日記』 3월 24일)

87) 3월 24일 일기는 두 개다. 24일 이라는 날짜는 두 번 표기해 따로 기록하고 있다. 인용문은 그 중 첫 번째 일기이다. 이처럼 『錦溪日記』에는 종종 날짜를 두 번 표기하여 따로 기록한 날이 있다.(3월 24일, 4월 18·19·20·21·22일)

88) "晴…海波成雪長鯨噴, 金柱撑空落照斜, □□中華知不遠, 舟人乘興動淸笳."(『錦溪日記』 3월 25일)

89) "凡水族, 皆喜在水淺海浦, 而不喜在蒼溟極深處, 今見鯨兒之噴, 想必水淺, 是以知也."(『錦溪日記』 3월 25일)

그 날 작성한 시는 3월 25월 배안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내용상으로만 보자면 같은 내용을 시로 함축한 것이다. 그러므로 뱃사람과의 대화를 통한 앞부분의 기록은 내용 전달을 위한 것이고, 시는 육지에 거의 다다랐다는 사실에 魯認 역시 기쁜 마음이 북받쳐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단락은 본격적인 중국에서의 여정으로 魯認은 중국인들에게 학식을 인정받아 호의적인 대접을 받는다. 이 단락부터의 일기는 대개 중국의 지식인들과 나눈 대화로 채워져 있다. 魯認은 중국의 문물과 풍습을 충분히 보고 기록 할 만큼 여유로운 생활을 했고 중국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중국의 동물이나 농작물 등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자세한 이유는 『錦溪日記』의 일기체라는 문체 덕분이다. 『錦溪日記』는 소설이나 전등과 달리 일기체로 쓰인 실기문학이기에 길이에 제한 없이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魯認은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고국귀환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고, 특히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심정을 여러 편의 귀국을 재촉하는 글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비록 백 가지로 추측해 보아도 집안의 친척은 다 죽어 간뇌(肝腦)가 땅바닥에 버려져 여우와 이리의 밥이 되었을 것이니, 가만히 생각하면 피눈물이 흐르며 오장이 찢어지고 혼이 나가 미칠 것만 같아 세상이 깜깜합니다. 슬픈 한 생각은 다만 돌아가서 금년 겨울 눈이 내리기 전에 돌아간 부모의 백골을 거두고 영혼을 불러 선영 아래에 장사지내고 싶을 뿐입니다. 더구나 왜적은 비록 도망갔다 하지만, 짐짓 후퇴한 것을 가지고 영구히 깨끗하게 씻었다고는 할 수 없음에랴. 이에 □…□ 일찍 고국에 돌아가 오궁(吳宮)에 못을 파, 원수 갚을 계책을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합하께서는 특별히 일찍 돌아가도록 명하소서. …… 이 일이 다만 저희 나라의 근심만이 아니며, 실은 천자(天子)께서 7~8년간 우리나라를 위해 밤낮으로 근심하셨던 일입니다. 호랑이 입에서 겨우 모면하여 여기에 체류하여서는 괴로움이 쌓여 병이 되었고 한 시각이 3년보다 갑절이나 되오니, 바라건대 합하께서는 사랑하고 용서하셔서 곧바로 돌려보내어 국가와 부모를 위한 성의를 다하게 하시면 천만 다행하겠습니다. 격절하여 방황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어, 삼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90]

---

90) "雖百爾推之, 一家之親, 皆死無餘, 而肝腦塗地, 狐狸有事, 潛思血泣, 五內崩摧, 魂喪如狂, 天日昏冥, 哀哀一念, 只在趍歸, 今冬雨雪之前, 七親白骨收拾, 招魂埋葬於先塋之下也. 又況倭賊雖已退遁, 不可以姑退, 永謂之廓淸, 玆以□□□早回故國, 治吳雪恥之策, 欲圖預備也. 伏祝閤下, 特命早回……此事非獨弊邦之患, 實聖天子七八載東顧宵旰之憂也. 艱免虎口, 留滯至此, 積傷成病, 一

인용문은 4월 14일 귀국을 재촉하기 위해 작성했다며 수록한 글이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魯認의 절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이날 이외에도 魯認은 몇 편의 비슷한 글을 작성하였는데, 글을 작성한 이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일기체임에도 실기라는 특성상 사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이기도 하지만, 따로 의도나 이유를 언급하지 않아도 글을 수록함으로써 작자의 감정이나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 단락은 魯認이 兩賢祠의 강학에 참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 兩賢祠에서 기거하면서 그곳의 수재들과 교유한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다. 兩賢祠에 들어가면서 魯認은 兩賢祠의 29인의 수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네 번째 단락은 중국의 제도나 학문적인 부분에 관한 대화가 많이 기록되어있다. 이곳에서 魯認은 학식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문사적 우월함을 느낄 수도 있었고, 중국의 제도나 풍습 그리고 학문에 관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국 귀환의지와 그리움은 더 커져만 갔는데, 중국에 3월 28일에 도착하여 6월 27일 즉 3달이 되어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 아뢰옵건대, 의관에 명하여 약을 내리시고 나의 병을 고치게 하여 주시어 연일 복용하였더니 여러모로 좀 나아졌습니다. 감명함이 뼈에 사무쳐 감사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병이란 혹은 조금 면식(眠食)의 온냉(溫冷)을 잃거나, 혹은 잠깐 사려(思慮)의 침우(沈憂 근심걱정에 잠김)가 있으면, 사람을 상하게 하여 지루하게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는 무참히도 어버이를 잃은 상제로서 3년 동안 호구(虎口 일본에 잡혀가 있었던 일을 가리킴)에 있다가 만 리 큰 물결에 시달리며 중국에 와서, 혹시라도 살까 하여 피눈물로 고국에 돌아가기를 재촉하고 있음에 이겠습니까? 친상을 당하고 슬픔에 잠겨 몸이 뼈만 남아서 기혈이 잘 유통치 못하니 백병이 번갈아 일어남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그런즉 비록 좋은 약제의 신령스러운 효험도 돌아가는 말에 채찍질을 해서 마음의 병을 고치느니만 못할 것입니다.[91]

위 인용문은 6월 7일 徐宗師에게 사례하기 위해 쓴 글의 일부이다. 魯認은 5월

刻倍三秋, 更願閣下仁恕, 卽卽回送, 俾遂犬馬豺獺微誠, 千萬幸甚, 不勝激切屛營之至, 謹此以達."(『錦溪日記』 4월 14일)

91) "伏以命醫賜藥, 俾治賤疾, 連日服飮, 諸況少蘇, 銘感入骨, 不知所謝也. 凡人之病, 或少失眠食之溫冷, 或暫有思慮之沈憂, 足可以傷人, 支離乎吟呻, 況某以慘酷孤哀, 三年虎口, 萬里鯨波, 百生一死, 以血泣催歸乎? 柴毁骨立, 榮衛未流, 百病交發, 理之常也.……然則雖俊劑神效, 莫如早鞭歸騎, 以治方寸之病."(『錦溪日記』 6월 7일)

29일에도 다리 통증이 있고 부기가 있었으나 스스로 침을 놓아 통증이 덜했다고 기록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다리 통증이 6월 4일 심해지고 무릎 아래가 크게 붓게 되었다. 徐宗師의 도움으로 의원을 불러 치료하였으나 다음날까지 낫지 않아 크게 걱정하였다. 魯認은 "겁나는 마음이 더해서 눈물이 났다."고 기록했다. 그도 그럴 것이 5월 25일에 徐宗師로부터 초가을에 보내주겠다는 약조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다리가 아프니 혹여 다리의 병 때문에 고국에 돌아가지 못할 까 덜컥 겁이 났을 것이다. 그런데 6월 5일 徐宗師가 다시 의관을 불러 병을 낫게 해 주었다. 이에 魯認은 사례의 글을 쓴 것이다. 그러나 인용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魯認은 사례의 글에 자신이 병에 걸린 이유는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마음의 병으로 인한 것이라며 고국 귀환에 대한 마음을 절절히 서술하고 있다.

지금까지 Ⅱ장에서 나눈 『錦溪日記』의 서사단락을 토대로 『錦溪日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錦溪日記』는 지은이가 경험한 내용을 길이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었다. 이는 소설이나 傳이 전체적인 구성을 위해 특정 내용에 대한 길이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볼 때 일기체 실기문학인 『錦溪日記』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었다. 또 『錦溪日記』에는 간헐적으로 꿈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 꿈에 관한 언급은 길지 않으나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첫 번째 단락에는 일본으로 탈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꿈에 나와 별 탈 없이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로 인해 魯認은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대목은 「崔陟傳」에서 옥영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할 때 꿈에 등장한 丈六佛과 비슷한 양상으로 꿈을 꾸고 난 후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는 점이 공통점이었다.

두 번째 단락은 명나라로 향하는 배에서 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이었는데, 배안의 모든 사람이 뱃멀미를 할 때에도 魯認은 순풍이 불어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에 기뻐하였다. 또 큰 고래를 만났을 때에도 신기함에 대한 기록보다는 고래를 만났으니 육지에 거의 다 왔다는 뱃사람의 이야기에 흥겨워 시를 지었다. 세 번째 단락부터는 본격적인 중국에서의 여정이었다. 魯認은 문장력을 인정받아 중국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편안한 생활을 했으나 催歸文을 통해 고국 귀환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네 번째 단락은 학식을 인정받아 兩賢祠의 강학에 참여하게 된 내용이었다. 여기서 魯認은 중국의 제도나 학문에 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중국에 머무르게 된지 3달이 다 되 가도록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고국 귀환의지는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단락은 분량상으로는 중국 문물에 대한 기록이나 제도나 학문에 관한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魯

認의 고국 귀환의지가 앞의 단락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錦溪日記』는 일기체 실기문학으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길이의 제한이나 주제의 제한 없이 기록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제의 제한 없이 날짜순으로 기록하였기에 종종 전체적인 서사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작품 전반적으로 작자의 고국 귀환의지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스며있어 모든 내용이 간절한 고국 귀환의지를 가진 작자가 고국으로 귀환하기 위한 기이한 여정이라는 하나의 서사를 이루게 되었다.

2. 전기소설과「崔陟傳」

1) 전기소설의 일반적 특징과「崔陟傳」

전기소설의 일반적 특징에 관해서는 이 분야의 대표 연구자인 박희병의 논의[92]를 참고하여 개괄하면서「崔陟傳」에 드러난 전기소설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로 전기소설은 인물과 환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서술된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인물의 묘사에 관한 것과 환경 묘사에 관한 것 그리고 인물과 환경의 관련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먼저 인물의 경우 전기소설은 인물의 성격적 특질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전기소설은 수많은 시의 酬唱을통해 인물의 생각과 내면심리를 드러내면서 사건을 전개시켜 나간다. 전기소설은 인물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세계까지도 서술하고자 한다. 그래서 전기소설은 종종 시를 통해 인물의 생각과 심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일반서술을 통해서도 인물의 성격적 특질을 드러내고자 한다.「崔陟傳」에서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에 대한 특징이 간단히 서술되곤 한다.

> 어려서부터 품은 뜻이 컸고 친구 사귀기를 좋아했으며, 약속을 신중하게 하여 반드시 지켰고 자잘한 예의범절에 얽매이지 않았다.[93]

> 제가 집 떠나 떠돌아다니며 의탁할 곳 없는 외로운 신세니, 하나뿐인 딸은 부잣집에

92) 박희병,『韓國傳奇小說의 美學』, 돌베개, 1997.
93) "自少倜儻, 喜交遊, 重然諾, 不拘齪齪小節."(「崔陟傳」, 421쪽)

시집보내고 싶어요. 가난한 집 자식이라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딸을 주고 싶지 않네요.94)

제가 가만히 최생을 관찰해 보니, 날마다 외삼촌께 와서 공부를 하는데 사람됨이 진실하고 중후하며 정성스럽고 믿음직해서 결코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이 아니더군요. 제가 이 사람의 짝이 된다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아요. 더구나 가난은 선비에게 늘 있는 것이잖아요. 의롭지 못하면서 부유한 삶을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러니 제가 그 집에 시집갈 수 있게 해 주세요.…저는 시집가기를 청하면서 스스로 배필 고르는 일을 피하지 않으렵니다. 깊은 규방에 숨어 남의 입이나 바라보고 있다가 제 몸을 위태로운 지경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95)

첫 번째 인용문은 최척에 대해 작가가 서술한 부분이다. 품은 뜻이 크고 약속을 신중하게 여기는 최척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번째 인용문은 鄭生員이 옥영의 어머니인 심씨에게 최척과 혼사 이야기를 꺼내자 심씨가 한 말이다. 이 부분은 심씨의 현실적인 성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후에 심씨는 혼례 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최척 대신 이웃집 부자 양씨의 아들을 택하는데, 두 번째 인용문은 후에 심씨가 돌아오지 않는 가난한 최척 대신 부유한 집인 양씨의 아들을 택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인용문은 최척과의 혼인을 반대하는 어머니 심씨를 설득하기 위해 옥영이 한 말 중 일부이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가난한 사람에게 옥영을 시집보내고 싶지 않다는 심씨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옥영은 가난은 선비에게 늘 있는 것이라며 의롭지 못하면서 부유한 삶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또 혼사를 정하는데 스스로 배필을 고르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 또한 강하게 드러낸다. 옥영의 이 대사는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상을 드러남과 동시에 사랑과 의로움을 중요시하는 옥영의 성격도 드러난다.

전기소설은 인물이 놓인 시간적·공간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서술한다. 동시대에 창작된 「周生傳」이나 「韋敬天傳」에 비해 「崔陟傳」은 특히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

94) "我以盡室流離, 孤危無托, 只有一女, 欲嫁富人, 貧家子, 雖賢不願也."(「崔陟傳」, 425쪽)
95) "竊謂崔生, 日日來學於阿叔, 忠厚誠信, 決非輕薄宕子, 得此爲配, 死無恨矣. 況貧者, 士之常, 不義而富, 吾甚不願, 請決嫁之.…請嫁, 不避徐妹之自擇, 豈可隱匿深房, 但望人口而置之於相忘之地乎?"(「崔陟傳」, 426쪽)

제 주인댁은 본래 서울 숭례문 밖 청파리에 있었는데,…작년에 난리를 피해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나주 회진으로 왔고, 올 가을에 회진에서 이곳으로 옮겨 왔답니다.[96]

옥영이 남원에 오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春生이 최척에게 말한 대목이다. 옥영의 이 행로는 임진왜란 당시 실제 있을 수 있던 일로 현실적이며 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후 최척과 옥영의 혼사진행에 있어서도 9월에 혼례식을 올리기로 하였으나 최척이 돌아오지 않아 10월에 양씨아들과 혼례를 하기로 했었고, 옥영의 자살기도로 인해 결국은 11월에 최척과 혼례식을 올릴 수 있었다고 사건이 진행되는 날짜를 직접적으로 기술하고있다. 이처럼 「崔陟傳」에는 하나하나의 사건마자 시간과 공간적인 환경을 확실하게 기술되어 있다.

인물과 환경의 관련에 있어서 전기소설은 이 둘의 긴밀한 내적 연관을 보여준다. 환경에 대한 구체적 묘사는 인물의 성격적 특질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인물에 대한 구체적 묘사는 환경에 대한 묘사를 발전시킨다. 이 부분은 특히 옥영이 최척을 만나기 위해 杭州에서 배를 띄워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여인의 몸으로 직접 배를 띄워 고국으로 돌아가겠노라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옥영의 성격은 잘 드러나지만, 그 여정을 준비하는 대목이나, 여정 내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은 옥영의 활약을 돋보이게 한다.

최척을 찾기 위해 배를 구해 명나라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던 중 옥영은 명나라 경비선과 일본 배를 만나게 된다. 이 때 옥영은 명나라 배와 마주쳤을 때는 명나라 복장과 말로, 일본 배를 마주쳤을 때는 일본 복장과 말로 위기를 모면한다. 옥영은 출발 전 위와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각각 중국과 일본, 조선의 옷을 준비 했고, 일본에서 배를 타고 장사를 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한다. 이 상황은 옥영의 대범함과 재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전기소설의 두 번째 특징은 전기소설의 문체에 관한 것이다. 전기소설은 문식을 중시하기에 對句나 고사를 곧잘 구사한다. 고사의 인용은 특히 주인공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는 편지에 자주 인용 되는데, 「崔陟傳」에도 주인공들의 편지에 고사가 곧잘 인용되었다. 옥영이 최척에게 처음 보낸 쪽지에는 『詩經』「摽有梅」의 마지막 章이 적혀있었다. 편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옥영이 최척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詩經』「摽有梅」는 처녀가 나이 듦에 따라 짝을 구하는 마음이 급해짐을 읊은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 편지를 받은

96) "主家本在京城崇禮門外靑坡里,…上年避亂, 自江華乘船來, 泊于羅州 會津, 及秋自會津轉來于此."(「崔陟傳」, 422쪽)

최척의 심경을 작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최척은 마음과 혼이 훨훨 날아오르는 듯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이슥한 밤에 여인의 방에 뛰쳐 들어가 몰래 비연을 껴안듯이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내 뉘우치고 고려 때 김태현의 고사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경계하였다.[97]

최척은 밤에 옥영의 방으로 들어가 옥영을 몰래 껴안을까 생각했다가 金台鉉의 고사를 떠올리며 경계했다고 하였다. 金台鉉의 고사란 金台鉉이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글을 배우던 집 딸이 어느 날 金台鉉을 사모하는 마음을 읊은 시를 지어 창문 틈으로 던져 넣자 金台鉉은 그 후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는 것 이다. 일반적인 서술에도 이처럼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 이제 초나라 회왕이 陽臺에서 낮잠을 자다가 꿈에서 巫山의 여신을 만나고 西王母가 소식을 전해 왔으니, 두 집안이 서로 맺어져 우리 두 사람이 月下노인의 실로 엮인다면 삼생의 소원을 이루어 백년해로의 맹세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98]

옥영의 편지에 답한 최척의 편지 일부분이다. 이 부분에는 총 세 개의 고사가 있다. 첫 번째는 초나라 회왕의 고사로 회왕의 꿈에 무산이 신녀가 나타나서, 자기는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된다고 말한 뒤 잠자리를 함께 했다는 전설이다. 두 번째는 西王母 의 소식인데, 옥영이 여종을 보낸 일을 이르는 말로 西王母 는 崑崙山에 산다는 선녀를 말한다. 마지막은 월하노인의 실인데, 월하노인은 주머니 속에 붉은 실을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두 가닥을 묶어 각각의 실에 해당하는 남녀에게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神이다. 즉 최척은 세 개의 고사를 통해 옥영과 결혼하여 백년해로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전기소설 주인공의 미적 특질이다. 이 부분은 전기소설을 전반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전기소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애정전기소설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崔陟傳」의 앞부분은 특히 최척과 옥영의 애정을 중심으로 애정전기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그러므로 세 번째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崔陟傳」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폭넓어 질 것이다.

---

97) "陟心魂飛越, 不能定情, 思欲昏夜唐突以窃而抱, 旣而悔之, 以金台鉉之事自警."(「崔陟傳」, 422쪽)

98) "今者, 陽臺之雨, 忽然入夢, 王母之書, 遽爾來報. 倘成秦、晉之好, 以結月老之繩, 則庶遂三生之願, 不渝同穴之盟."(「崔陟傳」, 423쪽)

전기적 인간의 특질로 제일먼저 지적되는 것은 '고독감'이다. 전기적 인간은 외로운 존재이기에 '스스로' 짝을 찾아 나서게 되고, 적당한 대상을 만나면 자신의 전존재, 자신의 영혼을 쉽사리 그 대상에게 허락하게 된다. 전기의 주인공들이 단 한 번의 해후, 혹은 단 한 번의 눈 맞춤으로 서로 깊은 사랑에 빠져들게 되는 것도 이와 관련 된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사랑은 전쟁, 난리, 부모의 반대, 신분제도를 비롯한 중세적인 제 기반 등에 의해 장애를 받게 되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남녀 주인공은 헤어지거나, 헤어진 채 그리움 속에 앓다가 죽거나, 세상을 벗어나 이리저리 배회하거나, 죽은 상대를 못내 잊지 못하다가 요절하는 등의 비극적 결말을 맞는 게 보통이다.

「崔陟傳」의 경우 비극적결말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짝을 찾아 나서고 전쟁과 부모의 반대로 인해 혼사장애를 겪게 되자 죽음을 불사하는 옥영의 모습에서 전기적 인간의 고독감을 볼 수 있다.

> 최생이 의병으로 나가 의병장의 통제를 받고 있기에 소식이 끊어진 것이지 일부러 혼약을 저버린 게 아니건만, 그분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약속을 깨 버리다니 어찌 이리도 의롭지 못할 수 있단 말인가요? 만약 제 뜻을 꺾으려 하신다면 죽을지언정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왜 이리 제 마음을 몰라 주시나요![99]

최척이 약속한 혼례날에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자 대신 양씨의 아들과 혼인시키려는 심씨에게 옥영이 하소연하면 한 말이다. 옥영은 어머니에게 의롭지 못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뜻을 꺾는 다면 죽을지언정 다른 곳으로 시집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실제로 옥영은 어머니가 양씨와의 결혼을 추진하자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 이 대목은 옥영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처음 최척에게 편지를 보내어 마음을 전달한 부분에서도 드러나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옥영의 성격은 최척과의 혼사를 반대하는 어머니 심씨를 설득하는 과정에도 잘 드러난다. 그리고 이 대목에 와서는 특히 자신의 짝인 최척과의 사랑을 쟁취하려는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이 더욱 드러난다.

최척의 경우에도 혼례 날에 돌아갈 수 없게 된데다 옥영의 자살기도 사실까지 전해 듣고 시름시름 앓아 결국은 의병장이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최척은 집에 돌아오자 앓던 병이 싹 나아 옥영과 혼례를 올렸다. 이는 최척의 병이 옥영에 대한 사

99) "崔從義陣, 行止係於主將, 非故負約, 而不俟其言, 徑自破約, 不義孰甚? 若奪兒志, 之死靡他. 母也天只, 不諒人只."(「崔陟傳」, 427~428쪽)

랑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전기적 인간의 또 다른 미적 특질은 '소극성'이다. 전기적 인간은 종종 소심한 면모와 나약한 인간상을 보여준다. 이 소극성은 대개 사랑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갖는다. 특히 애정전기의 남자주인공은 결연과정에서 보여주던 박력과 추진력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다. 사랑의 지속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에 대해 전기적 인간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은 장애요인이 갖는 힘이 그만큼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급작스러운 전쟁의 발발에 의한 이별 등의 현실에서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다. 이 점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崔陟傳」에서도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주인공 남녀는 전쟁으로 인해 이별하게 되는데, 최척은 혹시라는 희망을 가지고 옥영과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거나 찾으러 떠날 생각을 하기보다 절망에 빠져 명나라 장수를 따라 중국으로 망명하게 된다. 전쟁이라는 큰 장애 앞에 최척의 소극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전기적 인간의 마지막 특질은 강한 '문예취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애정전기의 남녀 주인공은 시나 사, 서신을 교환하면서 문예취향을 공유함으로써 깊은 정신적 유대와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들은 문예에 대해 동일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며, 시나 사의 수창에서 크나큰 기쁨을 느낀다. 이런 동일한 문예취향은 그들의 애정을 더욱 돈독히 해준다.

> 왕자교 퉁소 불 제 달은 나지막하고
>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 봉래산 안개 속에서도 길 잃지 않으리.
>
> 아스라한 요대에 새벽 구름 붉은데
> 퉁소 소리 울려 퍼져 곡조 아직 안 끝났네.
> 여운은 하늘에 가득하고 산 위로 달 질 적에
> 뜨락의 꽃 그림자 향기로운 바람에 흔들리네.[100]

「崔陟傳」에서 주인공 남녀가 주고 받은 시는 위 인용문이 유일하다. 첫 번째 시는 옥영이 최척의 퉁소 소리에 감복하여 지은 것이고, 두 번째 시는 최척이 옥영의

100) "王子吹簫月欲低, 碧天如海露淒淒. 會須共御靑鸞去, 蓬島烟霞路不迷.", "瑤臺縹緲曉雲紅, 吹徹鸞簫曲未終. 餘響滿空山月落, 一庭花影動香風."(「崔陟傳」, 429~430쪽)

뛰어난 시 재주에 놀라며 화답한 것이다. 최척과 옥영은 시로써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날 이후 서로를 知音으로 여기며 더욱 돈독해졌다. 「崔陟傳」의 남녀 주인공이 공통된 문예취향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돈독해짐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2) 다채로운 국외 체험과 전기소설 형식의 변모

앞서 서론에서 언급 하였듯이 「崔陟傳」은 애정전기소설이라는 한 장르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다. 「崔陟傳」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최척과 옥영의 로맨스는 한편의 애정전기소설로 보기에 충분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며 시작되는 뒷부분의 서사는 애정전기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당대에 유행하던 애정전기소설의 양식에 전쟁의 양상이 깊게 관여되다 보니 발생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에 여기서는 Ⅱ장에서 분석한 「崔陟傳」의 내용을 토대로 전쟁이 작품에 깊게 개입되면서 발생한 특징을 살펴 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애정전기소설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은 남녀 주인공이다. 그 외의 인물은 큰 비중 없이 그저 주변인물로 다뤄지기 마련이다. 「崔陟傳」 역시 초반에는 최척과 옥영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듯하다. 그러나 정유재란으로 인해 가족이 흩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확대되게 된다. 정유재란은 포로문제가 심각하던 시기이다. 역사적 사건과 맞물려 최척은 余有文을 따라 명나라로 옥영은 頓于라는 일본인에게 잡혀 나고야에서 포로생활을 하게 된다. 정유재란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공간은 중국과 일본으로 넓어진 것이다.

이렇게 공간이 확대되다보니 남녀 주인공 뿐 아니라 주변인물에까지 이야기가 확대되게 된다. 이에 작자는 주변인물의 성격이나 행적에 관해 묘사하기도 한다. 작자는 주변인물에 관한 서술을 통해 각각 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모습을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먼저 조선 사람에 관한 서술로 대표적인 것은 최척의 아버지인 최숙과 옥영의 어머니 심씨의 행적에 관한 것과 최척과 몽석이 포로 생활시 만난 삭주 토병에 관한 것이다.

> 왜적은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소홀히 했다. 두 사람은 왜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왜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 燕谷사에 이르렀다. 그런데 燕谷사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심씨가 울며 최숙에게 말했다.

"어떤 아이 울음소리기에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을까요?"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었다.101)

최척 일가가 왜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 최척의 부친인 최숙과 옥영의 어머니 심씨가 탈출하여 몽석을 다시 만나게 된 장면이다. 남녀 주인공에만 집중하였다면, 이 장면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최척의 아버지와 옥영의 어머니는 왜적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하여 燕谷사에 있던 몽석을 찾을 수 있었다고 간단하게 기록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작자는 최숙과 심씨의 탈출 과정과 몽석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그 때 당시 일본이 포로로 잡아가고자 하였던 것은 젊은 사람들 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함과 동시에, 포로로 잡혀 일본으로 가기 전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최숙과 심씨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102)

나도 본래는 삭주에서 병사로 있었다. 고을 부사의 가렴주구가 너무 괴로워 온 가족이 오랑캐 땅에 들어와 산 지 벌써 10년이다. 와 보니 이곳 사람들은 성품이 정직하고 가렴주구도 일삼지 않더라. 인생이란 아침 이슬처럼 덧없는 것인데, 벼슬아치들의 매질에 시달리며 움츠리고 살 이유가 뭐있겠나?103)

최척과 몽석이 후금의 부대에 포로로 잡혀있을 때 최척과 몽석의 사연을 듣고 탈출을 도와준 노인의 이야기이다. 이 노인은 본래 삭주, 즉 평안북도 서북부에 있는 고을에서 병사로 있던 사람인데 고을 관리의 가렴주구가 너무 심해 온 가족을 데리고 중국으로 망명 온 사람이다. 이 노인은 그 당시 관리들의 가렴주구로 인해 서민들이 얼마나 괴로웠는가 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 작품의 전체

101) "賊以陟之父與姑老病, 不甚看護. 二人伺賊怠, 潛逸于蘆中, 賊去, 行乞村閭, 轉入燕谷寺, 聞僧房有孩兒啼哭之聲. 沈氏泣謂崔淑曰: '是何兒之聲, 一似吾兒也?' 淑遽推戶視之, 果夢釋也."(「崔陟傳」, 432쪽)

102) 일본인들이 젊은이를 포로로 잡아갔다는 내용은 앞서 최척이 지리산 燕谷으로 돌아왔을 때 남아있던 노인 몇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賊兵入山三日, 奪掠財貨, 芟刈人民, 盡驅子女, 昨已退屯蟾江, 欲求一家, 問諸水濱."(「崔陟傳」, 431쪽)

103) "我亦朔州土兵也. 以府使侵虐無厭, 不勝其苦, 擧家入胡, 已經十年. 胡人性直, 且無苛政. 人生如朝露, 何必局束於捶楚鄕乎?"(「崔陟傳」, 440쪽)

적인 면에서 보면 최척과 몽석이 갇혀있던 옥을 감시하였던 사람이 예전 조선 사람이었기에 최척과 몽석은 탈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 사람을 대변하는 인물은 頓于이다. 최숙과 심씨가 몽석과 다시 만났을 때 옥영은 왜적 頓于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는데, 작자는 頓于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 頓于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왜장 소서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하였다.…頓于는 퍽 가련히 여겨 옥영에게 '사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갈 때 마다 항해장 일을 맡겨 중국의 복건성과 浙江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다.[104]

頓于는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고, 옥영에게 沙于라는 이름을 붙여 줄 만큼 옥영을 아꼈다. 실기에는 포로로 끌려가던 조선인들이 종종 마음씨 좋은 일본인을 만나 밥을 얻어먹었거나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頓于에 대한 성격묘사는 이런 의리 있는 일본인을 대변하는 것이다. 頓于가 이런 자였기 때문에 후에 베트남에서 최척과 옥영이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옥영의 몸값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은 10냥을 주며 몸조심하라고 보내주는 모습은 자연스럽다. 그렇기에 頓于의 성격에 대한 간략한 묘사는 일본인이 모두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후에 최척과 옥영의 재결합이 순조로울 수 있는 요소가 되는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중국인에 관한 서술은 홍도와 홍도 아버지인 陳偉慶에 관한 것이다. 홍도는 최척과 옥영의 재결합 이후 등장하는 인물로 최척과 옥영의 둘째아들인 몽선의 처가 되는 여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홍도의 사연에 관해 서술한 대목이다.

> 이웃 진씨 집에 딸이 있었는데, 이름을 홍도라고 했다. 부친인 陳偉慶은 홍도가 태어나 돌이 되기 전에 유총병의 군대에 들어가 조선으로 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다.…홍도는 이모 집에서 자라며, 아버지가 이역 땅에서 돌아가셔서 얼굴 한번 뵙지 못한 것을 늘 애달파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라에 꼭 한번 가서 초혼하고 왔으면 하여 밤낮으로 한이 가슴에 사무쳤으나, 여자의 몸으로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105]

---

104) "頓于老倭卒, 不殺生, 慈悲念佛, 以商販爲業, 習御舟楫, 倭將行長, 以爲船主而來.…頓于尤憐之, 名之曰沙于, 每乘船行販, 以火長置舟中, 往來于閩浙之間."(「崔陟傳」, 432・433쪽)

105) "隣有陳家女, 名曰紅桃, 生未晬, 其父偉慶, 隨劉摠兵東往不還…紅桃養於其姨家, 常痛其父歿於異域, 而生不知其面目也, 願一至父死之國, 復哭而來, 耿耿寃恨銘于心腑, 而身爲女子, 計不知所

홍도의 아버지인 陳偉慶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으로 출병하여 돌아오지 않았기에 홍도는 아버지의 생사는 물론 얼굴조차 뵙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조선으로 가서 유골이라도 수습하고자했지만 여자의 몸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도중 몽선이 아내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몽선과 결혼하면 조선으로 가서 어버지의 유골이라도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며느리가 되기를 자처한다. 옥영 또한 홍도의 이런 사연을 듣고 감동하여 며느리로 맞이한다. 작자는 홍도에 관해 비중을 두고 언급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해 아픔을 겪은 것은 우리민족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참전국인 중국의 민족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임진왜란으로 인해 가족의 이산이라는 아픔을 겪은 것이다.

> 제 성은 진이고 이름은 위경입니다. 집은 杭州 湧金門 안에 있습니다. 만력 25년(1597)에 유제독의 군대에 들어가 순천에 오게 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적진의 형세를 정탐하다가 장군의 뜻을 거슬러 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야밤에 몰래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106)

> 저는 대구에서 박씨 성을 가진 사람 집에 머물다가 노파 한 사람을 만나 침술을 배우고는 그것으로 호구지책을 삼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대의 말씀을 들으니 고향에 온 듯한 기분이군요. 이곳에 방을 하나 빌려 살았으면 싶습니다.107)

위 인용문은 陳偉慶의 말이다. 최척은 몽석과 함께 후금의 부대를 탈출하여 최숙과 심씨가 있는 고향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등창이 났으나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독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는데 마친 도피생활 중이던 중국인 하나가 최척을 보고 침으로 치료해 주게 된다. 최척 부자는 중국인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집으로 그 중국인을 데려오게 되는데, 그 중국인이 바로 홍도의 아버지인 陳偉慶이었던 것이다. 첫 번째 인용문은 중국인 병사 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 조선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두 번째 인용문은 陳偉慶이 조선에 남아서 침술을 배우게 된 경위를 간략히 서술한 것이다. 처음 홍도의 사연을 언급하면서 陳偉慶이 침술에 능하였다는 서술은

出."(「崔陟傳」, 437쪽)

106) "我姓陳, 名偉慶, 家在杭州 湧金門內. 萬曆二十五年, 從軍於劉提督, 來陣于順天. 一日, 以偵探賊勢, 忤主將旨, 將用軍法, 夜半潛逃, 仍留至此."(「崔陟傳」, 441쪽)

107) "我托於大丘地朴姓人家, 得一老婆, 而自以鍼術糊口. 今聞子言, 如在鄕里, 吾欲移寓隙地."(「崔陟傳」, 442쪽)

나오지 않았고, 그 부분에서 필요한 서술도 아니었다. 그러나 최척 부자와 陳偉慶과의 인연이 이루어 진 것은 陳偉慶이 최척의 등창을 치료해 주면서였다. 최척의 등창을 치료해준 중국인이 최척의 사돈인 陳偉慶이었던 것이다.

「崔陟傳」은 작품 전체에 걸쳐 이와 같은 면이 발견된다. 이런 요소들은 때로는 인물로 때로는 사건이나 배경으로 모두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작품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 준다. 인물에 관한 면은 지금까지 예로 든 인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최척과 몽석을 도와준 노인은 삭주 토병이었다. 그래서 노인은 최척과 몽석의 말을 듣고 사연을 알 수 있었고 탈출을 도와주었다. 옥영을 데리고 있던 頓于는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신자였다. 그래서 옥영은 목숨을 부지 할 수 있었다. 또 頓于의 이런 성품은 베트남에서 최척과 옥영이 다시 만났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오히려 돈을 주며 옥영과 최척의 재회를 기뻐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해준다. 陳偉慶은 홍도의 아버지로 정유재란에 조선에 파병되어 왔다가 군에서 도망 나와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됐고, 침술을 배워 호구지책으로 삼았었다. 그런데 그 침술로 인해 최척 부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좀 더 세세한 부분에까지 예를 들자면 宋佑라는 사람도 있다. 宋佑는 杭州 湧金門에서 살던 사람으로 최척과 가까운 사이였다. 余有文이 죽고 최척이 의탁할 곳이 없어 신선이 되는 술법을 배우리라 마음먹었을 때 최척을 설득하여 함께 길을 떠난 사람이다.

작품 전체로 보면 큰 비중 없는 宋佑는 두 가지의 면에서 작품의 구성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다. 첫 번째는 최척과 옥영의 재회에 관해서 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척은 余有文이 죽자 의탁할 곳이 없어져 속세를 떠나고자 결심했다. 그런데 지기였던 宋佑의 설득으로 인해 길을 떠났고, 경자년(1600) 宋佑를 따라 한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베트남에 장사를 하러 갔다 옥영과 재회 할 수 있었다. 만약 宋佑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최척은 술법을 배우러 떠났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옥영과의 재회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홍도를 며느리로 들이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물론 홍도가 몽선의 처로 최척과 옥영의 며느리가 된 이유는 홍도의 사연 덕분일 것이다. 그 전에 필자가 주목한 것은 杭州 湧金門이라는 곳이다. 이곳은 최척의 부부가 재회하는데 일조했던 宋佑가 살던 곳이다. 최척 부부는 재회한 후 宋佑의 집에서 방을 얻어 살게 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최척은 余有文이 죽게 되자 마땅히 몸을 의탁할 곳이 없었으므로 宋佑집에서 옥영과 다시 시작한 것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몽선을 낳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며느리를 찾았는데 그 곳에는 최척과 옥영처럼 전쟁으

로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홍도가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처럼 「崔陟傳」의 인물과 배경은 아무렇지 않은 듯 간략하게 서술한 것 하나하나도 작품의 틀 안에 꼭 맞게 배치되어있다.

인물 이외의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게 이런 면이 등장하는 것은 최척의 퉁소소리와 그에 답하여 옥영이 읊은 시로 인한 재회 장면 일 것이다. 이 부분은 작품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적이고 로맨틱한 부분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시와 함께 묘사된 그 때 당시의 풍경에 관한 것이다.

> 최척은 본래 퉁소를 잘 불었다. 그래서 달이 뜬 밤이나 꽃이 화사한 아침이면 달과 꽃을 마주하여 퉁소를 불곤 하였다. 때는 늦봄인 데다 맑은 밤이었다. 산들바람이 건듯 불고 새하얀 달빛은 환한데, 꽃잎이 흩날려 옷을 때리고 은은한 향기가 코를 스쳤다.[108]

> 경자년(1600) 봄이었다.…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이튿날이 되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최척의 퉁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했다.[109]

> 왕자교 퉁소 불 제 달은 나지막하고
>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 봉래산 안개 속에서도 길 잃지 않으리.[110]

첫 번째 인용문은 처음 최척이 퉁소를 불었을 때의 풍경이다. 최척은 본래 퉁소를 잘 불었으며 달이 뜬 밤이나 꽃이 화사한 아침이면 퉁소를 불곤 하였다고 했다. 계절적인 배경은 맑은 늦봄의 밤이었다. 계절적인 배경과 풍경은 최척이 베트남의 배 안에서 퉁소를 불 때와 매우 흡사하다. 두 번째 인용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 경자년 봄에 옥영와 최척은 같은 포구에 머물러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척이 퉁소를

108) "陟素善吹簫, 每月夕花朝, 相對而吹. 時當暮春, 淸夜將半, 微風乍動, 素月揚輝, 飛花撲衣, 暗香侵鼻."(「崔陟傳」, 429쪽)
109) "歲庚子春,…留十餘日, 因値四月旁死魄, 天無寸雲, 水光如練, 風息波恬, 聲沈影絶,…時海天慘色, 雲烟變態."(「崔陟傳」, 434쪽)
110) "王子吹簫月欲低, 碧天如海露淒淒. 會須共御靑鸞去, 蓬島烟霞路不迷."(「崔陟傳」, 429・435쪽)

분 것은 열흘이 넘게 흘러 4월 초이튿날 즉 늦봄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밤이었다. 처음 최척과 옥영이 서로를 지음이라 여긴 날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왕자교 퉁소 불제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다"는 시의 내용은 최척과 옥영이 서로를 확인하고 재회하는 그 날의 풍경과 아주 흡사하다. 그렇기에 이 시는 최척과 옥영의 재회에 큰 공헌을 함은 틀림없거니와 동시에 두 남녀가 다시 만나는 그 날을 예견한 복선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예로 「崔陟傳」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았다. 「崔陟傳」은 당대 유행하던 애정전기라는 소설양식에 전쟁의 양상이 작품에 깊게 관여하면서 남녀 주인공의 국외 체험 여정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남녀 주인공의 국외 체험으로 인해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전쟁의 다양한 측면을 남녀 주인공만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터 주변인물에 대한 비중이 커졌다. 등장하는 주변인물은 그저 스쳐지나가는 역할에서 나아가 전쟁의 한 단면을 표현하기도 했다. 「崔陟傳」은 이렇게 다양한 인물의 묘사를 통해 남녀 주인공 둘만이 중심이 되는 서사에서 발전하여 전쟁이 가족과 주변국가의 민족에게 끼친 영향까지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작품을 이끌어가는 중심에는 최척과 옥영이라는 남녀 주인공이 있다. 작품 속에서 남녀 주인공의 만남과 재회를 가능하게 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는 역할은 등장하는 주변인물과 배경의 묘사로, 주변인물의 성격 묘사와 풍경의 묘사 등은 남녀 주인공의 재회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 옥영이 읊었던 시는 훗날 최척과 옥영이 극적으로 만나는 베트남에서의 풍경을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하고 있다. 「崔陟傳」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인물이나 배경적인 요소들이 서로 들뜨지 않고 한데 어우러져 작품을 더 빛낸다는 점이다. 주인공뿐 아니라 주변인물의 성격이나 풍경의 묘사 하나하나가 작품에 중요하게 작용함으로써 남녀 주인공 나아가 그 가족에게 있었던 이 기이한 사연이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있을 법한 이야기가 되어 독자에게 감동을 준다.

3. 傳과 「趙完璧傳」

1) 傳의 일반적 특징과 「趙完璧傳」

傳[111]은 사람의 일생을 다룬 문학으로 입전인물의 일생의 사건 중 특수한 에피소

드를 나열하여 입전인물을 褒貶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傳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기본적 논의는 박희병의 논의를 중심으로 개괄하며 작품을 살펴보려 한다.[112] 전의 입전인물은 주로 충의·효자·열녀 등이다. 이러한 입전인물의 특성은 전의 인물 포폄이라는 목적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전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인물이나,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 사람 혹은 정절을 지킨 아녀자와 같은 인물을 표창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전은 입전인물의 가계·신분·성명·거주지 등에 대한 서술인 인정기술과 입전인물의 행적을 기록한 행적부, 작자의 논평이 이루어지는 논찬까지 3단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조완벽은 진주 사족이다. 장령 하진보의 조카손녀 사위이다.[113]

> 조완벽은 진주 선비이다.[114]

첫 번째 인용문은 본고에서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사신의 「趙完璧傳」이고 두 번째 인용문은 이수광의 「趙完璧傳」이다. 인용문은 두 작품에 기술된 조완벽에 대한 인정기술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짧게 기록되어있다. 전은 그 본령이 실존인물의 삶을 사실적으로 전하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기술 부분이 대단히 중시된다. 혹 입전인물의 가계나 성명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不知何許人"이라는 말이라도 하는 것이 통례이다. 정사신의 「趙完璧傳」과 이수광의 「趙完璧傳」을 통해 보면 조완벽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짧게나마 인정기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전의 행적부는 인물의 성격이나 재능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를 한둘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례는 그것이 입전인물의 인간성을 잘 드러내 주기만 한다면 사소한 일화라도 관계없다. 행적부를 통해 입전인물의 인간적 가치와 미덕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확인 작업은 전의 기본 목적인 포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은 인간의 선행이나 미덕을 표창하고 악행을 貶懲하여 그것을 전하려

---

111) 전은 史書 속의 열전, 개인문집 속에 실려 있는 실존인물의 전인 私傳, 托傳, 假傳으로 분류할 수 있다. 「趙完璧傳」은 이 중 私傳에 속한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 다룰 전의 일반적 특징은 私傳의 일반적 특징을 말한다.

112)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1.

113) "趙完璧者, 晉州士族也. 故掌令河晉寶之姪孫女壻也."(정사신, 「趙完璧傳」, 498쪽)

114) "趙生完璧者, 晉州士人也."(이수광, 「趙完璧傳」, 252쪽)

는 것을 장르적 책무로 삼는다. 악행을 폄징하는 전보다는 선행을 표창하는 전이 일반적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전에서는 입전인물만을 일반적으로 부각 시킨다는 특성이 있다. 입전인물 이외의 인물은 보조적인 역할을 맡을 뿐이다.

「趙完璧傳」의 행정부는 인물의 성격이나 재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 보다는 조완벽이 겪은 여정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그렇기에 전의 기본적인 특징 중 행적부에서 입전인물의 인간적 가치와 미덕을 확인하거나 악행을 폄징하기 위한 에피소드는 「趙完璧傳」에서 찾기 어렵다.

전은 '인물을 표창하여 후세에 전한다'는 인물포폄 목적과 관련하여 '규범의식'과 '연민의 감정'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드러난다. 앞서 제시한 충·효·열 등의 규범적 이념은 유가의 것으로 우리나라 중세에 보편화 되어있던 규범의식이다. 전은 다른 장르에 비해 유별난 규범의식을 보여주기에 장르의 일반적 특성으로 이야기될 만하다. 마지막으로 연민의 감정은 특히 뛰어난 재주나 덕성을 지녔으면서도 그 신분적 미천함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역사에 인멸될 처지에 있거나, 逸士로서 높은 뜻을 품었으면서도 그것을 실현해 보지 못한 채 불우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인물들의 전에서 두드러진다.

이 두 부분에 관련해서도 「趙完璧傳」은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조완벽의 이야기는 충·효·열등의 유교적인 규범의식을 보여주지도, 뛰어난 재주나 덕성을 지녔으면서도 신분이 미천하여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역사에 인멸될 처지에 있거나, 逸士로서 높은 뜻을 품었으면서도 그것을 실현해 보지 못한 채 불우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사람의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에 행적부에서 「趙完璧傳」은 전의 기본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는 작품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논찬의 부분에서는 정사신의 「趙完璧傳」과 이수광의 「趙完璧傳」이 차이를 보인다.

> 무릇 안남과 우리나라는 수만 리나 떨어져 있어 옛날부터 통행이 없었는데, 하물며 바닷길로는 얼마나 멀겠는가? 생이 동쪽 끝에서 남쪽으로 바람과 파도가 험난함을 무릅쓰고 오랑캐의 지방까지 갔다가 만사일생으로 무사히 돌아왔으니 이는 과거에 일찍이 없던 일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신을 말하고 독경을 행하면 오랑캐 땅이라도 다닐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진실로 생은 이 말씀에 거의 가까운 자라고 할 것이다. 또 생의 이름이 완벽(完璧)이니, 어찌 그 이름을 저버린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115)

115) "夫安南, 去我國累萬里, 自古不通, 況海道之窵遠乎? 生由東極抵交南, 歷風濤之險, 行蠻貊之鄕, 冒萬死得一生, 以至全還, 乃前古所未有者也. 孔子曰: '言忠信行篤敬, 雖蠻貊之邦行矣.' 若生

위 인용문은 이수광의 「趙完璧傳」에 논찬 부분이다. 이수광은 조완벽에게서 충신과 독경의 의미를 읽어내고 있다. 정사신의 「趙完璧傳」에는 전 을 지을 당시 조완벽이 잘 살고 있었다는 작자의 후일담이 있을 뿐 논찬은 있지 않다.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趙完璧傳」에 나타난 전의 면모를 확인해 보면, 서두에 "조완벽은 진주의 사족이다"는 인정기술 부분을 볼 수 있다. 그 외의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전의 특징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趙完璧傳」은 여전히 전의 한 작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전의 성격에 변화에 있다. 이 내용은 2) 국외 체험으로 인한 사건 중심의 서술에서 확인해보려 한다.

2) 국외 체험으로 인한 사건 중심의 서술

여기서는 임진왜란 이후 나타난 傳의 변모와 「趙完璧傳」이 가진 특징을 살펴 볼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傳의 변모양상은 박희병의 논의를 중심으로 개괄 할 것이다.[116] 임진왜란 이후인 조선후기에 傳은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그 중 하나는 입전인물의 다양화이다. 앞에서 살폈듯이 입전대상은 주로 충신이나 열사 혹은 일사, 효자, 열녀 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지배층에 속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전의 입전인물은 전 시대에 비해 한층 다양해졌다. 충신, 열사, 일사, 효자 등이 계속해서 전의 대상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와 함께 신선, 유협, 거지, 농민, 예술가, 妓女 등이 입전대상으로 등장하였다. 조선후기의 전은 여러 인간형을 대상으로 입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신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층이 소개됨을 알 수 있다.

> 조완벽은 진주 사족이다. 장령 하진보의 조카손녀 사위이다.[117]

인용문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정사신 「趙完璧傳」의 인정기술 부분이다. 진주 사족이라고만 간략히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완벽이 평범한 선비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정사신의 「趙完璧傳」 말미에는 "김윤안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조완벽처럼 지배층 출신의 인물이 아닌 경우 입전에 필요한 문헌

者庶幾近之矣. 且生名爲完璧, 抑可謂不負其名者歟."(이수광, 「趙完璧傳」, 254쪽)

116)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1.

117) "趙完璧者, 晉州士族也. 故掌令河晉寶之姪孫女壻也."(정사신, 「趙完璧傳」, 498쪽)

자료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히 口傳되는 이야기나 전해들은 말에 의존하여 입전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설화가 전에 수용되기도 하고 허구적 상상력이 개입되기도 하며 흥미위주로 내용이 윤색되고 부연되는 일이 종종 일어났으며 서술형식상 유기적 유형을 취하는 전이 대거 나타나게 되었다. 전의 유기적 유형이란 전을 서술형식상으로 분류한 것 중 하나로 작품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118] 특히 정사신의 「趙完璧傳」은 유기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Ⅱ장에서 다루었던 정사신의 「趙完璧傳」을 간략히 요약해 확인하고자 한다.

진주 선비 조완벽이 정유재란에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 일본 상인이었던 주인과 계약을 맺고 安南으로 향하게 된다. 항해를 맡은 浙江사람은 배를 모는 솜씨가 뛰어났다. 조완벽은 항해 과정에서 큰 고래나 大龍을 만나기도 하고, 여자귀신을 보기도 했다. 安南에 도착하니 사람들은 머리를 풀고 맨발로 다니고 있었다. 가는 곳마다 이수광의 시를 읊고 있었으며, 조완벽이 조선 사람인 것을 알면 이수광을 알고 있는지 묻곤 했다. 조완벽은 安南에 머물러 있다 중국을 통해 조선으로 돌아가라는 제안을 받지만 安南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고 생각해 거절한다. 그 이후 일본인 주인이 조완벽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安南에 두 번 더 다녀온 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趙完璧傳」에는 조완벽의 인물됨이나 성격에 관한 이야기보다 조완벽이 安南으로 가면서 경험한 기이한 일들, 安南에서 본 그 곳 사람들에 관한 것이나 풍경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이야기는 시간의 순서에 맞추어 하나의 서사를 이루고 있다. 유기적 유형의 전이 하나의 서사를 이루고 있는 전을 지칭하는 바 「趙完璧傳」은 유기적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 조완벽에 관한 내용보다 조완벽이 安南을 다녀오면서 겪은 일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뤘다는 점은 인물보다 사건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이다.

「趙完璧傳」이 사건 중심으로 서술된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조완벽이 겪은 국외체험 때문이다. 「趙完璧傳」이 입전된 것은 조완벽이 安南을 오고가며 겪은 기이한 일을 기록하여 남기고자 함이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나타나는 전의 변모 중 하

118) 전을 서술형식상 분류하면 의론적 유형·삽화적 유형·유기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의론적 유형은 전의 내용이 서사보다 의론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작품이다. 삽화적 유형은 전의 서술형식 중 가장 흔한 것으로 몇 개의 삽화를 나열함으로써 입전인물의 인간상과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1, 40~48쪽 참조)

나로 입전의 주요한 동기로 흥미추구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임진왜란 이전의 입전 동기는 주로 충이나 효와 같은 교훈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전에서는 교훈적인 면보다 개인의 독특한 경험에서 느낄 수 있는 흥미를 강조하거나 놀랍고 재미있는 소재에 관심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처럼 호기심이나 흥미추구가 전의 서술 동기로 등장하면서 입전대상은 다양해졌다. 도덕적 규범에 부합되는 인물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인간이 전의 입전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입전인물의 다양화와 흥미추구라는 전의 동기는 임진왜란 이후 전의 변모에 상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趙完璧傳」과 관련된 임진왜란 이후 전의 변모양상을 살펴보았다. 임진왜란 이후 입전인물은 지배층뿐 아니라 하층민에게까지 다양화되었다. 하층민은 지배층에 비해 정보를 얻기 어려웠으므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하여 입전되었다. 조완벽 또한 평범한 진주 사족이었다. 그러므로 작가는 조완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사신의 「趙完璧傳」 말미에는 김윤안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있어 조완벽을 입전할 수 있던 경로를 말해주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유기적 유형의 전이 증대하였다. 대부분 전은 인물의 포폄을 위한 하나하나의 삽화가 나열되어 이루어진 삽화적 유형이다. 유기적 유형 전이 증대하였다고 해도 삽화적 유형 전의 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대에 비해 작품 전체가 하나의 서사를 이루는 유기적 유형의 전이 많아졌다. 「趙完璧傳」은 이런 유기적 유형에 속하는 작품으로 조완벽이 정유재란에 일본 포로로 끌려가서 상인이었던 일본 주인과 함께 安南을 오고가면서 생긴 신기한 일을 하나의 서사로 서술하였다.

또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난 전의 변모 중 하나로 흥미추구라는 입전동기를 들 수 있다. 흥미추구라는 입전 동기는 입전 인물을 보다 다양하게 하였는데, 입전 인물이 규범적으로 교훈을 줄만한 인물이 아니어도 입전하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이 입전 대상이 될 수 있었다. 「趙完璧傳」은 평범한 진주 사족인 조완벽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내용은 조완벽이 겪은 安南여정에 관련된 일이다. 「趙完璧傳」은 작품 전반적으로 조완벽이라는 인물보다 그가 겪은 일인 安南 항해 여정과 安南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교훈보다 조완벽이 겪은 기이한 일에 대한 흥미로움에서 입전했음을 알 수 있다.

Ⅳ. 서술방식 비교

『錦溪日記』·「崔陟傳」·「趙完璧傳」의 주인공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 그리고 安南을 경험했다. 그들은 서로 비슷한 여정을 체험했지만 각기 다른 서술방식으로 기록되었다. 『錦溪日記』는 일기체 실기문학으로 서술자는 작자이며 작품의 주인공과 일치한다. 그에 비해 「崔陟傳」은 말미에 최척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라고 서술하고 있고, 정사신의 「趙完璧傳」 또한 말미에 김윤안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라고 서술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서술자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입장인 것이다. 작자의 이런 입장은 작품의 시점이 달라지는 요인이 된다. Ⅳ장 1절에서는 각 작품의 시점이 다름으로 인해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할 것이다.

2절에서는 대상 작품의 시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錦溪日記』는 일기체 실기문학 이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 이에 비해 「崔陟傳」은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지만, 최척의 시간을 서술하다 옥영의 시간을 서술하는 등 시간 역전 현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사신의 「趙完璧傳」은 기존의 전과 달리 하나의 이야기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있다.

시점과 시간은 서술자의 입장 차이로 인한 작품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시점과 시간을 중심으로 세 작품의 서술방식을 비교하려 한다. 작품의 서술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각 작품이 장르 안에서 가지는 특성과 더불어 국외 체험으로 인해 작품이 가진 서술방식의 특징도 드러날 것으로 기대해 본다.

1. 시점

1) 『錦溪日記』의 1인칭 주인공·관찰자 시점

『錦溪日記』의 작자 魯認은 국외 체험을 경험한 체험자이다. 『錦溪日記』는 일기체 실기문학으로 작자 魯認이 경험한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을 그날그날 바로 기록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작자의 국외 체험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다. 포로의 몸으로 겪는 국외 체험은 내일을 내다보기 힘든 긴급한 상황일 것이다. 그렇기에 서술자는 경험한 일을 그 때 그 때 기록 할 수 있는 일기체를 선택 한 것이다. 다

른 포로 실기의 경우 일기체 이외의 문체의 글도 포함되어 있지만, 『錦溪日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기체로만 이루어져있다.

일기체는 서술자와 주인공이 일치하는 1인칭 시점이다. 다른 포로 실기 문학이 일기 이외의 글을 수록하고는 있지만, 작품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작자의 일기이기에 『錦溪日記』의 1인칭 시점은 포로 실기 문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1인칭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錦溪日記』는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1인칭 시점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1인칭 시점이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해 숨김없이 진술 한다는 점이다. 특히 포로 실기문학의 경우 경험한 사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만 서술 하고자 노력한다. 작자의 관찰자적 면모가 잘 드러나는 것으로 주로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기록하는데 사용된다.

> 중형의 아들 가련(可憐)은 나이가 여덟 살인데 주리고 목말라서 짠 소금물을 마시고 구토 설사하여 병이 나자 적이 물속에 던지니,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오래도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다.[119]

위 인용문은 姜沆의 『看羊錄』의 「涉亂事迹」 중 일부로 9월 24일의 기록이다. 피란길에 올랐던 姜沆의 가족은 일본에게 붙잡혀 9일간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일본으로 이송되고 있었다. 어린 조카는 배고픔과 갈증을 견디지 못해 소금물을 마시고 병에 걸렸고, 일본인들은 이런 아이를 물속에 던져버린다. 姜沆은 이 일을 서술하면서 일본인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지도 않고, 슬픔을 표현하지도 않는다. 다만 있었던 일에 대해 차분한 어조로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포로 실기의 서술자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려고 애쓴다. 이런 서술방식은 전쟁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런데 『錦溪日記』의 경우 일본으로 피랍되어 가는 과정의 일기는 망실되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錦溪日記』에서는 포로로 끌려가며 보고 겪은 전쟁의 참상에 대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서술방식은 일본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있던 일을 기록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Ⅲ장에서 살펴보았던

---

119) "仲兄子可憐者年八歲, 飢渴飮鹹, 嘔泄成病, 賊抱投水中, 呼爺之聲, 久而不絶."(姜沆, 「涉亂事迹」 9월 24일, 조선고서간행회본에 의한 한국고전번역원의 영인본; 한국고전번역원, 『해행총재』2, 한국고전번역원, 1974, 430쪽)

부분으로 3월 21·22일의 일기이다. 이 날은 일본을 탈출해 명나라의 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하던 도중 태풍을 만난 일을 기록한 것이다. 魯認은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기록하면서도 자신이 목격한 일에 대해 실감나게 표현 할뿐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제한하고 있다.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자 또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작자는 "눈덩이 같은 파도"나 파도 속이 "깊은 골짜기에 임한 듯하다."는 등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장의 생생함을 높이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만 진술 할 뿐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방식은 사실성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생사가 걸린 급박한 상황임에도 감정이 절제된 사실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현장에 있는 듯 생생함을 느끼게 한다. 일기이기에 상상이나 허구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서술하면서 그 때 느낀 자신의 감정은 배제한 채 사건의 내용만 있는 그대로 기술한 점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런 서술 방식은 중국에서 보고 겪은 중국의 문물이나 풍속·제도에 대한 기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강경(講經)은 왜 하지 않습니까."
>
> 하니, 수재가 말하기를,
>
> "문장 7편을 능히 지어 합격되는 것을 이미 명경(明經)이라 하는데, 어찌 다시 강경(講經)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
> 하였다. 또 묻기를,
>
> "입장할 때에 서책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
> 하였더니, 수재가 말하기를,
>
> "붓과 벼루뿐입니다. 어찌 감히 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들킨다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조선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120]

위 인용문은 6월 2일의 일기이다. 兩賢祠의 예수재와 명나라 鄕貢 문무과 제도에 관해 나눈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錦溪日記』에 수록된 중국에 관한 이야기는 6

120) "我問曰: '講經則何不爲之?' 秀才曰: '文章七篇, 能做入格, 已謂之明經, 何更講爲此規……' 又問曰: '入場時書冊持入乎?' 秀才曰: '只持筆硯, 何敢持冊, 若現露則不得入場矣. 朝鮮則何以爲之?'"(『錦溪日記』 6월 2일)

월 2일 일기처럼 대화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 많다. 특히 兩賢祠에 들어간 이후에는 수재들과의 나눈 대화를 일기에 그대로 기록한 경우가 많다. 魯認의 일기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적 차이를 알 수 있는데, 魯認은 수재들과의 대화를 그대로 기록 할 뿐 중국의 풍속이나 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논평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서술방식으로 인해 독자는 魯認이 제공하는 중국에 관한 정보를 선입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 맑음.
>
> 닭이 울자 일찍 노새[騾子]를 얻어서 종일토록 달려 장주(漳州)의 동문(東門) 밖 5리쯤에 이르니, 큰 호수는 가로 흐르고, 바닷물이 들어 왔다 나갔다 하여, 조수가 들어오면 그 너비가 10리인데, 조수가 나가면 그 너비가 몇 리 남짓하다. 모두 다듬은 돌로 무지개 다리 4백여 칸을 만들어 세우고, 다리 위에는 또 기와집 4백여 칸을 지어 5색으로 안팎을 단청하였다.
>
> 대궐 사이마다 관음보살이 있는데, 수호하는 도사(道士) 10여 명이 항상 거처하면서 아침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물 뿌리며 먼지를 쓰는데, 오가는 손님이 혹 은 □…□ 전 몇 닢을 주는 것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성안에 들어가니 시장에 꽃과 비단이 가득하여, 번화한 온갖 물건의 찬란한 빛은 사람의 눈길을 앗아간다. 시장 주막에 집을 정하였는데, 그 후한 대접과 은근한 정이 친한 친구와 같으니, 주막의 풍속의 상례가 그러하였다.[121]

4월 3일의 일기로 중국에 도착하여 漳州의 東門 밖 5리쯤에 이르렀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성안의 풍경과 주막의 풍속을 기록하였다. 『錦溪日記』 전반적으로 魯認의 고국귀환에 대한 심정이 담겨있다는 점을 볼 때 중국의 풍경을 보며 조선의 풍경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심경이 표출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자는 감상적인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견문한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다.

『錦溪日記』는 일기라는 특성상 이런 내용을 분량에 제한 없이 기록 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崔陟傳」과 「趙完璧傳」의 경우 주인공이 보고 들은 내용은 자세히

---

121) "晴, 鷄鳴, 早得騾子, 終日馳驅, 到于漳州東門外五里許, 則大湖橫流, 海潮出入, 潮進則其廣十里, 潮退則其廣數里餘, 皆以熟石, 橫作虹橋四百餘間, 而橋上又作瓦家四百餘間, 而以五彩丹臒於內外殿間各坐觀音菩薩, 而守護道士十餘人, 恒居朝夕, 焚香掃洒, 往來行客, 或許銀□錢介類, 以資生焉. 入城中花錦遍市, 百物繁華, 燦爛輝耀, 奪人眼彩, 館于市店, 厚待慇懃, 洽如親舊, 店家風俗已例也."(『錦溪日記』 4월 3일)

기록하지 않고 있다. 특히 「崔陟傳」은 주인공이 국외 체험을 하며 보고 들은 해외 풍경들은 거의 기술되지 않았다. 「趙完璧傳」은 조완벽이 安南으로 가는 배에서 겪은 일과 安南에서 본 그 나라 풍토와 사람들에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는 있지만 아주 간략하여 『錦溪日記』처럼 자세하고 길지는 않는다. 이는 「崔陟傳」과 「趙完璧傳」의 장르와 관계된 문제로 소설이나 전의 형식상 풍경묘사와 같은 특정 부분만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錦溪日記』는 일기체 실기문학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 분량의 제한 없이 서술할 수 있었다.

『錦溪日記』의 1인칭 시점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로 정보의 전달에 비중을 둔 서술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기체임에도 자신의 감정을 배제한 채 사건이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일기체이기에 경험한 내용에 대해 분량 제한 없이 기록한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錦溪日記』가 1인칭 시점을 가진 일기체 실기문학이기에 드러나는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과 다소 상반된 것으로 작자의 감정표현에 관한 것이다. 『錦溪日記』는 실기문학이라는 특성상 감정을 절제하고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둔 부분이 있지만, 작품 전체가 모두 이러한 서술 방식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錦溪日記』는 일기체 실기문학이고, 일기는 자신이 체험한 일과 더불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문체이기도 하다.

『錦溪日記』의 내용은 정유재란 때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 魯認이 일본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생활하며 일어난 일에 관한 기록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의 생활에 관한 분량이 월등히 많다. 중국에서 魯認은 兩賢祠에 들어갈 만큼 학식을 인정받으며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했다. 그렇기에 계속 일본에 머물러있던 다른 포로 실기 작자에 비해 직접적인 신변에 위협은 덜 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으로 탈출 후 고국 귀환에 대한 간절함은 더욱 커지기만 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고국에 돌아가는 일이 지체되었기 때문이다. 魯認은 이런 고국 귀환에 대한 감정을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여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 큰 비가 연일 내렸다. 홀로 방 안에 누워 있으니, 돌아가지 못하고 지체되어 있는 신세가 민망스러워 『周易』을 펴 놓고 손수 돌아갈 날이 언제쯤일까를 점쳐 보고 한 絶句를 읊었다.
>
> 한 가닥 향 연기는 촛불 따라 사라질 제
> 『주역』을 펴 놓고 돌아갈 날 점치네.
> 궁 뜰에 임금 뵙고 심금 털어 놓을 날은

둑 버들 초가을 기운이 어교에 들 때라네.[122]

魯認은 거의 대부분의 일기에 날씨를 기록하고 있다. 이 날은 "밖엔 큰 비가 연일 내렸다"고 기록했다. 비가 오면 바깥출입이 힘들어졌을 것이다. 연일 비가 내렸다고 했고, 28일은 일기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일 방안에 있었던 듯하다. 魯認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탈출 할 때만 해도 중국에만 오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조선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연일 비가 와 바깥출입 없이 방안에만 있으니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신체가 더 처량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래서 魯認은 『주역』을 펴놓고 돌아갈 날을 점쳐 보고는 자신의 심정을 시로 표현한다. 평소 魯認의 고국 귀환에 대한 마음은 일기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데, 작자는 주인공 시점으로 이런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 시를 통해 감정을 표현한 대목들은 『錦溪日記』의 문학적 풍미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강남 땅에 방초의 계절을 만났으니
앵두꽃 떨어지자 蜀茶花가 새로워라
이슬 젖은 고운 모습에 향내음 웃음을 띠고
예쁘게도 바람결에 붉은 입술 여누나
어느 해 좋은 일에 화분 위에 심었는가
오늘날 즐겨 보노라니 눈 안의 보배일세
고국의 꽃과 버들 뉘라서 관리할까
원한 품은 동풍에 주인만을 생각하겠지 [123]

위 인용문은 4월 11일 일기 중 일부로 호좌영의 초대를 받아 그의 관아로 갔을 때 뜰에 핀 春栢을 보고 지은 시이다. 이 날 魯認은 동백꽃을 중국에서는 蜀나라 사람이 연한 잎을 따서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蜀茶花라고 이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 시의 앞부분만 보면 蜀茶花에 대한 감상에 관한 것 같지만, 뒷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다. "고국의 꽃과 버들 뉘라서 관리할까"나 "원한 품은 동풍에 주인

122) "大雨連日, 獨臥房中, 悶其遲滯, 舒卷朱『易』, 自占起身遲速, 吟綴一絶曰 一炷香烟倚燭消, 丹墀趨謁披肝日. 羲經舒卷占歸朝, 堤柳新涼入御橋."(『錦溪日記』 4월 29일)

123) "序屬江南芳草節, 櫻桃飄盡蜀茶新. 矜姿浥露添香靨, 絶艷臨風啓絳脣. 好事何年盆上種, 貪看今日眼中珍. 故國花柳誰能管, 含怨東風戀主人."(『錦溪日記』 4월 11일)

만을 생각하겠지"라는 부분은 일본에게 침입당한 고국을 그리워하는 魯認의 심경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錦溪日記』의 작가는 주로 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감정을 서술 할 때는 자신의 심정을 자신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趙完璧傳」은 주인공의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꾸려나가고 있을 뿐이다. 반면 「崔陟傳」의 경우 작자가 주인공의 심경이나 사건의 전막을 모두 알고 있는 터라 주인공의 감정은 작품에 직접적으로 자주 노출 되는 편이다. 또 시의 경우 주인공 남녀의 사랑을 돈독하게 해주는 매개체로 쓰이며 복선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錦溪日記』에서 시는 작가의 감정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崔陟傳」과 같이 전반적인 사건에 관여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작품의 문학적 풍미를 높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錦溪日記』는 일기체 실기문학 이기에 표면적으로는 주로 견문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치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작가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함으로써 사실의 기록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 간간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시를 노출함으로써 고국 귀환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錦溪日記』는 견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의 논평이나 감정을 절제하고 설명하듯 기록했다. 그러나 종종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이 있었는데 일기에 직접적으로 기록하기보다 그 일에 대해 나눈 대화를 기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어제 그 늙은 중은 어떠한 도승(道僧)인가요?"

하니, 양 좌영도 붓으로 써서 대답하기를,

"비록 도승은 아니지만, 내가 본디 잘 아는 사이오. 그대는 어째서 묻습니까?"

하였다. 내가 써서 보이기를,

"비록 본디부터 잘 아는 사이지만, 만약 도승이 아니라면 남을 현혹시키고 속이는 무리일 터이니, 당당한 대장부는 반드시 욕을 보여 종으로 삼을 것인데 어째서 예로써 그를 대우합니까?"

하니, 양 좌영이 말하기를,

"귀국에는 이런 무리가 없소?"

하므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대체로 이런 무리는 족하나 함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무리들

이 감히 성 안을 제멋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하거늘 더군다나 관청에까지 발을 들여놓으며, 의자를 대하고 서로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중국은 성인(聖人)이 많이 난 곳이요 예의의 근본지인데도, 이단의 성함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러, 성 안에 절의 탑이 삐죽삐죽 올라 있고 중들이 관청을 멋대로 드나듭니까?"[124]

전날 楊坐營이 늙은 중에게 예를 다하여 대접하는 것을 보고 괴이히 여긴 魯認은 楊坐營과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125] 魯認은 楊坐營을 찾아가 어제 온 중이 "도승이 아니라면 남을 현혹시키고 속이는 무리인 터이니, 당당한 대장부는 반드시 욕을 보여 종으로 삼을 것인데 어째서 예로써 그를 대우하느냐"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무리들이 감히 성 안을 제멋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더군다나 관청에까지 발을 들여놓으며, 의자를 대하고 서로 앉을 수가 있겠냐"며 楊坐營의 중을 대우하는 모습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불교에 대한 魯認의 생각이 확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정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楊坐營과의 대화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錦溪日記』에는 이와 같이 대화를 통해 魯認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낸 부분이 많다.

"족하께서는 꼭 죽을 뻔하다 살아났으니,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하늘이 반드시 살아 돌아가서 끊어진 제사를 지속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의를 지켜서 구구하게 채식만을 한다는 것은 자막(子莫)의 고집보다도 심합니다. 바라건대, 족하는 권도에 따라 몸을 보전하여 살아 돌아가서 충효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므로, 나는 대답하기를,

"삼년간 상제 노릇하는 일은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귀천 없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풍속은 한 결 같이 주회암의 『가례(家禮)』를 따르기 때문에, 비록 서민일지라도 초상 때부터 담제(禫祭)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는데, 하물며 사대부로서 비록 역경에 처했을 때일지라도 어찌 예의에 벗어나서 오랑캐의 풍속을 따르겠습니까?"

하였다. 좌우가 감탄하며 말이 없다가,

---

124) "'昨日老僧, 如何道僧耶?' 坐營亦以筆示之曰: '雖非道僧, 乃吾素善, 爾何以問耶?' 我示曰: '雖素相善, 若非道僧, 不過惑誣之輩, 堂堂大丈夫, 必困辱而奴之者也. 何必待之以禮乎?' 坐營曰: '貴國亦無此輩乎?' 答曰: '蓋此輩, 足下之所同有, 然我國則不敢恣行城市, 況着足衙門, 對椅相坐乎?……夫何中國. 以聖人之淵藪, 禮義之根本, 異端之盛至此, 而寺塔崢嶸於城市, 而緇衣橫行於各衙耶?'"(『錦溪日記』 5월 4일)

125) "有一老僧, 自外入來司中, 楊坐營卽出揖罷, 分椅東西, 待之極尊, 言必稱和尙, 而請茶三椀, 我怪而問之, 乃烏石山 正覺庵老僧…蓋中國待僧之俗如是矣."(『錦溪日記』 5월 3일)

"훌륭합니다. 누가 조선을 변방 오랑캐라고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법을 지키고 예를 아는데."

하기에, 내가 대답해 보이기를,

"소련(小連)·대련(大連)이 부모 상사를 당하여 예법을 잘 지켰는데 이도 곧 동쪽 오랑캐 사람이었으니, 오직 족하는 진(秦) 나라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지 마시오. 무왕(武王)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封)하여 국민을 팔정(八政)으로써 가르칠 때에 귀국의 일곱 □…□은 왕의 교화를 입지 못하여 오륜(五倫)을 알지 못하다가, 당(唐) 나라 이후부터 비로소 천자가 정치하는 교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역대를 자세히 생각하여, 우리나라를 미개한 데에 비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126)

4월 16일의 일기이다. 홍수재의 초청으로 그의 집에 갔을 때 만난 젊은 수재들과 나눈 대화이다. 융통성 없이 채식만 하지 말고, 몸을 보존하여 귀국에 돌아가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함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수재의 말에 사대부로서 역경에 처했을 때 일지라도 오랑캐의 풍속을 따를 수 없다고 했다. 또 "누가 조선을 변방 오랑캐라고 하겠냐"는 수재의 말에 우리나라를 미개한 데에 비유하지 말라며 일침을 놓고 있다. 이 처럼 『錦溪日記』에서의 대화는 표면적으로는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여 때때로 특정 사건에 대한 작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지금 까지 『錦溪日記』가 1인칭 시점을 가졌기에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錦溪日記』는 일기체 실기문학이기 때문에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작자의 관찰자 시점이 잘 드러나는 부분으로 본인이 직접 보았기에 기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분량의 제한 없이 자세히 서술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에 비해 「崔陟傳」이나 「趙完璧傳」은 장르가 가지는 특성상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할 수 없어 대부분 짧은 서술로만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로 『錦溪日記』에 드러난 작가의 감정표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같은 감정은 주로 시를 통해 표현한 점을 알 수 있었다. 「崔陟傳」의 경우 시는 남녀 주

126) "'足下萬死一生, 豈徒然哉? 天必以足下生還, 以繼絶祀, 然今尙守禮, 區區蔬食, 是甚於子莫之執, 願足下從權保身, 以全生還, 忠孝之誠如何?' 我答曰: '三年之喪, 自天子至于庶人, 無貴賤一也. 我國之風, 一遵朱晦庵『家禮』, 故雖庶人, 自初喪至于禫祭, 不用肉, 況仕大夫, 雖顚沛流離之際, 豈可毁禮以遵夷狄之風哉?' 左右嘆息無言曰: '貴哉貴哉. 誰謂朝鮮藩夷耶? 守法知禮如是夫.' 我答示曰: '昔小連 大連善居喪, 乃是東夷之人, 惟足下, 莫謂秦無人也. 武王封箕子於朝鮮, 而敎民以八政之時, 則貴邦七□未蒙王化, 莫知五倫, 自唐以後, 始聞常袞布政之化, 惟願僉賢, 細思歷代, 勿以我國, 比之於蠢蠢也."(『錦溪日記』 4월 16일)

인공의 애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나 복선으로 쓰였다. 『錦溪日記』의 경우 일기이기에 다른 사건에 이전에 기록한 시가 다시 등장하며 복선의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작품의 문학적 풍미를 높여준 다는 점은 「崔陟傳」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錦溪日記』의 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錦溪日記』는 전반적으로 견문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주인공의 감정은 절제 한 듯 보이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대화를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그 사건에 대한 魯認의 생각을 노출하고 있었다. 『錦溪日記』의 1인칭 서술방식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전반적인 틀을 두고 그 안에서 작가의 감정이나 생각을 시나 대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崔陟傳」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錦溪日記』가 실제 작가와 체험 주인공이 일치하는 1인칭 시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崔陟傳」은 3인칭 시점을 가지고 있다. 3인칭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과 관찰자 시점으로 나뉜다. 전기소설의 경우 서술자는 사건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알고 있으며, 주인공 남녀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기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 내가 남원 주포에 우거하고 있을 때, 최척이 나를 찾아와 위와 같이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 주고는 그 전말을 기록하여 사라지지 않게 해 달라고 청했다. 최척의 요청을 사양하지 못하여 대략 그 줄거리만을 들어 기록했다.[127]

「崔陟傳」 말미의 기록이다. 작자가 제 3자의 이야기를 듣고 옮겨 쓴 점을 밝히는 부분이다. 작품 말미의 기록으로 인해 서술자는 이야기 전달자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 작품을 살펴보면 서술자는 사건에 대해서 뿐 아니라 주인공의 내면까지 잘 알고 있다.

서술자는 작품에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또 실기 문학처럼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려 하지도 않는다. 대신 사건을 주인공의 시선에 따라 서술하였으며, 주인공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기술하면서 사건에

127) "余流寓南原之周浦, 陟時來訪余, 道其事如此, 請記其顚末, 無使煙沒, 不獲已, 略擧其槩."(「崔陟傳」, 449~450쪽)

대한 독자의 상상력과 공감도, 감상을 높이고 있다.

> 燕谷에 들어서니 시체가 쌓여 길에 널브러져 있고 흐르는 피가 강을 이루고 있었다. 숲 속에서는 들릴락 말락 울부짖는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최척이 가까이 가 보니 온몸에 상처를 입은 노인과 어린애 몇 사람이 있었다.…
>
> "사흘 동안 적병이 산에 들어와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베어 죽이고는 젊은이들을 모조리 데리고 갔소.…"[128]

최척의 가족이 지리산 燕谷으로 피난 갔을 때의 일이다. 최척은 음식을 구하러 산을 내려왔다 3일 만에 겨우 다시 燕谷으로 갔다. 그러나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은 왜적의 노략질을 당했고, 젊은이들은 다 잡아가고 다친 노인과 어린 아이들뿐이었다. 인용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최척은 노략질 당하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다. 또 작품에도 왜적들이 노략질하는 장면은 직접적으로 기술되지 않는다. 대신 노략질 당한 후 장면을 본 최척의 시선을 통해 서술한 점이 인상 적이다.

위 서술은 당시 노략질의 참담함을 알 수 있게 한다. 시체는 쌓여 길에 널브러져 있고 흐르는 피가 얼마나 많았던지 강을 이루고 있었다고 표현했다. 또 숲 속에서는 들릴락 말락 울부짖는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는 표현에서 심한 상처를 입은 생존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작 노략질한 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은 없지만, 노략질 이후 장면을 최척의 눈을 통해 서술함으로써 그 참화가 얼마나 참혹했는가 하는 점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이런 서술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최척이 되어 최척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한다. 이런 과정에서 독자는 주인공의 처지에 감정이입하게 된다.

> 최척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고 땅을 치며 피를 토하고는…최척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더니 복받치는 슬픔에 기절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잠시 뒤에 정신을 차렸으나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129]

燕谷의 참혹한 상황을 본 최척의 심경을 묘사한 것이다. 눈앞의 참혹한 상황에 최척은 슬픔이 복받치고 참지 못해 기절하고 만다. 잠시 뒤에 정신을 차렸으나 어

---

128) "則但見積屍遍橫, 流血成川, 林莽間, 隱隱有號咷之聲. 陟就訪之, 老弱數輩, 瘡痍遍身…'賊兵入山三日, 奪掠財貨, 芟刈人民, 盡驅子女…'"(「崔陟傳」, 430~431쪽)

129) "陟號天痛哭, 擗地嘔血…陟搥胸頓足, 憒絶而仆. 旣已復生, 無可奈何…"(「崔陟傳」, 431쪽)

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며 최척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작자는 지리산 燕谷의 처참한 상황은 최척의 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최척의 심경이나 생각은 직접적으로 묘사했다.

「崔陟傳」에서 이 장면은 전란의 참상을 고발함과 동시에 최척이 가족과 이산하게 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 장면은 최척에게 옥영뿐만 아니라 春生의 등에 업혀있던 몽석마저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 이에 앞서 최척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공감대를 형성했던 독자는 현장의 처참함 앞에 가슴을 치며 기진하여 쓰러지는 최척의 모습에 더 큰 아픔을 느끼게 된다.

이런 점은 특히 『錦溪日記』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錦溪日記』의 경우 1인칭 시점으로 작가가 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기술 하며, 작자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기술 한다. 그러나 실기 문학이라는 특성상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최대한 배제하고 기록하려고 한다. 감정 표현은 대개 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작자의 생각은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상황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주인공의 감정은 직접적으로 표현한 「崔陟傳」은 『錦溪日記』와 반대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崔陟傳」의 말미에 서술자가 최척에게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서술함으로써 독자는 소설의 내용이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전기소설은 기본적으로 허구의 문학이기 때문에 작품의 전반적 스토리는 사실일 수 있으나, 작품 속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에 대한 표현은 어디까지나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작가가 재구성한 것이다. 그렇기에 소설은 일기보다 전체적으로 더 탄탄한 구조를 갖추게 된다. 작가가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기에 작품의 각 요소들은 하나의 스토리 안에서 적재적소에 배치되게 되는 것이다.

「崔陟傳」에서 이런 모습이 특히 잘 드러나는 첫 번째 요소는 주변 인물에 대한 묘사이다. 앞서 Ⅲ장을 통해서 「崔陟傳」에 등장하는 주변 인물이 각각 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줌을 알 수 있었다. 頓于는 의리 있고 착한 일본사람을, 紅桃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고통 받은 주변 국가의 백성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朔州의 병사였던 노인이나 紅桃의 아버지 陳偉慶등이 있었다. 주로 주인공의 국외 체험 여정에서 만난 이들에 대한 묘사는 여느 전기소설보다 자세하고 의미 있다. 이 부분은 「崔陟傳」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졌기에 드러나는 특징이자 다른 전기소설과 다른 「崔陟傳」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최척과 옥영의 이야기를 들은 작가는 「崔陟傳」을 쓰면서 단순히 두 주인공의 기이하고 애절한 사연을 기록하는 것에서 나아가 두 주인공이 국외 체험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초점을 맞춘다. 「崔陟傳」을 통해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이 겪은 아픔까지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崔陟傳」의 작가는 최척과 옥영의 만남과 헤어짐에 관한 내용을 모두 알고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인한 두 주인공의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내용에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이 겪는 일까지 형상화하다보니 주인공의 묘사만으로는 그 내용을 충분히 다룰 수 없었다. 이에 주인공이 국외 체험에서 만난 주변인물을 재구성하여 각각 전쟁의 한 부분을 묘사하였다.

「崔陟傳」의 시점 상 특징이 잘 드러나는 두 번째 요소는 옥영의 시와 시를 읊은 날의 배경묘사이다. 이 부분 역시 Ⅲ장에서 언급하였다. 본래 퉁소를 잘 불던 최척은 달이 뜬 밤이나 꽃이 화사한 아침이면 퉁소를 불었는데, 옥영이 최척의 퉁소소리에 감복하여 시를 지은 날은 맑은 늦봄의 밤이었다고 했다. 이 계절적인 배경은 최척과 옥영이 베트남에서 재회 하는 그 날의 배경과 일치한다. 최척과 옥영은 서로 같은 포구에 있었지만, 재회는 최척이 그 포구에 열흘이 넘게 머물러 4월 초이튿날 즉 늦봄의 맑은 날 밤 이루어졌다. 계절적인 배경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 "왕자교 퉁소 불 제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다"[130]는 옥영의 시구는 "(최척의 퉁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했다"[131]는 부분과 유사하다. 이에 Ⅲ장에서 이 시가 최척과 옥영의 재회를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이라는 점을 밝혔다. 복선이라는 것은 작가가 앞으로의 일에 대해 미리 암시하는 서술방식이다. 즉 작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작품의 전체 스토리를 꿰뚫고 있었기에 가능한 서술 방식이다. 「崔陟傳」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에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작자가 주변인물이나 풍경 등 작품의 여러 요소를 통해 스토리의 극적인 면은 더욱 극대화시키면서도 그 이야기가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됨에 있다.

이에 비해 『錦溪日記』는 1인칭시점으로 기록은 순수하게 작가가 경험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 일기라는 특성상 내일의 일을 알 수 없기에 「崔陟傳」에 비해 탄탄한 구성을 이루지는 못한다. 『錦溪日記』는 1인칭 시점으로 철저히 작가의 시선에 비친 모습만을 기록하기에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없는 내용까지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으나, 전지적 작가시점인 「崔陟傳」처럼 전쟁의 여러 측면은 다루지는 못했다. 주변인물에 대한 묘사도 그날그날 만난 사람들에 대해 파편적으로 기록 할 뿐이지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볼 때 어떤 면을 대변하는 형식

130)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王子吹簫月欲低, 碧天如海露凄凄. 會須共御青鸞去, 蓬島烟霞路不迷."(「崔陟傳」, 429・435쪽)

131) "時海天慘色, 雲烟變態."(「崔陟傳」, 434쪽)

은 아니다.

지금까지 「崔陟傳」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졌기에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崔陟傳」은 작품 말미의 기록을 통해 제 3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옮겼다고 전제하고 있다. 서술자는 자신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지만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진술한다. 이런 서술방식으로 인해 독자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그 시선을 따라 사건을 접함으로써 주인공의 처지에 공감하게 된다. 또 주인공의 감정은 직접적으로 노출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은 시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사건이나 견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묘사한 『錦溪日記』와 상반된 모습이었다.

「崔陟傳」은 주변 인물묘사나 환경의 묘사를 통해 작품을 보다 탄탄히 구성하였다. 작자가 이야기의 전체를 꿰뚫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崔陟傳」의 작자는 주변 인물의 묘사를 통해 전쟁의 여러 측면을 표현하였다. 또 시를 작품의 복선으로 활용해 이야기의 극적인 요소를 더욱 극대화 하였다. 이에 비해 『錦溪日記』는 일기라는 특성상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작품에 등장하는 주변 인물은 파편적인 서술에 불과하며 복선과 같은 요소는 존재할 수 없다. 또 절대적으로 작가가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기록하였기에 전쟁의 여러 측면을 묘사하진 못했다. 그러나 일기의 특성상 분량의 제한이 없고 서술자와 주인공이 일치하기에 실제 경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소소한 것에 대해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다.

3) 「趙完璧傳」의 3인칭 관찰자 시점

앞서 Ⅲ장을 통해 임진왜란 이후 주요한 입전동기로 흥미추구가 등장하였다는 점과 「趙完璧傳」이 이에 해당하는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자는 조완벽이 安南을 오가며 겪은 독특한 국외 체험에서 느낄 수 있는 흥미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서술했다. 작자는 조완벽의 국외 체험을 기록함에 있어 조완벽의 생각이나 감정은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조완벽이 이동한 행로를 따라가며 그가 경험한 내용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기본적으로 傳은 역사가의 필체로 쓰는 글이므로 관찰자의 입장이 부각되게 된다. 「崔陟傳」처럼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쓸 수 없는 양식인 것이다. 「趙完璧傳」 역시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다.

갑자기 파도 위로 부인(婦人)의 모습인 듯한 괴이한 형상이 보였다. 후풍자(候風者)가 크게 놀라 즉시 제사를 올리고 기도를 하니 괴물이 곧 홀연히 보이지 않으니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옛날 전설에 의하면, 이것은 한나라 때 표류하다 빠져 죽은 귀신이라고 한다.[132]

安南으로 가는 도중 바다에서 귀신을 만난 이야기이다. 작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조완벽의 감정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정도로만 기록하고 조완벽의 신기한 경험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전달하고 있다.

「趙完璧傳」의 이런 서술 방식은 『錦溪日記』의 서술방식과 유사한 면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錦溪日記』는 일기체 실기문학으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는데, 작자는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보 전달에 치중해 서술하고 있었다. 『錦溪日記』와 「趙完璧傳」의 서술자의 시점은 각각 1인칭과 3인칭으로 다르지만, 작품 속 주인공이 겪은 일에 대해 주인공의 감정보다 엄정한 시선으로 정보 전달에 치중하는 관찰자의 입장을 취한 점은 비슷하다. 이에 비해 「崔陟傳」은 소설로 주인공의 감정까지 작자가 모두 꿰뚫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趙完璧傳」의 서술방식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趙完璧傳」은 위 인용문처럼 安南으로 가는 항해 여정에서 있었던 일이나 安南의 풍속세태에 대한 내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있다. Ⅱ장에서 나눈 네 개의 서사단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安南으로의 항해 여정에 관한 내용과 조완벽이 안남에서 겪은 일에 대한 기록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이다. 이 두 단락은 분량상으로도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趙完璧傳」의 작자가 작품의 대부분을 조완벽의 국외 체험에 관해 서술하였다고 할지라도 傳이라는 형식의 특성상 이런 내용들을 『錦溪日記』처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安南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풀고 맨발로 다녔는데 발에 상처를 입지 않았다"[133] 거나 "땅은 연한 흰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겨울이 봄과 같이 따뜻하다"[134] 등과 같이 짤막짤막하게 정보를 나열하는 형식이다. 「趙完璧傳」에 기록된 조완벽의 국외 체험과 관련된 정보가 『錦溪日記』의 정보만큼 자세하지는 않지만, 독자가 「趙完璧傳」을 통해 安南에 대한 신기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은

132) "忽見波上, 似有婦人形作怪之狀, 候風者大驚, 卽致祭祈禱則, 怪物卽因忽不見, 得免患焉."(정사신, 「趙完璧傳」, 500쪽)
133) "皆被髮跣行…跣行不傷足."(정사신, 「趙完璧傳」, 501쪽)
134) "蓋其國土, 無泥滓, 無石塊, 只有軟白沙, 冬暖如春."(정사신, 「趙完璧傳」, 501쪽)

의미가 있다.

기존의 傳은 주로 입전인물의 褒貶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종종 입전인물의 생각을 서술하기도 했다. 기존의 전에서 입전인물의 생각을 서술하는 이유는 입전인물의 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건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입전인물의 덕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언급하였듯이 「趙完璧傳」은 조완벽의 安南으로의 항해 여정에서 겪은 일과 安南에서 겪은 일을 나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작품의 초점은 安南이라는 나라로 가는 길에 일어난 기이한 항해 여정과 安南에서 경험한 새로운 문물에 대한 전달에 있다. 조완벽이 그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작자는 사건이 그렇게 된 경위가 보다 사건 그 자체를 전달함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글로써 약속하기를
> "안남에 다녀온 후에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영원히 놓아주겠다."
> 고 하였다. 완벽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던 터라 죽음을 피하지 않고 따랐다.135)

위 인용문은 조완벽과 일본인 주인이 작성한 盟約文의 내용과 조완벽이 일본인 주인의 제안에 응한 이유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安南에 장사하러 가고자 했던 조완벽의 일본인 주인은 安南과의 무역을 위해 글을 알아 安南사람과 소통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했다. 그러나 글을 아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다. 마침 조완벽이 거칠게나마 글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安南에 함께 다녀오면 평생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된다. 정유재란 때 일본에 포로로 끌려온 조완벽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조완벽의 심정을 간략하게나마 서술함으로써 일본인 주인이 安南에 함께 갈 것을 제안했을 때 조완벽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 따라나섰다는 장면이 자연스럽다. 기존의 전이 인물의 생각을 노출한 것은 인물의 덕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으나, 「趙完璧傳」에서 조완벽의 생각을 노출한 것은 사건의 원활한 전개 때문인 듯하다.

지금까지 각 작품의 시점을 살펴보았다. 『錦溪日記』는 일기체 실기문학으로 1인

135) "行爲盟文以約曰, 往來安南之後, 則永放汝任其所之云. 完璧, 志切還國, 不避死乃從之."(정사신, 「趙完璧傳」, 499쪽)

칭 시점을 사용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는 작자의 관찰자 시점이 잘 드러나는 부분으로 본인이 직접 보았기에 기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분량의 제한 없이 자세히 서술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에 비해 「崔陟傳」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사건은 주인공의 눈을 통해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사건을 목격한 주인공의 감정은 풍부하게 전달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높이고 감동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趙完璧傳」은 전의 기본특징인 역사가의 필체를 사용하여 서술했으므로,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錦溪日記』와 달리 주인공과 서술자가 일치하지 않는 3인칭 시점이며, 장르가 가지는 특성상 주인공이 경험한 내용을 짧은 서술로 나열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錦溪日記』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사용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작가의 감정표현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작가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같은 감정을 주로 시를 통해 주인공 시점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崔陟傳」의 경우 시는 남녀 주인공의 애정을 돈독히 하는 역할을 하거나 작품 전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복선이다. 「崔陟傳」의 작가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이기에 이야기의 시작과 끝 그리고 주인공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모두 꿰뚫고 있다. 그렇기에 시나 배경 그리고 주변인물의 묘사 등 여러 요소를 모두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었다. 『錦溪日記』의 경우 일기체로 작품의 전체를 체계적으로 구상하여 쓴 것이 아니기에 「崔陟傳」과 같이 시가 복선의 역할을 하거나 어떤 요소를 재배치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가 작품의 문학적 풍미를 높여준 다는 점은 「崔陟傳」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錦溪日記』의 작가는 자신의 감정을 대부분 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비해 「趙完璧傳」에서 조완벽의 감정이 서술되는 부분은 아주 간략하며, 전체적인 사건을 전개해 가는데 있어 필요하기에 서술된 듯 보였다.

2. 시간

1) 『錦溪日記』의 시간 - 일상의 시간과 고국 귀환을 위한 여정

앞서 Ⅱ장의 작품 구성에서도 살펴보았듯이 『錦溪日記』는 4월 중간에 날짜가 조금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매일 날짜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있다. 이는 『

錦溪日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기체로만 기록되어 있기에 당연한 것이다. 『錦溪日記』는 작자의 체험에 국한되어 있는 체험을 서술한 기록이기에 역사의 미시적인 한 단면만이 기록된 문학작품이다. 대개의 포로 실기는 작자가 피랍되는 날 시작되어 고국으로 귀환하면 작품이 끝나게 된다. 이렇듯 실기문학 특히 국외 체험을 다룬 포로 실기에 속하는 작품의 이야기는 작자의 국외 체험 여정에 따라 시작과 끝이 결정된다. 이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야기가 체계적으로 꾸려져가는 소설에 비해 완결된 형태를 이루고 있지는 못하다.

『錦溪日記』는 일기 형식으로 그날그날의 일을 기록하다 보니 날짜와 관계없는 특정한 내용을 집중적이고 상세하게 서술하는데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채연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 일기형식의 서술은 날짜와 관계없는 특정한 내용을 집중적이고도 상세하게 서술하지 못하는 시간적인 제약이 따른다. 가령 몇 달에 걸쳐서 탐문한 적의 동정을 기록하고자 할 때, 정보를 얻게 된 날마다 조금씩 기록하기보다는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한 후에 일관되게 기록하는 것이 전달의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 정보의 양이 상당한 분량이 될 때, 정보 수집을 완성한 그 특정한 날에 이를 모두 기록하기에는 일기의 양식적 한계 때문에 전부를 기술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따로 독립시켜서 집중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36]

이런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看羊錄』의 「賊中封疏」이나 『月峯海上錄』의 「自賊倭中還泊釜山日封疏」이다. 『錦溪日記』의 경우 다른 포로 실기와 달리 『錦溪日記』에는 일기만 수록되어 있고, 일본에 관해 수집한 정보는 『錦溪集』에 따로 수록하였다.

『錦溪日記』는 철저히 작가의 경험 순서에 따라 기록한 작품이다. 이런 형식은 정보의 포괄이라는 점에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작자가 일기 형식으로 시간과 장소, 매일 날씨까지도 명시함으로써 독자는 작자가 체험한 시간과 공간을 보다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다.

> 맑음.
>
>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2백 48명이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우리들 네 사람과, 동제독(董提督)이 사천(泗川) 싸움에서 패할 때에 포로로 적지에 들어온 세 명도 한 배에 탔다. 오후에 나는 뱃머리에 나가 서 있었다. 다만 보이는 것은 바다와 하늘이 서로 닿

136) 이채연, 『壬辰倭亂 捕虜實記 硏究』. 박이정, 1995, 209쪽.

은 것뿐이며, 한 점의 섬도 없고 끝없이 넓기만 하여, 조금도 □…□ 물건이 없다. 해가 저물녘에 시력을 다해 멀리 바라보니, 앞에는 다만 한 외로운 섬이 우뚝 솟아 있는 것 같았는데, 잠깐 사이에 가까이 가니 아무런 물건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반드시 신루(蜃樓)가 아니면 하루(霞樓)였으며, 하루가 아니면 무시(霧市)였을 것이다.[137]

위 인용문은 일본에서 탈출에 성공해 중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있던 일에 대한 기록이다. 魯認은 매일 일기를 시작하면서 날씨를 먼저 기록하였다. 이 날 역시 날씨를 기록하고 배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했다. 그리고 '오후'에 뱃머리에 나가서 망망대해를 바라보았고 '해가 저물녘'에 섬을 본 듯하였으나 가까이 가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렇게 하루의 일기 안에서도 오후나 해가 저물녘이라고 시간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독자는 이 짧은 하루 일기 안에서도 작자가 경험한 시간을 따라가며 작자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이야기를 가진 작품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기형식의 이런 진행은 다소 스토리 전개가 다소 느린 느낌을 주기도 한다. 『錦溪日記』는 작가 魯認이 정유재란에 일본으로 잡혀가 중국으로 탈출하여 고국에 귀환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일기 형식이기에 작가가 경험한 내용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崔陟傳」과 같은 소설은 철저히 작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반면, 『錦溪日記』와 같은 일기체 실기문학은 앞날을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과 새로운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작성하므로 사건 전개라는 면에서는 다소 느린 진행이라는 느낌을 주기 마련이다.

하지만 『錦溪日記』의 이런 구성이 오히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도 한다. 일기이기에 기록이 사실임을 물론이고, 내일을 예측 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작성한 하루하루의 기록이 오히려 다음 날의 일기를 기대하게 되는 효과를 주는 것이다. 또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고국 귀환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한다. 『錦溪日記』는 일기체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었기에 사건의 전개라는 측면에서는 더딘 진행을 보인다. 하지만 매일 순간순간에 충실한 주인공의 모습과 고국 귀환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주인공의 여

137) "晴, 舟中人共二百四十八名, 而其中吾等四人及董提督, 戰敗泗川時俘入賊土者三名, 亦與同舟矣. 午後我出立船頭, 只見海天相接, 無一點島嶼, 淼淼茫茫, 少無□□之物, 日晩極目遠望, 前頭但似有一孤島中峙, 俄而近之, 則未見他物, 此必非蜃樓則霞樓, 非霞樓則霧市矣."(『錦溪日記』 3월 18일)

정에 관한 기록은 독자에게 감동을 준다.

이런 일기 형식의 글의 또 다른 약점은 소재와 소재사이의 유기적인 인과성이 결여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는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가 일회적인 기능만 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사건을 환기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실기문학에 소개되는 내용은 파편적인 소재의 나열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138] 『錦溪日記』는 魯認이 중국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일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각각의 이야기는 그날그날 경험한 것에 대한 기록으로 끝나게 된다. 예를 들면 오석산에 올라본 풍경이나, 수재들과 나눈 중국의 세법에 관한 이야기, 중국의 과거제도에 대한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 맑음.
>
> 일찍 밥을 먹은 뒤 또 사 수재 방에 가서 묻기를,
>
> "양경(兩京 금릉(金陵)과 북경(北京)) 및 13성(省) 성은 우리나라의 도(道)와 같다에서 양성하는 군사는 얼마나 됩니까?"
>
>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
> "그것이 몇 만이나 되는지 모르나, 대개 양경의 군사는 4백 위(衛)인데 한 위의 군사가 5백 명씩이니 총수 20만이고, 그 나머지 13성의 군사는 무려 5백여 만이나 되는데 한 사람이 한 달마다 은자 1냥을 받으며, 공·후·백·자(公侯伯子)와 경대부(卿大夫) 및 주·부·군·현의 월급으로 주는 은자는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없지요. 중국의 물력(物力)은 매우 풍부하지만 만고를 통하여 근래가 매우 풍성합니다."
>
> 하였다.[139]

인용문인 6월14일엔 군사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이후에는 따로 기록된 바는 없다. 그저 그날 얻은 정보에 대한 파편적인 기록인 것이다. 여기서 서술자인 '나'를 제외하면 작품에 등장하는 요소들은 작품의 성격에 영향을 줄 만큼 반복적으로 환기 되지는 않는다.

등장인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등장인물은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뿐더러 소설과 같이 성격묘사나 인물 창출을 하지 않는다. 등장인물의 경우

---

138) 이채연, 『壬辰倭亂 捕虜實記 硏究』, 박이정, 1995, 201쪽 참조.

139) "晴, 早食後, 又去謝秀才房問曰: '兩京及十三省(省乃我國一道)留養之兵, 幾許也?' 答曰: '不知其幾萬, 大槩兩京軍, 則四百衛, 而一衛之軍, 每五百名, 都數二十萬, 其餘十三省軍, 則無慮五百餘萬衆, 而每一名, 每月各受銀一兩, 而公、侯、伯子、卿大夫、州、府、郡、縣月捧之銀, 不知其巨萬, 中國物力殷富, 通萬古比來極盛矣.'"(『錦溪日記』 6월 14일)

는 작가인 魯認이 국외 체험 여정에서 접한 인물들이다. 함께 탈출한 사람들이랄지 중국에 체류 시 만난 사람들이다. 이처럼 등장인물은 작가가 국외 체험 기간 동안에 만난 단순한 개별 인간들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특히 「崔陟傳」과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 「崔陟傳」에 등장하는 인물은 각각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품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전쟁의 한 단면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錦溪日記』의 등장인물과 같은 개별적인 소재들은 표면적으로는 파편적인 일상의 기록이지만, 작자가 하루하루 나아가는 고국 귀환을 위한 여정의 일부이다. 그렇기에 『錦溪日記』가 하나의 서사를 가진 작품일 수 있는 것이다.

2) 「崔陟傳」의 시간 - 서사 병렬과 시간 역전 현상

「崔陟傳」의 주인공은 최척과 옥영이지만, 작자는 최척의 아버지인 최숙과 옥영의 어머니인 심씨, 또 장남인 몽석이나 차남 몽선과 홍도의 일에 대해서도 꽤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소설이 주인공 이외의 인물은 주변인물로 큰 비중 없이 그려지는 점을 생각해 볼 때 「崔陟傳」의 등장인물에 대한 서술은 「崔陟傳」이 가진 특징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崔陟傳」은 전체적으로 시간의 순서를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지만 중간 중간 인물별로 서술하게 됨으로써 서사의 병렬진행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 사흘 뒤 왜적이 물어가자 최척은 그제야 燕谷에 들어갈 수 있었다.…최척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고 땅을 치며 피를 토하고는 즉시 섬진강으로 달려갔다.……余有文은 최척을 전사한 병사 한 사람 대신 명부에 끼워 넣어 국경을 통과하게 한 뒤 요흥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140]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지리산 燕谷으로 피해있었던 최척 일가는 최척이 곡식을 구하러 내려간 사이 왜적의 노략질을 받아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최척은 가족을 모두 잃었다는 슬픔에 자결을 하려하지만 주변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우연히 명나라 군대를 발견하고 죽은 한 병사를 대신해 명부에 이름을 올려 명나라로 가게 된다. 여기까지 최척을 대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있다.

---

140) "過三日賊退後, 還入燕谷.…陟號天痛哭, 擗地嘔血, 卽走蟾江.……以陟隷戰亡軍薄, 而過關至姚興居焉."(「崔陟傳」, 430~432쪽)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왜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왜적은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소홀히 했다.…최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심씨와 번갈아 업어 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집안 살림을 꾸려갔다.141)

최척이 명나라로 가게 된 그 시점에 최척의 부친과 장모에게 일어난 일 대해 서술하고 있다. 최척의 부친과 장모는 왜적이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소홀이 하는 틈을 타서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가 왜적이 떠난 후 燕谷사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두 사람은 몽석을 찾게 된다. 燕谷사의 승려가 길가의 시체 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해서 몽석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혹시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여 기다리던 중 최척의 부친과 심씨가 燕谷사에 오게 된 것이다. 최숙과 심씨는 몽석을 찾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집안 살림을 꾸려갔다.

주인공 최척의 서술에 비하면 아주 적은 분량의 서술이지만, 작가는 최척의 부친인 최숙과 심씨 그리고 몽석의 만남과 행적에 대해 꽤 자세히 서술했다. 후에 최척은 몽석과 후금의 포로가 되어 재회한다. 작자가 주변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최척의 부친과 심씨 그리고 몽석의 만남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면, 훗날 최척이 후금의 포로가 되어 몽석을 만나 기뻐하는 과정에서 한두 줄의 대사로 간단히 기록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최척의 부친과 심씨의 사건을 통해 전쟁의 한 장면을 대변하고 있다.

이때 옥영은 왜적 頓于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頓于는 퍽 가련히 여겨 옥영에게 '사우'(沙于)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갈 때마다 항해장 일을 맡겨 중국이 복건성과 浙江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다.142)

최척은 명나라의 군대를 통해 명나라로 들어가고, 최숙과 심씨가 燕谷사에서 몽석을 찾았을 때 옥영이 겪은 일이다. 최척이 명나라에 있고 최숙과 심씨가 조선의

141) "初陟家被擄至江, 賊以陟之父與姑老病, 不甚看護.…淑旣得孫兒, 與沈氏遞負而歸, 收集奴僕, 經紀家事."(「崔陟傳」, 432쪽)

142) "時玉英, 則見執於倭奴頓于.…頓于尤憐之, 名之曰沙于, 每乘船行販, 以火長置舟中, 往來于閩、浙之間."(「崔陟傳」, 432쪽)

燕谷사에서 몽석을 찾았을 때 옥영은 頓于라는 자에게 붙잡혀 일본에 있었다. 왜적을 피해 지리산 燕谷에 있던 최척 일가는 최척이 곡식을 구하러 내려간 사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작가는 기본적으로 최척의 시간을 서술하다가 같은 시간에 최숙과 심씨 그리고 옥영의 시간을 서술하기 위해 시간을 역전 시킨다. 같은 시간 속 네 인물의 이야기를 서술하다 보니 서사의 병렬진행이 이루어진다.

이때 최척은 요흥에 머물며 余有文과 의형제를 맺었다.143)

위 인용문은 다시 최척의 이야기로 돌아온 부분이다. 작자는 '이때' 나 '이에 앞서'라는 말을 사용하여 최척의 스토리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최척 일가의 행적이나 옥영의 행적을 겹쳐 서술하고 있다. 「崔陟傳」의 이런 서술방식은 앞서 이야기했던 주변인물의 역할 비중에 의한 것이다. 앞서 최숙과 심씨 그리고 몽석의 행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작자가 최척의 이야기만을 주로 다루고자했다면, 옥영과 최척이 安南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옥영이 겪은 일을 간단히 서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최척이 퉁소를 불자 어디선가 옥영의 시가 들리고 최척은 옥영의 배를 찾아 옥영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옥영은 자신의 여정을 최척에게 이야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품을 이렇게 서술하게 되면, 최척과 옥영의 재회는 지나치게 우연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최척의 행적 위에 그 때 옥영의 행적을 서술함으로써, 훗날 安南에서 최척과 옥영의 재회는 독자로 하여금 우연이라기보다 극적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작가는 「崔陟傳」 등장인물의 전쟁으로 인한 국외 체험에 대해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한 『錦溪日記』나 「趙完璧傳」과 비교 할 때 전혀 다른 점이다. 「崔陟傳」이 시간의 역전 구조를 가지게 된 데에는 남녀 주인공이 정유재란이라는 전쟁으로 인해 각각 중국과 일본으로 이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주인공의 여정이 둘로 나뉘다 보니 서사 병렬과 시간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錦溪日記』나 「趙完璧傳」의 경우 주인공이 한명이기에 여정이 나뉘어서 오는 서사 병렬이나 시간 역전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崔陟傳」의 이런 서술 방식은 작품의 분량을 늘리는 결과도 낳게 되었다. 남녀 주인공의 여정이 둘로 나뉘게 되고 각각의 여정을 통해 전쟁의 단면을 그려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작품의 분량 또한 많아지게 된 것이다.

143) "是時, 陟在姚興, 與余公結爲兄弟."(「崔陟傳」, 433쪽)

3) 「趙完璧傳」의 시간 - 시간의 순서에 따른 서사 전개

「趙完璧傳」이 조완벽의 安南 체험에 중점을 두어 기록 했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여기서는 「趙完璧傳」의 시간 서술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인 전은 입전인물의 포폄을 위한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방식을 취한다. 각각의 에피소드는 꼭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 할 필요는 없으며, 에피소드간의 유기적 관련 또한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런데 「趙完璧傳」은 이와 조금 다른 방식이다. 「趙完璧傳」의 시간이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작품 원문을 조금씩 인용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 정유재란 때 왜적에게 끌려가 심부름꾼으로 복역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종노릇하는 것과 같았다.… 이에 글로써 약속하기를
>
> "안남(安南)에 다녀온 후에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영원히 놓아주겠다."
>
> 고 하였다. 완벽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던 터라 죽음을 피하지 않고 따랐다.144)

정유재란에 일본에 포로로 끌려간 조완벽은 종노릇을 하게 된다. 安南과 무역을 하고자 했던 조완벽의 일본인 주인은 安南과의 무역에 꼭 필요한 글을 아는 사람을 구하지 못했었고, 마침 조완벽이 글을 조금 안다는 사실을 알고 安南에 다녀온 후에는 영원히 놓아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 다음 부분이다.

> 浙江(浙江)사람과 함께 바다에 떠서 안남(安南)으로 향했다. 바닷길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었다.…거대한 고래가 바다를 가로질러 물을 내뿜어 하늘을 가리면 즉시 닻을 내려 배를 멈추었다가 (고래가) 그친 뒤에야 배를 움직였다.…용이 올 때는 반드시 물을 한 길이나 내뿜어 선원들이 매번 크게 놀라 혼비백산하였다.145)

배를 능숙하게 다루는 浙江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安南으로 가는 여정에 관한 기록이다. 고래를 만나거나 용을 만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候風人

---

144) "丁酉之變, 爲倭所搶, 以歸于日本服役使喚, 如我國之奴屬焉.…行爲盟文以約曰, 往來安南之後, 則永放汝任其所之云. 完璧, 志切還國, 不避死乃從之."(정사신, 「趙完璧傳」, 498~499쪽)

145) "與浙江人, 同浮海向安南國, 海路不知其幾千里…見橫海長鯨, 噴波漲天, 則卽下碇住船, 以竢其止然後, 乃過.…如見龍來則, 噴水約一丈許, 而舟人每驚惶褫魄."(정사신, 「趙完璧傳」, 499쪽)

의 바닷길을 헤아리는 법이나 바다에서 귀신을 만난 이야기 등을 기록하고 있다. 작가는 조완벽의 安南 체험이라는 사건을 입전인물인 조완벽이 경험한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용문에 이어지는 다음 부분이다.

> 배로 오십 여일을 가서 안남에 도착했다. 그 풍속을 보니 모두 머리를 풀고 맨발로 다녔다. 그 나라의 땅은 진흙 수렁이 없고, 돌덩어리도 없으며, 단지 부드러운 백색 모래였고, 겨울이 따뜻하기가 봄과 같아서 맨발로 다녀도 발이 상하지 않았다.146)

항해 여정에 이어서 안남에 도착하였다는 내용과 조완벽이 본 안남의 모습이다. 이 부분에는 안남의 풍속, 땅, 재상의 처첩들이 상행위를 하는 점, 이수광의 시를 암송하는 안남 문인들의 모습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후 조완벽은 일본인 주인이 계약을 어겨 安南을 세 차례 더 다녀오고 자유를 얻어 조선으로 돌아오게 된다.

인용문을 통해 확인 한 것처럼 「趙完璧傳」은 기존의 傳처럼 인물을 포폄하기 위해 인물의 덕성을 대표하는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조완벽의 安南 체험이라는 하나의 스토리 안에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趙完璧傳」은 특정한 사건에만 주목하여 일이 진행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하면서 하나의 서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기체로 쓰인 『錦溪日記』와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본고에서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사신의 「趙完璧傳」과 이수광의 「趙完璧傳」은 약간 차이가 있어 언급하고자 한다. 이수광의 「趙完璧傳」 역시 조완벽의 기이한 여정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었음에도 정사신의 「趙完璧傳」과는 시간의 서술 방식이 약간 다르다. 이수광의 「趙完璧傳」은 ①조완벽이 일본에 포로로 끌려가 상선에 타서 ②배를 타고 安南 興元縣에 도착하여 ③文理侯의 초대를 받아 그곳 유생들에게 이수광의 시에 대해 질문 받고, 安南에 머물러 고국에 돌아가라는 제안을 받으나 거절하고, ④安南의 노인의 외모나 농산물이나 음식, 각종 동물들에 대해 기술하고 ⑤유구국이나 이송을 다녀온 이야기와 함께 일본에서 安南가는 여정과 거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바다에서 용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⑥회답사를 통해 고국에 돌아 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수광의 「趙完璧傳」 역시 전반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있다. 그러

146) "舟行五十餘日, 乃達安南國界, 見其俗, 皆被髮跣行, 蓋其國土, 無泥滓, 無石塊, 只有軟白沙, 冬暖如春故, 跣行不傷足."(정사신, 「趙完璧傳」, 501쪽)

나 시간의 순서에 따른다면 ①과 ②사이에 있어야 할 일본에서 安南으로 가는 배의 여정이 ⑤에 다른 나라를 다녀온 내용과 함께 기술 된 점이 특이하다. 일반적인 전이 인물 포폄을 위한 몇 개의 에피소드를 나열하여 행적부를 기술하였다는 점과 이수광의 「趙完璧傳」 말미에 실린 논찬 부분을 볼 때 이수광의 「趙完璧傳」은 표면적으로 전의 일반적 특성을 따르고자 한 듯하다.

지금까지 세 작품의 시간의 서술 방식을 살펴보았다. 『錦溪日記』는 일기체 실기문학이기에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었다. 이런 형식은 정보의 포괄이라는 점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 매일의 날씨까지도 명시하는 사실의 순차적인 기록은 독자로 하여금 작자가 체험한 시간과 공간을 보다 가깝게 느끼도록 한다. 『錦溪日記』의 주변인물은 작가가 국외 체험 기간 동안에 만난 단순한 개별 인간들에 불과하기에 유기적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개별적인 소재들은 주인공의 고국 귀환을 위한 국외 체험에 대한 기록이라는 단일한 주제 속에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이 부분은 특히 「崔陟傳」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崔陟傳」의 주인공은 최척과 옥영이지만, 작가는 그 외 주변인물에 대해서도 꽤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작품의 서술은 전체적으로 시간의 순서를 따르고 있지만, 중간 중간 인물별로 서술하게 됨으로써 서사의 병렬진행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崔陟傳」이 시간의 역전 구조를 가지게 된 이유는 남녀 주인공이 이별하여 서로 다른 해외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趙完璧傳」은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 조완벽이 일본 주인과 함께 장사를 위해 베트남에 다녀온 일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조완벽이 경험한 시간의 순서에 맞추어 기술했다. 이는 일기체로 쓰인 『錦溪日記』와 같은 맥락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임진왜란기 국외 체험을 담은 서사문학인 실기 문학과 소설 그리고 전에 나타난 국외 체험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장르별로 국외 체험의 서사가 잘 드러난 대표작을 선정, 비교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사한 국외 체험을 소재로 한 각기 다른 장르의 세 작품은 국외 체험을 소재로 함으로써 기존의 장르에서 벗어난 독특한 특징을 형성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각 작품의 비교에 앞서 먼저 각 작품을 서사단락으로 구분하여 작품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얻을 수 있었다.

『錦溪日記』의 내용을 네 단락으로 나누면 첫 번째(2월 22일~3월 17일)는 일본을 탈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며 바쁘게 움직이는 부분, 두 번째(3월 18일~3월 28일)는 명나라에 도착하기까지 배에서의 여정과 감정 그리고 漳州 경비 장관의 심문을 받는 부분, 세 번째(3월 29일~5월 11일)는 본격적으로 중국에서의 여정으로 楊坐營과 중국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문사적 우월감과 고국의 귀환 의지가 복합적으로 교차되는 부분, 네 번째(5월 12일~6월 27일)는 중국의 수재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兩賢祠의 강학에 참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 兩賢祠에 기거하면서도 고국에 대한 귀환 의지가 더 극대화되는 부분이다. 『錦溪日記』를 네 단락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국으로 넘어온 이후 고국 귀환 의지가 더 극대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崔陟傳」을 내용상으로 분류해 보면, 첫 번째 단락은 최척과 옥영의 애정결연, 두 번째는 정유재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 세 번째는 최척과 옥영의 安南에서의 재회, 네 번째는 병자호란으로 인한 재이산, 마지막으로 일가족 모두의 재회로 구분할 수 있다. 「崔陟傳」의 내용을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주인공의 국외 체험 여정과 더불어 작품 속 주인공의 성격 또한 알 수 있었다. 특히 옥영은 전쟁이라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강인한 의지와 슬기로 자신의 운명을 헤쳐나간 적극적인 여성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 작품에 등장하는 국외 체험은 주인공 남녀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별뿐만 아니라 재회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崔陟傳」은 주인공의 국외 체험을 통해 전쟁의 상황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작품은 당대 민중들의 고통을 잘 드러내면서도 나아가 임진왜란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고통을 안겨다 준 전쟁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趙完璧傳」은 정사신의 「趙完璧傳」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정사신의 「趙完璧傳」은 크게 네 개의 서사단락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 단락은 조완벽이 정유

재란 때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 일본 상인이었던 주인과 계약을 맺는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安南으로 향하는 항해 여정과 관련된 내용이고, 세 번째 단락은 조완벽이 安南에서 겪은 일에 대한 기록이고, 네 번째는 일본인 주인이 계약을 어겨 두 차례 安南을 더 다녀온 끝에 자유를 얻어 고국으로 돌아 올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조완벽의 安南 체험과 관련된 하나의 서사를 이루고 있었다.

작품 구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장르 일반의 특성과 각 작품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얻을 수 있었다. 실기문학의 성격은 창작 배경, 작자, 문체, 서술태도, 글의 목적 등에 따라 이야기 할 수 있었다. 『錦溪日記』는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으로 큰 사건을 배경으로, 실제 전쟁과 포로생활을 체험한 魯認이 자신의 체험을 일기형식으로 기록 하였다. 일기체로 기록되어있기에 시간의 순서대로 서술되었으며, 사건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장면에서는 작자의 감정 표현은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로 하여금 체험의 동질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 국외 체험을 다룬 다른 실기와 마찬가지로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귀환의지가 곳곳에 표현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작자의 감정은 주로 시를 통해 드러났다. 글을 작성한 의도는 자신이 경험을 기록하고 알려 일본에 복수하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인과 나눈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錦溪日記』는 일기체 실기문학으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길이의 제한이나 주제의 제한 없이 기록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제의 제한 없이 날짜순으로 기록하였기에 종종 전체적인 서사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작품 전반적으로 작자의 고국 귀환의지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스며있어 모든 내용이 간절한 고국 귀환의지를 가진 작자가 고국으로 귀환하기 위한 기이한 여정이라는 하나의 서사를 이루게 되었다.

「崔陟傳」의 초반부에는 애정전기소설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었다. 「崔陟傳」은 당대 유행하던 애정전기라는 소설양식을 취하되 전란을 소재로 삼은 까닭에 여타 애정전기와는 다른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국외 체험으로 인해 공간이 확대되었고,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전쟁의 다양한 측면을 남녀 주인공만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터 전쟁의 다양한 측면을 표현하기위해 주변인물에 대한 비중이 커졌다. 등장하는 주변인물은 그저 스쳐지나가는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전쟁의 한 단면을 표현하기도 했다. 다양한 인물의 묘사를 통해 남녀 주인공 중심 서사에서 발전하여 전쟁이 가족과 주변국가의 민족에게 끼친 영향까지 담고 있는 것이다.

傳은 사람의 일생을 다룬 문학으로 입전인물의 일생의 사건 중 특수한 에피소드

를 나열하여 입전인물을 褒貶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전은 입전인물의 가계·신분·성명·거주지 등에 대한 서술인 인정기술과 입전인물의 행적을 기록한 행적부, 작자의 논평이 이루어지는 논찬까지 3단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趙完璧傳」에서 인정기술 부분은 짧게나마 등장 하지만, 행적부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재능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전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때 「趙完璧傳」의 행적부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논찬부의 경우 이수광의 「趙完璧傳」에는 있고, 정사신의 「趙完璧傳」에는 없었다.

「趙完璧傳」이 가지는 특징을 임진왜란 이후 전의 변모현상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유기적 유형의 전이 증대하였다. 「趙完璧傳」은 유기적 유형에 속하는 작품으로 조완벽이 정유재란에 일본 포로로 끌려가서 상인이었던 일본 주인과 함께 安南을 오가면서 생긴 신기한 일을 하나의 서사로 서술하였다.

또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난 전의 변모 중 하나로 흥미추구라는 입전동기를 들 수 있다. 흥미추구라는 입전 동기는 입전 인물을 보다 다양하게 하였는데, 입전 인물이 규범적으로 교훈을 줄만한 인물이 아니어도 입전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사람이 입전 대상이 될 수 있었다. 「趙完璧傳」은 평범한 진주 사족인 조완벽에 관한 이야기로 그 내용은 조완벽이 겪은 安南 여정에 관련된 일이었다. 「趙完璧傳」의 작자는 조완벽이라는 인물보다 그가 겪은 일인 安南 항해 여정과 安南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 교훈보다 조완벽이 겪은 기이한 일에 대한 흥미로움에서 입전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서술방식 중 시점과 시간의 관점에서 고찰한 작품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시점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錦溪日記』는 일기체 실기문학으로 1인칭 시점을 사용했다. 『錦溪日記』는 정보전달을 위해서는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고 감정표현을 위해서는 주인공 시점을 사용했다. 관찰자 시점이 잘 드러나는 부분은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해 최대한 자신의 감정은 배제하고 기록하는 점이다. 특히 본인이 직접 보았기에 기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분량의 제한 없이 자세히 서술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에 비해 「崔陟傳」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사건은 주인공의 눈을 통해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사건을 목격한 주인공의 감정은 풍부하게 전달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높이고 감동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趙完璧傳」은 전의 기본특징인 역사가의 필체를 사용하여 서술했으므로,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錦溪日記』와 달리 주인공과 서술자가 일치하지 않는 3인칭 시점이며, 장르가 가지는 특성상 주인공이 경험한 내용을 짧은 서술로 나열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주인공 시점이 사용된 부분은 작가의 감정표현과 관련된 부분으로 작가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같은 감정을 주로 시를 통해 주인공 시점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崔陟傳」의 경우 시는 남녀 주인공의 애정을 돈독히 하는 역할을 하거나 작품 전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복선이다. 또 「崔陟傳」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기에 작가는 이야기의 시작과 끝 그리고 주인공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모두 꿰뚫고 있다. 그렇기에 시나 배경 그리고 주변인물의 묘사 등 여러 요소를 모두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었다. 『錦溪日記』의 경우 일기체로 작품의 전체를 체계적으로 구상하여 쓴 것이 아니기에 「崔陟傳」과 같이 시가 복선의 역할을 하거나 어떤 요소를 재배치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가 작품의 문학적 풍미를 높여준 다는 점은 「崔陟傳」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錦溪日記』의 작가는 자신의 감정을 대부분 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비해 「趙完璧傳」에서 조완벽의 감정이 서술되는 부분은 아주 간략하며, 전체적인 사건을 전개해 가는데 있어 필요하기에 서술된 듯 보였다.

『錦溪日記』가 실제 작가와 체험 주인공이 일치하는 1인칭 시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崔陟傳」은 3인칭 시점을 가지고 있었다. 3인칭 중에서도 전지적 작가시점을 가지고 있는데, 서술자는 주인공 남녀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적인 사건도 모두 알고 서술하고 있었다. 「崔陟傳」의 서술자는 작품에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또 실기 문학처럼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사건에 따른 주인공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기술하면서 사건에 대한 독자의 상상력과 감동을 높이고 있었다. 이 부분은 특히 최척의 가족이 지리산 燕谷으로 피란 갔을 때의 일에서 잘 드러났다.

최척은 음식을 구하러 산을 내려왔다 3일 만에 겨우 다시 燕谷으로 갔는데, 그러나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은 왜적의 노략질을 당했고, 젊은이들은 다 잡아가고 다친 노인과 어린 아이들뿐이었다. 최척은 노략질 당하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고, 작품에도 정작 노략질 당한 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은 없지만, 노략질 이후 장면을 최척의 눈을 통해 서술함으로써 그 참화가 얼마나 참혹했는가 하는 점을 짐작케 하고 있었다. 「崔陟傳」에서 이 장면은 전란의 참상을 고발함과 동시에 최척이 가족과 이산하게 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재현하고 있었다. 최척은 옥영뿐만 아니라 春生의 등에 업혀있던 몽석마저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독자는 현장의 처참함 앞에 가슴을 치며 기진하여 쓰러지는 최척의 모습에 더 큰 아픔을 느끼게 된다. 이런 점은 특히 『錦溪日記』와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다. 『錦溪日記』의 경우 1인칭 시점으로 작가가 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기술 하며,

작자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기술 한다. 작자는 실기 문학이라는 특성상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고 기록하려고 한다. 그리고 감정 표현은 대개 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작자의 생각은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상황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주인공의 감정은 직접적으로 표현한 「崔陟傳」은 『錦溪日記』와 상반된 모습인 것이었다.

「趙完璧傳」의 작자는 조완벽의 특별한 국외 체험을 기록하고자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주인공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자가 주로 다루고자 했던 것은 安南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었다. 그렇기에 그 경험을 한 조완벽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다. 「趙完璧傳」에서 조완벽의 심경이 서술되는 부분은 아주 짧게 잠깐 등장한다. 이 부분 이외에는 대부분 조완벽의 경험에 대해 관찰자적인 모습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錦溪日記』와 유사한 모습인데, 서술자는 사건에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관찰자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만 서술하고 있다. 이런 서술방식은 『錦溪日記』에서와 마찬가지로 경험의 사실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작품의 시간의 특성에 따른 비교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얻을 수 있었다. 『錦溪日記』는 일기체 실기문학이기에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었다. 이런 형식은 정보의 포괄이라는 점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 매일의 날씨까지도 명시하는 사실의 순차적인 기록은 독자로 하여금 작자가 체험한 시간과 공간을 보다 가깝게 느끼도록 한다. 『錦溪日記』의 주변인물은 작가가 국외 체험 기간 동안에 만난 단순한 개별 인간들에 불과하기에 유기적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개별적인 소재들은 주인공의 고국 귀환을 위한 국외 체험에 대한 기록이라는 단일한 주제 속에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이 부분은 특히 「崔陟傳」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崔陟傳」의 주인공은 최척과 옥영이지만, 작가는 그 외 주변인물에 대해서도 꽤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작품의 서술은 전체적으로 시간의 순서를 따르고 있지만, 중간 중간 인물별로 서술하게 됨으로써 서사의 병렬진행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모습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한 『錦溪日記』나 「趙完璧傳」과는 큰 차이점이었다. 「崔陟傳」이 시간의 역전 구조를 가지게 된 이유는 남녀 주인공이 이별하여 서로 다른 해외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趙完璧傳」은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 조완벽이 일본 주인과 함께 장사를 위해 베트남에 다녀온 일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조완벽이 경험한 시간의 순서에 맞추어 기술했다. 이는 일기체로 쓰인 『錦溪日記』와 같은 맥락이다. 「趙完璧傳」은 조완벽이 安南에 다

녀온 체험의 기록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조완벽이 경험한 시간의 순서에 맞추어 기술했다.

참 고 문 헌

자료

姜沆, 『看羊錄』, 조선고서간행회본에 의한 한국고전번역원의 영인본; 한국고전번역원, 『해행총재』2, 한국고전번역원, 1974.

魯認, 『錦溪日記』, 魯錫侹 소장 草稿本에 의한 한국고전번역원의 정사본; 한국고전번역원, 『국역 해행총재』9, 한국고전번역원, 1989.

李睟光, 「趙完璧傳」, 서울대규장각 소장본; 『한국문집총간』66, 한국고전번역원, 1990.

趙緯韓, 「崔陟傳」, 박희병 標點·校釋,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 2005.

鄭士信, 「趙完璧傳」; 『퇴계학자료총서』20, 안동: 퇴계학연구소, 1999.

저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권12, 탐구당문화사, 198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권22, 탐구당문화사, 199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권29, 탐구당문화사, 1995.

김진세 編,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김태준 外,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한국고전번역원 編, 『宣祖實錄』권47, 동회, 1987.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 사실과 낭만의 소설사적 전개양상』, 집문당, 1993.

박태상, 『조선조애정소설연구』, 태학사, 1996.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1.

박희병, 『韓國傳奇小說의 美學』, 돌베개, 1997.

박희병 標點·校釋,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 2005.

박희병·정길수 편역,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주: 돌베개, 2007.

이상구,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이채연, 『壬辰倭亂 捕虜實記 硏究』, 박이정, 1995.
장경남,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2005.
황패강, 『임진왜란과 실기문학』, 일지사, 1992

논문

강동엽, 「<崔陟傳>에 나타난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어문논총』4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권혁래, 「<趙完璧傳(趙完璧傳)> 의 텍스트와 문학적 의미 연구」, 『어문학』100, 한국어문학회, 2008.
권혁래, 「<崔陟傳>에 그려진 '유랑'의 의미」, 『국어국문학』150, 국어국문학회, 2008.
김진규, 「임란 포로 일기 연구 - 錦溪日記를 중심으로」, 『새얼어문논집』10, 새얼어문학회, 1997.
____ , 「임란 포로 소설 연구 - 崔陟傳을 중심으로」, 『새얼어문논집』11, 새얼어문학회, 1998.
____ , 「포로 모티프의 서사적 전개양상」, 『새얼어문논집』14, 새얼어문학회, 2001.
민영대, 「崔陟傳 硏究」, 『한남어문학』13, 한남어문학회, 1987.
____ , 「催陟傳의 作者, 玄谷 趙緯韓論」『한남어문학』15, 한남어문학회, 1989.
____ , 「催陟傳과 紅挑傳의 對比」, 『한남어문학』16, 한남어문학회, 1990.
박일용, 「장르론적 관점에서 본 崔陟傳의 특징과 소설사적 위상」, 『고전문학연구』5, 고전문학연구회, 1990.
박태상, 「<崔陟傳>에 나타난 애정담과 전쟁담 연구」, 『조선조 애정소설 연구』, 태학사, 1996.
박희병, 「崔陟傳 - 16, 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이산」, 김진세 編,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소재영, 「임진피로들의 해외체험 - 錦溪日記, 看羊錄, 海上日錄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9, 겨레어문학회, 1985.

신태수, 「<崔陟傳>에 나타난 공간의 형상」, 『韓民族어문학』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신해진, 「<崔陟傳>에서의 丈六佛의 기능과 의미」, 『어문논집』 35, 안암어문학회 1996.

이동근, 「임진왜란과 문학적 대응」, 『冠嶽語文硏究』20, 관악어문연구, 1995.

이채연, 「한.일 실기문학에 나타난 임진왜란 체험의 형상화 전략」, 『한국문학논총』22, 한국문학회, 1998.

장경남, 「임진왜란 실기의 소설적 수용 양상 연구」, 『국어국문학』131, 국어국문학회, 2002.

____ , 「壬·丙 兩亂과 17세기 小說史」, 『우리文學硏究』21, 우리문학연구회, 2007.

____ , 「임진왜란기 포로 체험 문학과 가족애」, 『한국문화연구』1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정구복,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미」,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2,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정환국, 「16~7 세기 동아시아 전란과 愛情傳奇」, 『민족문학사연구』15, 민족문학사학회, 1999.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한문교육	학 번	20088035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추 형 주 한문: 秋 亨 周 영문: Chu Hyeong-Ju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2동 상록아파트 102동801호				
연락처	010 * 8856 * 2883 E-MAIL: purple1031@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임진왜란 국외 체험이 담긴 서사문학 비교연구 영문 : A Comparative Study of Epic Literature on Overseas Experiences at the Period of Imjinwaera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ㅇ) 반대( )

2011년 2월

저작자: 추 형 주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